MAY 31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835~836 1982년 5월28일(금) & 29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Friday & Saturday, May 28 & 29,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인 쇄 인 : 박 정 서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한인민족상 수상자 결정

학술 : 권오율, 예술 : 김영숙, 공로 : 박재선, 봉사 : 김원겸

학술상 첫 시상, 공로·봉사상에 10명 경합

본사 제정 제2회 캐나다「한인민족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18명의 후보를 근 4시간동안 숙의·검토한 심사위원회(위원장 : 구상회)는 학술상에 르자이나대학 교수 권오율박사(46세·경제학) 예술상에 에드몬턴의 무용가 김영숙(34세)여사, 공로상에 토론토 체육인 박재선씨(58세), 봉사상에 마니토바대학 교수 김원겸박사(53세·분자생물학)를 올해의 수상자로 선정했다.

"높이 든 민족의 횃불"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이땅 문화나 교민복지에 크게 이바지한 교포 개인, 또는 단체, 때로는 한인사회에 공이 큰 타민족 인사에게 시상하는 이 상은 이날 두번째 수상자를 낸것이다.

지난 25일 밤6시30분~10시30분, 토론토한인가톨릭회관(439 Dundas St.E, Toronto)에서 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가 소집한 심사위원회는 10명의 심사위원이 참석, 1주전 배부된 18명 후보의 약력·공적등 구체적 사항을 듣고, 추천되어 온 이들 후보의 수상적격여부등 의견교환을 했다.

그중 이축길 부위원장(사진협회 추천), 이석현 사무국장(문인협회 추천)은 신상발언을 통해 미리 수상후보에서 자퇴함으로써 심사대상에서 자동제외됐다.

저녁식사후 다시 회의를 벌여, 선출절차·진행과정등을 협의한후, 부문별 본심및 비밀투표로 수상자를 뽑았다.

제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자를 수상자로 정하고, 그같은 득표자가 없을 경우, 득표순으로 2명을 놓고 다시 결선투표, 종다수제로 다득표자를 수상자로 삼기로 했다.

학술부문 단일후보인 권오율씨는 공적사항을 다시 의논하고 나서 비밀 신임투표, 찬성 9, 기권 1표로 압도적으로 선정됐다.

예술부문에는 3명이 경합, 김영숙씨가 7표 득표로 선정됐다.

18명 수상후보중 1명은 「추천인최소 10명」 규정에 어긋났고 1명은 추천서등 구비서류가 미달, 고려대상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공로상과 봉사상에는 10명이 경합, 심사위원들은 무기명으로 각자 2명씩을 추천, 표수가 많은 4명을 임시후보로 선정한 후 다시 두번째로 투표, 종다수 원칙으로 박재선씨(봉사), 김원겸씨를 뽑았다.

올해 수상자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 캐나다 전국 거주 교포수의 80% 이상이 살고 있는 메트로 토론토에서는 1명의 수상자가 나왔고, 위니펙(매니토바주)와 에드몬턴(알버타주)·르자이나(사스캐치완주)가 각 1명씩 나왔다.

지난해 제1회 수상자는 메트로 토론토가 3명(예술상: 박재훈·김용순, 공로상: 전택균), 키치너(온타리오주)가 1명(봉사상: 장근수)였다.

시상식은 6월26일(토)에 거행되며 이날 밤에는 심사위원들과의 파티가 있다.

◆제2회「한인민족상」 심사광경
왼쪽부터 전택균·이석현·안병원·박재훈·김춘탁·박충도·이축길·구상회
(김명규·박희민 양씨는 부분만 보인다.)

"장여인 사건에 충격 전대통령 입장난처

한국의 장영자여인의 부정융자및 사채사건은 한국의 금융시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전두환대통령을 당황케했다고 25일 월스트리트 저널지가 보도했다.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20개월전 전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 부정을 근절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서약했으나 장여인사건으로론 골치를 앓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 신문은 장여인을「사채시장의 여왕」으로 표현하고 장여인사건을 소상히 소개하면서 이사건이 단순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층과 배후관계가 있어 전대통령의 입장이 난처해졌다고 보도했다.

월 스트리트 저널지는 한국 언론계소식을 인용하면서 한국정부는 언론계가 이 문제를 조용히 다루기를 종용하면서 한국이 이제는 신뢰를 되찾아야 할 때가 왔다고 국민들을 납득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인들 인프레 억제 강조

(서울 26일=연합)한국의 주요경제기구장들은 26일 인플레이션을 10% 이하로 유지, 국내 경제활동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정책을 다소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국내경제를 뒤흔들어 놓은 최근 사채스캔달에 뒤따라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경제인연합회 정주영회장을 비롯한 유수기업의 장들과 대한상공회의소 정수창 소장은 보다 나은 경제풍토 조성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을 재다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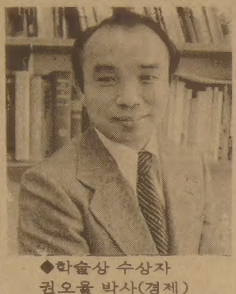
이들은 개인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및 경제촉진을 위한 조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한국상품이 국제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조건을 조성해줄 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 수상자 프로필 ——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학회서 인정받아 학술상의 권오율씨

학술부문 수상자 권오율 박사는 작년 8월 캐나다 농업경제학회 선정 「80년도 농경제분야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사스카치완주 르자이나대학 교수 권박사는 연방정부교통통제부 수석경제연구관 엄인호씨와 공동작성한 「주별로 본 편



◆학술상 수상자
권오율 박사(경제)

지씨(Rape-Seed)의 공급모델과 이에 따른 정책적 고려」논문으로 이 상을 수상했다.(본보 81년9월16일자 참조) 권위있는 이 상을 수상함에 따라 그의 학문적 공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36년3월5일 경남 창원군 출생, 56년 마산상고 졸, 62년 서울상대 무역학과 졸(상학사), 64년 캐나다 유학, 68년 캐나다 맥마스터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72년 동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경력: 62년~64년 한국은행조사부 근무, 71~75년 캐나다연방정부재무성 수석조세정책관, 75~현재 르자이나대학 교수, 사스카치완주 증권관리소 이사.

연구분야: 재정학·계량경제학·조세정책·자원개발정책·농업경제정책.

작년도 제1회 때는 학술부문 수상자가 없었다.

국악인겸 무용가 예술상의 김영숙씨

모국시절부터 국악인

◆예술상 수상자
김영숙 여사(무용)

·무용가로 활약이 큰 민속예술인.

48년도 다 기운 12월29일 서울서 태어나, 서울 국악중고교 졸업[illegible] 원 재직(68~75)중 일본 NHK방송국 두번 초청공연(68·70)을 비롯, 72년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일본 순회공연, 74년 동남아 순회공연, 75년 프랑스·네델란드·벨기에등 유럽순회공연단에 끼었다.

특히 국악원 여성 최초로 공로상을 탔고,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가곡)·제41호(가사) 전수자로 73년 제3회 인간문화재 전수자 평가대회서는 성악부문 수석수상자가 됐다. 궁중무용·민속무용·현대무용도 고루 습득했고 75년 이재완씨와 결혼, 뱅쿠버로 이민, 76년부터는 에드몬턴에서 김영숙국악연구소를 차려, 무용·가곡·시조·장구·가야금등을 가르치는 한편, 각종 다민족예술제·문화행사등에 출연, 한국예술 소개·보급에 힘쓰고 있다.

한글교육에 기여 봉사상의 김원겸씨

두드러진 학자가 자기 전공분야 이외의 방면에서 크게 봉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열과 성의, 희생심이 요구되는 교민사회 일선에서 다년간 꾸준히 이바지해온 분이 위니펙의 김원겸 박사(52·분자생물학)이다.

49년 서울고교 졸, 53년 서울대문리대(식물생리학·생화학)을 나와 55년 동대학 대학원에서 식물생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도미유학, 61년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에서 분자생물학 전공으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수상경력은 73년 한국외무부장관 표창(한인회 봉사, 한글학교 창설 공로), 트루도 수상 개인 감사친서(73년), 77년 한인회 10주년 공로패, 78년 주캐나다대사 공로표창패, 81년 한인연합회 봉사상패 수상이 있다.

봉사공적으로는 67년 매니토바한인회를 창설후 회계를 맡았으며, 72~73년 한인회장으로 재직시 민족제전에 참가했고, 한글학교를 창설한 후 캐나다 처음으로 정부자금을 지원 받았다.

74년부터 현재까지 한글학교장, 78년 한인학자회 심포지움서 과학부문 의장을 맡았고, 78~80년 학자회 부회장, 78년 12월 한인연합회 교육분과위원및 편집위원장으로, 78년10월 토론토씨알학교가 정부지원으로 편찬한 교재 "한글 I" [illegible], 81년 위니펙서 열린 한글교육자회의「코리아콘벤션 81」을 주관, 한인연합회이사회 부회장등을 맡고 있다.

◆봉사상 수상자
김원겸 박사(생화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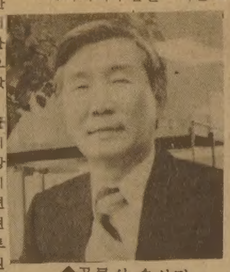
"체육에 산다" 공로상의 박재선씨

지난 66년 캐나다 이민후 오늘까지 10여년간 교포사회의 체육진흥을 위해 각종체육행사에 주역으로 뛴 공이 인정받아 박재선씨(54)가 한인민족상 공로상을 타게 됐다.

박씨는 1928년 1월12일 함남 함흥시에서 출생, 46년에 월남하여 52년 서울대학교 공대섬유과 졸업후 66년 이민때까지 줄곧 한직장인 흥한방직회사 인천공장장으로 근무했다.

토론토한인사회 체육역사하면 박씨를 눈앞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만큼 그는 깊이, 널리 각종 스포츠행사에서 진행·심판등으로 뛴 산 증인이다. 해마다 한인회 주최 야구대회 심판위원장을 맡아왔고, 77년부터 거행되어온 연예 연고전 심판주역, 매년 고교동창야구대회 심판위원장, 75년 한인청년 상설 축구팀 「코리언·타이거즈·사커클럽」 창설, 76~79년 회장으로서 토론토지역 축구협회에 가입하여 동협회산하 리그전에 참가, 다른 민족과 실력을 겨루었다. 한편, 연예 축구협회, 또는 한인회 주최 축구대회 심판을 맡았다.

타이거축구팀을 이끌고



◆공로상 수상자
박재선 씨(체육)

미국 뉴·저지주에 원정, 친선경기를 벌인 일도 있다(78년).

체육인으로는 민족상의 첫 수상자가 됐다.

오늘의 예금금리

종 별	기 간	신 용 조 합	일 반 은 행
정기예금	30일	14.5%	13~13.5%
	90일	15.25%	13.75~14.5%
	180일	15.5%	13.75~14.75%
	365일	15.75%	14.75~15.25%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 : 533-9387~8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20A BLOOR ST. W.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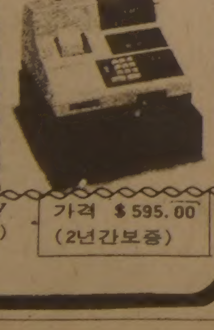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PANASONIC, SHARP, N.C.R.
Sweda, Victor, Delta Systems, TEC

◎판매, 써비스, 렌트
—Same day 써비스
—pick up & 배달
—Paper Rolls
—Free demonstration
Rent on lease with option to buy

◎ 2년간 보증



252－7377

822 The Queensway
(퀸스웨이 × 이슬링튼)
— 하비 햄버거앞 —

가격 $595.00
(2년간보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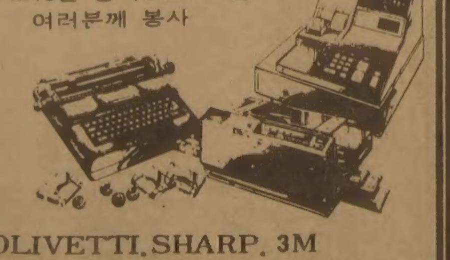
○사고시 보험 관계 일체 처리
○수리중 차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사고차량 TOWING SERVICE
○페인팅(OVEN BAKE FINISHES)

MISSISSAUGA
AUTO COLLISION
69 John Street, Mississauga, ONT.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SKY WAY

●각종 복사기
●각종 타자기－사무용, 가정용, 학생용
●캐쉬 레지스터
●계산기－사무용, 가정용

※신품과 중고
판매및 수리
※15년 경력으로 고민
여러분께 봉사



OLIVETTI, SHARP, 3M
MITACOPYSTAR, IBM, SANYO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김인환
(B)675－1395～6 (R)671－0938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휘문고하키팀 7월하순 도착

협회 신임회장에 이종원씨

한국하키의 명문 휘문고등학교팀이 오는 여름 또다시 토론토를 방문, 교포고등부팀인 화랑을 비롯한 캐나다팀과 친선경기를 갖는다.

79년 토론토를 방문, 본고장의 하키를 배우고 돌아갔던 휘문고팀은 김태식교장, 이병철코치 인솔아래 선수(19명), 임원(4명) 23명이 오는 7월하순부터 2주간 토론토에서 훈련한다.

캐나다 한인아이스하키협회(회장:이종원)초청으로 방문하는 휘문고팀은 한국의 전통적 하키팀으로 해마다 한국고등부에서 우승·준우승을 놓치지 않는 강팀이지만 지난 79년 화랑팀과의 대전에서 1승3패로 놀랬었다.

휘문고팀의 1차원정 경기때 수고한 전이영현회장으로부터 초청작업과 대리진행등을 인계맡은 신임 이종원회장은 "한국하키의 수준은 국가대표팀이 캘거리대학팀에 32:0으로 깨질 정도로 낙후했다. 하키의 나라 캐나다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지난19일 아이스하키협회 총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원씨(54)는 아들 범호군(14) 주호(12)군을 교포 중등부하키팀 와일드캣츠에 보내고 있다.

이회장은 "현재 화랑, 와일드캣츠 의 2원 조직으로 교포하키팀을 묶어 일원화, 명칭을 통일한 후, 중등부·고등부로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휘문고팀은 화랑팀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또한 지난2월 한국동계체전에서 우승한 교포소년팀 와일드캣츠도 휘문중학팀과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번 휘문고 2차원정에는 "재캐나다 휘문고동창회(회장:강치영)와도 긴밀히 연락 선수들의 뒷바라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한 이회장은 학부형, 독지가들의 지원도 당부했다.

갤럽조사, 신혼, 여행은 부산으로

(서울 27일=연합)한국인은 신혼여행지로 부산을 가장 좋아하며 성별과 교육정도에 관계없이 장미꽃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이 갤럽여론조사결과 밝혀졌다.

갤럽회사는 18세이상자 1,2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혼여행지로 21.6%가 부산을, 12.6%가 신라왕조의 고적지인 경주를, 그리고 12.1%가 제주도를 택했고 교육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경주와 속리산을 더 좋아했다.

한국사람들이 좋아하는 꽃은 장미가 으뜸으로 29.5%였고, 그 다음이 국화(18.8%)

외은 불루어지점 개점

31일부터 토요일도 영업

캐나다 외환은행(행장 최송낙) 불루어지점이 31일부터 문을 연다.

그동안 약2개월간 공사를 끝내고 개점준비를 완료한 불루어지점(지점장 김남수)은 627 Bloor St. W. (유클릿과 배서스트 중간·한국관 건너편)에 위치하며 토요일에도 문을 연다.

영업시간은 월~금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토요일은 아침10시부터 2시까지이며 전화는 533-8593.

은행고객용 무료파킹장은 건물 뒷편에 있다.

6월8일(화) 11시30분의 개점식에 이어 당일 저녁 6시부터 리셉션도 있을 예정이다.

김남수 지점장은 "캐나다 시중은행보다 예금·대부 양면에서 고객에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려 노력하는 교민의 은행을 많이 이용해줄 것을 바란다"고 27일 말했다.

◆김남수지점장

[온]주보건상, OHIP부당지적에 반박

"보험료 인상이 생계위협은 안돼"

온타리오건강보험계획(OHIP)의 보험료를 못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없는 주민은 한사람도 없다고 래리·그로스맨보건장관이 말했다.

이같은 그로스맨장관의 발언은 신민당소속 연방정부의원 짐·포울즈가 25일 의회에서 1년에 $14,000이하를 버는 많은 사람들이 OHIP보험료를 억지로 내거나 아파도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중 하나를 골라야된다고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한데서 나왔다.

포울즈는 최저생활선(Poverty line)보다 수천달러나 밑돌게 버는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지난13일 82~83회계년도 온타리오주 예산안이 나왔을때 OHIP보험료는 개인인 경우 월에 $4오른 $27, 가족은 $8오른 $54이다. 이같은 인상에도 불구 보험료는 전체 건강보험계획 비용의 19%밖에 커버하지 못한다고 그로스맨은 주장했다.

그로스맨은 보험료인상이 주민들의 건강관리및 치료에 위협을 주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하며 저임금자, 노인, 웰패어수령자들을 위한 전액 혹은 일부보험료면제 프로그램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로스맨은 다른 주 보건성장관들과 함께 연방정부 보건성장관 모니크·베긴을 만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인데 베긴이 우선적으로 다룰 의제는 의사들이 OHIP보험료에서 지불되는 이상의 의료비 청구를 금지하는 것과 주에서 주민에게 부과하는 의료보험료의 폐지등이다.

현재 캐나다에서 온타리오, 알버타, 브릿티쉬·콜럼비아주만이 주민들에게 보험료를 받고 있다.

實戰뺨치는 宣傳戰치열

포클랜드 戰況놓고 兩國「프로파간다」에 注力

전쟁중인 아르헨티나와 영국에서는 현재 매스컴을 이용한 여론조작과 「위장전술작전」이 한창이다.

영국의 경우 지난21일 국방성관리들은 신문·방송기자들에게 앞으로 포클랜드에서 일련의 히트·앤드·런작전이 펼쳐질것이라고 밝히고있는동안 이미 영국특공대는 1956년 수에즈침공이래 최대의 상륙전을 벌이고있었다. 아르헨티나군을 속이기위해 언론을 이용한 것이었다. 런던의 일요신문인 옵저버지는 『플리트·스트리트(런던의 신문가)는 최소한 42척의 구축함과 맞먹는 값이 있는 곳이다』면서 이같은 정부발표는 매스컴을 이용 아르헨티나군을 교란시킬 목적에서 나온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데이·타임스지는 정부의 시침떼기전술은 이번외 포클랜드상륙작전때 맨처음 비롯된 것이아니라 대규모기습공격을 교묘히 은폐하기위해 외교가에 공습설을 유포하면서 시작됐다고 풀이했다.

◆전황이 실린 신문을 읽고있는 런던시민. 그러나 신문보도내용은 전략적으로 정부에 의해 이용당하고있어 고의적 오보도 적지않은것으로 알려졌다. <런던-UPI>

그런데 영국정부의 위장전략은 사실상 런던주재 고참특파원들에게 브리핑을 실시한 20일 저녁부터 시작된것이었다.

그무렵 영국해군 5천명(처음영국은 1천명으로 발표했으나 현재는 5천명으로 밝히고있다)은 이미 상륙명령을 받고 포트·산·카롤로스에서 교두보를 구축하고있었다.

艦上서 보내오는 特派員보도도 軍검열필

英國防省대변인 我軍 安全위해 誤導불가피"

英國, 히트·앤드·런作戰발표중에 이미 上陸戰

아르헨, 연일 連戰連勝 허위戰況보도가 판쳐

영국정부가 누설한 히트·앤드·런전략은 즉각 국내통신·신문·라디오등을 통해 보도됐고 외신들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많은 영국신문독자들은 21일아침 『소모전이 수행될것이다』라는 신문제목을 읽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국군은 해안선에 상륙중이었고 해군함정들은 포클랜드해협에서 상륙군 지원작전을 벌이고있었다.

이때 프란시스·핌 영국외상은 공격은 21일아침늦게 있을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었다. 그는 한 라디오인터뷰를 통해 『지난 15일 48명의 영국특공대가 페블섬에서 수행한것과 같은 일련의 기습공격이 있을것같다』고 밝혔었다.

그리고 전황보고에도 문제점이 따른다.

이제까지 영국측에도 다수의 희생자가 틀림없이 발생했을것으로 보고있으나 전황소식은 정부발표, 고위관리의 배경설명, 그들의 끄덕이는 고개짓과 눈돌림등에 의해 알려지기 때문에 극히 불확실한 상태다.

함상에서 보내오는 특파원들의 보도도 일단 군의 검열을 거친뒤 보내지고있는것이다.

관리의 부인도 시인도하지않은 교묘한 고개짓하나로 엉뚱한 추측보도가 나오기도 하는데 얼마전 핵잠수함 수퍼브호가 사실은 스코틀랜드기지에 귀환해 있었는데도 2백해리 봉쇄가 발효중이던 포클랜드해역에 잠복 중이라고 기사화했던것은 그 좋은예이다.

이안·맥도날드 영국국방성대변인은 『잘못알고 있는것을 기자들에게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군인들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을 경우는 약간은 고의적으로 기자들을 오도할수도 있다』고 시인했다.

관리의 고의적인 오도는 오보를 내게한후 나중에 정정보도를 하도록하는 것이다.

가령 맥도날드대변인이 지난4월22일 웨섹스헬리콥터 2대가 포클랜드해상에서 눈보라때문에 충돌했으나 승무원은 무사하다고 발표한것도 오보를 내게한 경우였다.

당시의 국방성발표는 웨섹스기들이 아르헨티나군에 나포되기 3일전이었으며 웨섹스기의 실종소식은 몇주후 한해군수병이 고향에 보낸 편지로 세상에 알려졌던 것이다.

포클랜드전쟁은 한영국야당의원의 지적처럼, 『크리미아 전쟁이래 가장 사진이 없는 전쟁』인지도 모른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도 매스컴을 통한 여론조작이 성행, 아르헨티나군이 영국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두고 있다는 일방적보도가 판을 치고있다.

세계는 대체로 영국군이 우세하다고 믿고있으나 아르헨티나군들은 정반대로 생각하고있는것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정보기관이 PR을 담당, 『아르헨티나군이 공습을 감행, 큰성과를 거뒀다』는식의 짤막한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도예가 정동훈 전시회

11일부터 세타델 화랑에서

온타리오미술대학(OCA)에서 도예를 연구하고 있는 정동훈씨(34)가 오는 6월11일부터 26일까지 세타델화랑(Setadel Fine Arts, 302 King St.E.)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갖는다.

캐네디언들에게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한 예술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도자기를 소개할 기회를 찾고 있던중 전시회의 꿈을 실현케된 정씨는 경희대 요업공예과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3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채로운 수상경력을 갖고 있는 한국 도예계에서 가장 작품활동이 왕성한 작가중의 하나이다.

지난 주 본사를 찾아 전시회 소식을 전한 정씨는 "일본도자기의 우수성은 캐네디언들에게 많이 인식되었다. 한국도자기를 알릴 수 있는 자료가 부족, 안타깝다"고 말하고 교민들이 모국을 방문할 때마다 모조품이라도 한국도자기를 사와서 캐네디언들에 소개하는 것도 한국예술을 알리는 한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한국 도예가들중에는 서양에서 기술을 연구, 도입한 사람들이 많아 한국의 전통적 도자기예술 보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정씨는 "그동안 사귄 캐네디언 도예가중 한국에 유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다. 한국과 캐나다간에 인적·문화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씨에 의하면 일본도자기는 신라토기, 고려 청자, 이조 백자로 크게 나뉘어지는 한국도자기 기술을 전수, 발전시킨 것으로 도자기를 굽는 "가마"의 일본말도 순수한 한국말에서 유래됐다고 한다.

뉴마켓에 있는 캐네디언 롬블래스 도예가 조셉·파니치씨의 아틀리에에서 수개월간 전기가마로 작품을 만들어온 정씨는 소나무로 굽는 한국의 전통적 가마에서는 소나무연기로 인한 특별난 효과가 나지만 서양 가마에서는 그런것을 기대 못한다고 말한다.

토론토로 유학오기 전 여주에서 한국기와를 만드는 한국특유의 흙으로 자기를 구워 기와와 같은 빛깔과 질감의 작품을 만드는 데 주력했었다는 정씨는 이같은 토속적인 예술품을 계속 개발, 서양에 알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OCA 5학년 과정을 졸업한 정씨는 앞으로 일년간 미국 알프레드·유니버시티에서 공부할 계획인데

큰 가마를 가진 것으로 유명한 이 대학은 미국에서 도자기 공부에 필요한 시설을 제일 많이 갖춘 대학 중의 하나이다.

전시회가 열리는 세타델 화랑의 전화번호는 368-0585. 오프닝파티는 11일 저녁 7시부터 9시반 사이.

(조미래 기자)

◆서양식 물레로 작품을 다듬고있는 도예가 정동훈씨.

경남 중고교 동창야유회

경남중고등학교 동창 야유회가 6월5일(토) 아침 10시30분 달링턴 프로빈셜·팍의 피크닉·에리어·원에서 개최된다.

경남중고교동창회는 많은 동창들의 참석을바라고 있다.

연락처는 244-2873(윤영수회장댁).

토론토대 영어 진학시험

실력미달 650명 탈락

토론토대학교(University of Toronto)가 2년전부터 실시한 진급을 위한 영어시험에서 실패, 3학년 진급이 불가능해진 학생수는 무려 650명으로 그중 450명은 이미 자진 전학 혹은 퇴학했다고 25일 대학당국이 발표했다.

아더·크루거 문리대학장은 외국학생들은 영어시험 실패자의 20%를 차지하며 금년도 입학신청자가 8%가 줄어든 것도 영어시험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토론토대학 입학생들은 2년동안 6회의 영어시험을 치를 수 있는데 학교가 요구하는 영어실력은 고교13학년 수준으로 문법, 철자보다는 내용의 일관성과 구성등을 중요시한다. 2년간 영어시험에 합격치 못하면 비록 학과시험에 성적이 좋더라도 3학년 진급이 안된다.

크루거학장은 영어시험제도로 "대학에 다니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골라내게 된 셈이다. 문장하나 제대로 못쓰는 사람들에게 학위를 수여한다는 것은 대학의 자존심문제에 해당된다. 에세이 하나 제대로 읽고 쓰지못하는 사람이 쉐익스피어 희곡을 공부하면 뭘하느냐"고 말했다.

영어시험에 통과한 학생의 문장 하나를 소개한다.

합격수준의 영문과 번역

"There are numerous fallout of objects from deep outer space that has actually fallen down on earth. We have come up empty, in trying to explain what these objects are; where did they come from, and if we can expect more."

(요약: 많은 물체가 우주에서 지구로 떨어졌다. 우리들은 아직 이 물체들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올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교민동정✤

◆나덕현(초대동우회 부회장)=지난 연휴주말 온타리오 북쪽 윌드·워터 지역에 피크닉갔다가 귀가 중, 베리 북쪽 10km 지점에서 차사고를 당했다.

동우회에 의하면 나씨 가족중 딸은 무사하나, 나씨와 부인·아들 3명이 중상이다. 단 생명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이들은 토론토 노스웨스트종합병원(핀×에그린톤)에 입원중이다.

사고는 상대방차가 차선을 침범해 들어와, 나씨 차를 정면으로 받는 바람에 일어났다.

녹용수입 제한 철폐고려

미국서 19톤수입 90% 충당

(서울 27일=연합)한국정부는 점증하는 녹용수요에 발맞춰 지금껏 실시해오던 녹용수입제한 철폐를 고려하고 있다고 26일 농수산부 소식통이 말했다. 녹용이라고 불리어지는 사슴의 뿔은 예부터 한국에서는 효력이 좋은 강장제로 귀히 여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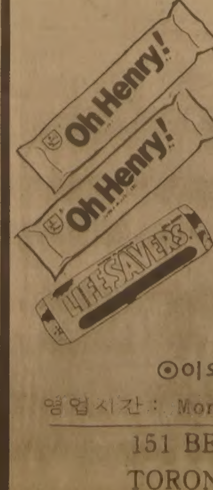
소식통에 의하면 작년에 한국은 미화 $850만 상당의 녹용 19톤을 수입하여 국내 수요의 90%를 충당시켰다.

한국에서는 녹용이 여성과 어린이에게는 최고의 강장제로 남성에게는 최음제의 역할을 한다고 알려졌다.

한국에는 작년말 현재 11,100마리의 사슴이 자라고 있으며, 지역시장에서 1마리당 175만원~8백만원($2,430~$11,111)을 호가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FALLIS U-SAVE CASH & CARRY

세일기간 : 5월19일~6월5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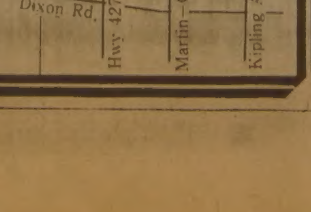


- 모든 LOWNEY'S 초코레트바 Reg.36's $9.45
- 오·헨리 Reg 36's $9.19
- Cadbury Thick Bars 36's $13.07
- Rowntree Dairy Box 1Lb $9.73
- Black Magic 1Lb $10.61
- Life Savers $4.09
- Hershey's Reg.36's $8.99
- DELSEY Toilet Tissue 24/2's $17.99
- HEINZ TOMATO Juice 24/10oz. $7.99
- POP Wilson Product $5.59
- Coke,7-Up $5.99

⊙이외에도 많은 Special 품목이 있읍니다.

영업시간 : Mon-Fri(8a.m.-4p.m.) Sat.(8a.m.-2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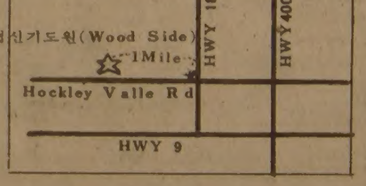
151 BELFIELD RD, REXDALE, P.O.
TORONTO, ONTARIO M9W 1G8
Tel: 249-8411



하기수양회

하나님의 축복이 각교회 성도님에게 임하시기 축원합니다. 금번 한국에서 16년간 반석기도원을 운영하시며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김영자원장님을강사로 모시게 되었음으로 시내 각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이 수양회에 참석하여 은혜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준비물 : 성경, 담요, 세면도구 (식사는무료제공)
일 시 : 6월4일(금)7시~ 6월6일(일)아침
장 소 : 협신기도원 6 HOCKIEY VALLEY RD.
연락처 : 245-1687
강 사 : 김영자원장 (반석기도원 원장 16년간 역임 현, 영광장로교회 전도사)



주최 : 협신선교협회

한국 외국인교회 증가

서울에만 10여개 자체교회건물도

(서울26일=연합)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수가 늘어나고 그들의 코뮤니티가 커짐에 따라 외국인 교회들도 새로운 면모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서울에만도 10개 이상의 외국인교회가 있으며 몇몇은 그들 소유의 교회당을 갖고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교회는 처음에는 적은 인원으로 한국인교회를 빌려 예배를 보며 선교활동을 했다.

현재 주한 미국인은 모든 교파를 초월, 서울연합교회라는 이름으로 일요일마다 100여명이 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예배를 드린다.

한편 일본인들도 지난 10년동안 서울 연동장로교회를 빌려 60여명이 정기적으로 예배를 보며, 주일학교, 성경연구반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가장 크고 오래된 외국인교회는 중국인 교회로 서울 도심지 정동에 자리잡고 있다.

중국인교회는 1910년 북한에 세워졌으나 한국전쟁(1950~53)때 남하 '62년 현재의 정동에 재건립했다.

중국인교회는 서울말고도 부산과 대구등 전국주요도시 7개소에 지교회가 있다.

이밖에도 국제루터란교회, 서울국제침례교회, 제7일안식일교회, 말일성도예수그리스도교회가 있다.

한남동에 있는 루터란교회는 영어와 독어로 일요일에 2번 예배본다.

서울 국제침례교회는 미8군 구내에 있으며 150여명의 신도들 대부분이 미군과 그의 가족들이다.

◆천만다행—LA코리아타운 근처 교포들이 세들어 사는 작은 아파트에서 개스폭발로 불이나 1살된 아기를 포함, 교포7명이 화상을 입었다. 아파트 바닥에 설치된 불량난방기에서 유출된 천연개스가 폭발한 당시 아파트 내에 있었던 김묘원(60)할머니가 손자를 등에 업은채 화를 면한 안도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김할머니는 폭발과 함께 재빨리 아파트 밖으로 나와 화를 면했다고.〈LA지사〉

—정　정—

26일자 북한판 춘향전 기사중 문예봉의 역할은 이도령의 어머니였음을 바로 잡읍니다.

◀독자의 광장▶

내가 살아온 생활

J.K.C생

(Willow dale에서)

내가 이곳에 도착한 날은 봄이었읍니다. 따뜻한 봄의 햇살을 쬐면서 이곳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눈에서 핑도는 눈물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읍니다.

우리 가족들은 머물곳도 없고, 갈길도 없었읍니다. 아는 사람이 없는 이곳 타국 땅에서 누구에게 신세를져야 좋을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읍니다.

우리 가족은 며칠간 길거리에서 헤매였읍니다. 가진 돈도 없었고, 영어도 할 줄 모르는 우리 가족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채 어느 공원에서 며칠을 보냈읍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한사람이 우리에게 접촉을 하는것 이였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순경인 것을 나는 알았읍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방을 구하였읍니다. 한달에 350달러 내는 방이였읍니다. 우리 가족이 가진 돈은 500달러밖에 없었다. 방값을 350달러 지불하고 나니까 150달러, 남는 것으로 부엌에 쓸 도구를 샀읍니다. 그리고 나니까 돈이 한푼도 남지 않았읍니다. 조국으로 갈 수도 없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돈이 없으니까 갈곳이 있어야지요.

그리하여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교민을 만났읍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지렁이를 잡으면 당분간 생활할 수 있다기에 나는 지렁이를 잡고 동생들은 학교에 다니게 하였읍니다. 부모님께서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느 공장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읍니다.

우리가족은 약1년간 먹고싶은 밥한끼 제대로 못먹고 살아왔읍니다.

그 후로 부모님께서는 조국으로 가자고 하였지만, 나는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것을 부모님께서 잘 알고 있었읍니다.

그 후 몇달이 지나서 우리 가족은 크나큰 충격을 받았읍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충격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읍니다. 나 자신이 해결해야 한다고 결심하였읍니다.

우리 가족이 이곳에 도착한 날은 80년 4월경 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은 남들보다 잘 살 수는 없지만 남에게 욕 안먹고 살아가고 있는것 입니다.

제 나이는 지금 22세입니다. 부모님께서 일할수 있다면 나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나의 간절한 소원을 생각하면서 이 글은 쓰는 것입니다. 나의 성명을 밝히지 않겠어요.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8.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장편연재〉

영원의 방랑객 ㊻

고 마태오

제4장 딴따라 미사의 파동

그렇게 되면 당신에 대한 본당의 신부들의 시기심과 비난의 소리는 높아만 갈거요. 나는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오. 당신의 꿈인 한인사회가 이 모래알시에 버젓이 설 때까지 당신은 몸조심해야 하오. 인간은 자기보다 약해보이는 사람을 동정하고 협조해 주지만, 반대로 자기보다 강한 상대방을 시기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오. 신부들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인간적인 본능이 있음을 당신은 잊어서는 안되오. 하물며 우리들 서양인들 틈에 끼어 살아야 할 외국인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게 보일 때,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유혹이 있게 될거요. 이 점이 나에게 문제란 말이오. 태오 신부, 부리노가 하겠다는 가두전도를 우리는 막을 수 없으나, 나는 당신이 거기 가담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리고 싶소. 태오 신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하루 빨리 공의회의 정신 안에 쇄신되어 사목자의 양심에 비친 모든 일을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멀지 않아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길거리미사든 가두전도든 지역의 사목적인 실정에 따라 자유로이 지낼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을 나는 기다리고 있소. 그날이 오면 우리 서로가 주님의 사업과 교회에 대한 순종 사이에서 받게 되는 이 마음의 고통과 갈등이 한 아름다운 추억으로 회상될 거요. 태오 신부, 참읍시다. 특히 당신의 장래를 위해 교회에 순종 하며 참기로 합시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교회에 순종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선 나는 어버이 같은 기이에 본당신부의 자상한 마음씀에 감동되었다. 그리고 나를 그처럼 깊이 사랑하고 있는 그분에게 무한히 감사했다. 그분은 본당신부와 보좌신부라는 관계적 질서에서 오는 단순한 상급자만이 아니었다. 그분은 진정 내 형님이요, 한 아버지같은 분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나는 놀라움을 금할 길 없었다. 주님의 구속사업을 계승하기 위해 청춘과 생명까지 바칠 각오 아래 복음전선에 뛰어든 신부들의 사회 안에도 그러한 추잡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을 위한 사업인데, 누가 뭣을 하든 그게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남이 나보다 더 수고할때, 우리는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감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주님안에서 남이 더 잘되기만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할 우리들 신부들이 남이 잘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한다니…. 악의 본체가 무엇이며, 또한 인간의 본능안에 자리한 악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봤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악의 뿌리는 시기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하느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원조 아담의 교만이 있기전에 하느님과 아담과의 다정한 사이를 사탄이 먼저 시기했던 것이다.

물론 성인전을 읽으면서 신부들이나 수도자들 사이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얼마나 독스러운것이 였는지를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와 같은 말단 신부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는 여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독이 이미 내 사목생활에 파고 들고 있었다. 동료들의 시기와 미움속에 그들과 같이 나누어야할 공동생활! 몸조심하라는 기이에 본당신부의 말이 이제는 얼마쯤 이해가 되는 것같았다.

나는 기이에 본당신부의 충고를 따르기로 했다. 그러나 그것은 동료신부들의 시기와 비난이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그들과 나눠야 할 공동생활의 원만성을 위한 그 어떤 타협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남들이 필요이상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내 나름대로의 양심인 동시에 일에 쉽사리 열중하고, 또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내 성미를 절제하라는 주님의 권고로 받아들인 내 신앙이었다. 하지만 내마음은 편안하지 못했다. 그리고 앞으로 부리노를 대하기가 부끄러울 것만 같았다.

나는 소성당 기도실에 들어갔다. 답답한 심정을 주님께 호소하고 싶어서였다. 장궤틀에 무릎을 꿇고 무릎이 저려오도록 오래 있었다. 그러나 그날따라 도무지 기도가 안되었다. 그저 슬픈 기분뿐이었다. 그렇다고 눈물도 안나왔다. 십자상에 매달려 계시는 주님이 여느때 없이 무기력하게 보였다. 주님께서도 내게 하실 말씀이 없으신 것같았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무릎에 감각이 없어질 무렵 불현듯 한 가지의 생각이 떠올랐다.

"주님, 문제를 일으킵시다. 아무래도 그것외에 좋은 방법이 없을것만 같읍니다."

나는 즉시 주님께 여쭈었다.

"…"

주님께서는 묵묵히 계셨다.

"차라리 주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이 제 마음 편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에 꼭 사건을 일으키고야 말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모래알 교구내에 좀 말썽이 생긴다 해도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당신께 영광을 드리고, 또 당신을 대신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전하기 위한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태오야, 잠깐만…"

주님께서는 내등뒤에서 나를 부르고 계셨으나 나는 이미 소성당문을 나서고 있었다.

(계속)

프로축구 블리자드를 즐기자
입장권 예매처
한국일보사 533-2361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영철

신앙의기본

기도란 무엇인가(4)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28：9)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계심 자체를 무시하는 기도를 드릴때 우리는 "실천상 무신론자"가 됨은 물론 하나님의 인격을 손상 내지는 모욕하는 결과에 빠질수가 있다는것을 생각했고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방식의 다양성과 그 각각의 실례들을 성경 여러곳에서 찾아 보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로서 잠언28장9절의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하신 말씀을 생각했다.

오늘은 그 다음으로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약4:3)"하는 말씀을 생각해보자. 이는 기도하는 자가 "이 세상이나 거기에 있는 것들"을 탐하여 소유하고 추구하는 심정으로 구할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사도 요한의 다음 말씀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된다. 즉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라(요일2:15−16)".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의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먼저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자가 없으리라(잠언21:13)"고 하셨다. 인류애의 따뜻한 심정이 없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있는 사람이 남의 자비를 구할 자격이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또 이사야서 1장15절에는 "너희가 많이 기도 할찌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악이 가득함이니라"고 하시어 일방 악을 행하면서 종교의 의식으로 하는 많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사야1:14)"으로 느끼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뿐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리라(시편66:18)"하시어 기도하는 자가 마음 속으로라도 죄악이나 불의한 것들을 용인하는 태도를 취하면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면서 죄나 불의한 것을 미워하고 또 배척하는 심정이 우선되어야함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가르치는 바는 기도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터 위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의 문제로 "어떻게 기도해야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할것을 요구하고 계신다(요14:13).

기도를 끝내는 말로서, 그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할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리지 않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다른 불(레위기 10:1)"을 드리는 것같아서 오히려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깊이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때 먼저 알아야 할것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앞에 나아가 우리의 소원을 구할 자격이라도 있는가하는 점이다. 천하 모든 인간은 하나님앞에 접근 할수도 없는 죄인들 입은 물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항하며 그를 알고는 있으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진노만을 사오던 죄인들이다. 이들이 무슨 염치로 그에게 나아가 무엇을 달라고 할수 있는가? 중보자이신 예수·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 갈수도, 또한 무엇을 구할수도 없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신앙의 터위에서 기도할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인가?

우리 주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마태6:33)"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마태6:9)"하시면서 기도의 전범을 보여 주셨고 "은밀한 중에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마태6:6)" 어떠한 인식의 터 위에서 기도해야 할 것도 가르치셨다. "주기도문"을 암송만 하는 것은 무의미한 기도가 됨은 물론 이교적이고 미신적인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암송할때 주께서는 그것을 "우리 자신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릴것을 원하시고 계신다.

우리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분석해보면 크게 세 부분 즉 기도의 시작하는 말, 여러가지 간구하는 말들 그리고 기도의 끝맺는 말로 되어있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아버지시여−"로 시작하여 "그의 성호"에 관한것, "그 나라", "그 뜻", "우리의 필요한 것들", "우리의 죄", "악에서 구해주실 것"등을 구한후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라 하시어서 우리 기도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에 구한다는 신앙의 표현으로서의 기도임을 가르치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저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렇게 나왔나이다−"

아버지께서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겠사옵는데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에 더욱 능력있게 저희를 통하여 드러나며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땅에서도 이루어져야 겠사오니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옵시고 또 행할수 있도록 능력 주옵시며………

우리의 먹을것, 입을것, 살수있는 모든 환경을 보호, 지지해 주옵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중보자 예수님을 보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형제들에게로 연장하여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할수 있도록 해 주옵시며………

사탄과 그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사 우리가 악한 자들의 올무에 빠져 괴로움을 받는일이 없게 하시고 또 우리로 사탄의 왕국에 감연히 대적할수 있도록 능력 주시어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결과에 이르러 저희가 영원히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끝)

"기도란 무엇인가"4회를 끝으로 본 교회에서는 신문광고 형식의 글을 마치고 그대신 월간지 "개혁자"를 발행할 계획인바 그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의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주시면 매월 무료로 우송해 드리겠읍니다.

T.Y. LEE　Agincourt, Ont.　492−9889　661−4581
14 Lambeth Sq.,　M1W 3B4　498−0241　222−7331

개혁장로교회(1355 WARDEN + ELSMERE 남쪽 : 예배 - 주일오후2시 : 문의 - 492-9889, 592-6142):REFORMED PRESBYTERIAN CHURCH

國會 院內戰略에 陣痛

各黨、28일開院앞두고 連日대책회의

張여인사건收拾 마무리 단계에 / 政治攻勢 가능한沮止 — 民正

李哲熙·張玲子부부의 巨額어음사기사건을 다루기위해 28일열리는 제113회임시국회가 25일 召集공고됨에따라 民正·民韓·국민등 주요정당은 각종 對策會議를 열고 院內戰略을 마련했다.

民正黨은 현재의 정치경제등 모든與件상 정부與黨의 대폭적인 改編으로 이사건을 일단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이사건에 대한 論議를 줄여 점차 수습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아래 野黨이 제기할 政治攻勢를 가능한 초기단계에서 저지한다는 전략을 마련한반면 野黨측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나 改閣등 일련의 수습책이 국민의 疑惑을 풀기에 未洽하다는 전제에서 國政調査權발동과 劉彰順국무총리 羅雄培재무 鄭致根법무장관등 관계각료의 引責攻勢를 펴기로 했다.

國政조사權 강력요구 / 總理등 관계閣僚 引責案내기로 — 民韓

특히 野黨측이 요구하고있는國政調査權의 발동에대해 民正黨은 운영위의 단계에서 表決로 폐기시킨다는 방침이나 民韓黨등은 운영위에서 폐기되더라도 本會議에다시 上程하여 토론을 벌일방침이어서 귀추가주목되고있다.

民正黨은 25일 상·하오에걸쳐 黨職者회의와 中央執行委및 총무단·상임위원장이참석한 院內對策委를 잇달아열고 야당측이 정치공세의일환으로 제출할것으로 예상되는 국정조사를위한 特委구성결의안,부총리및 재무부장관해임결의안등 정치의안은해당상임위및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시킨다는 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법무장관을출석시켜張여인사건에대한 2차수사결과 발표이후의수사진전상황이있으면 이를소상하고 성실하게 밝히도록하는한편 경제부처장관들에게 경제안정대책을 밝히도록 정부장관을통해 촉구키로했다.

民韓黨은 당무회의에서 이번국회에서 張여인사건을 철저히 규명키위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特調委구성을강력히 요구키로했다.

당무회의는 또 이사건의책임문제와 관련, 국무총리에대한 사퇴권고결의안과 부총리, 재무장관, 법무장관에대한 해임결의안을 이번국회에서 내기로 결정했다.

당무회의는 국정조사特委구성과 관계각료 인책문제가임시국회에서 관철되지않을경우 비상대책을 강구키로했다고 金珍培대변인이밝혔다.

民韓黨은 이날하오 총무단회의를 열고 張여인사건을▲자금행방 ▲배후세력·권력개입문제 ▲정치자금관련 여부▲善意의 피해자구제대책 ▲제도적방지책등에 중점을 두어 본회의와 각 상임위에서집중 추궁키로하고 국정조사권발동을위해 적극대처키로 강구키로했다.

국민·議政同友會도 加勢

국민당은 25일상오 당무회의를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民韓黨및 議政同友會와 공동으로 國政調査權발동을 위한결의안을 제의하고 운영위에서 부결될경우 本會議에 상정, 관철을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다.

議事日程 합의못봐

民正·民韓·국민등 3黨총무는 25일하오 회담을 갖고 28일로 소집공고된 임시국회會期및 의사일정문제를 논의했으나 타결을 보지못하고 26일하오 다시再論키로했다.

이날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5일간의 會期(일요일포함)중 본회의2일, 상임위 2일의 의사일정을주장했고 林鍾基民韓黨총무는 본회의와 상임위를 2일간씩 연후 다시1일간의본회의를 열어 議案을처리할것을 주장하여 타결을보지못했다.

그러나 임시국회기중 이사건과관련된 財務·法司·經科委등3개 常任委소집엔 합의했으나 야당측이 주장하고있는 농수산·商工·建設·保社委의소집엔 최종합의를 보지못했다.

各黨, 質疑者선정

民正、民韓、국민당과 議政同友會는 25일 제113회임시국회 본회의의 對정부질의에나설 의원을 각각 다음과같이 선정했다.

▲民正黨=李亮雨·郭正出·尹國老 ▲民韓黨=金承穆·李官炯 ▲국민당=李聖秀 ▲議同=林榮洪

◇全대통령이 25일낮 관계인사및 농민들과모내기를하고있다.

全대통령、農民들과 모심어

安城郡 大德面서, 郡廳도 시찰

全斗煥 대통령은 25일京畿道安城郡大德面内里에서 모를 심은뒤 歸路에 安城군청을 둘러 보았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모내기현장에 도착, 廉普鉉京畿道지사로부터 道内 모내기현황을 보고받고 朴鍾文농수산부장관、民正黨의 李鍾燦、鄭東星의원、廉지사、尹勳燦농촌진흥청장 그리고 耕作人및 청와대비서실 직원 3백여명과 함께 6천3백평의 논에 모를 심었다.

全대통령은 이어 현장에 임시로 마련된 천막에서수행한 관계관및 농부인등 부락민 5명등과 약주를 곁들인 오찬을 함께 하면서『각부처별로 벌이고있는 모내기일손돕기운동은 모를 심은것으로 끝내지말고 秋收때도 도와주는등 모를 심은 기관이 사후책임도 지도록 해야한다』고 朴농수산장관에게 당부했다.

全대통령은 또『安城은 옛날부터 鍮器가 유명한데 한군데 정도는 정부가 지원을하더라도 이고장의 전통을이어나가도록 하는것이좋겠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오찬도중 인근에서 놀고 있던 어린이와 어린이의 어머니를 불러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고 오찬을 마치고 모내기현장으로 걸어나가다 인근에서 모를 심다 달려온 농부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全대통령은 이어 이날하오 1시12분 安城군청에 도착, 崔順植군수로부터 郡政보고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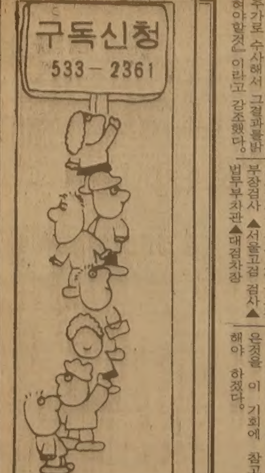
"張女人사건 捜査납득 안가 / 官權 萬能풍조 결과"

柳民韓총재、이번國會서 철저히추궁

柳致松 民韓黨총재는 25일『張여인 사건에는 배후가있다고 판단되며 이 사건은 누적된 관권 만능 풍조에서 비롯된것』이라며 『이번임시국회에서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柳총재는 이날상오 당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정의사회의 측면에서 이사건을 철저히 파헤치지않으면 국민의혹은 더욱 짙어질것』이라고주장『사건이 규명돼야 民心이 수습되고 政局이 안정된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張여인사건에대한 검찰수사발표를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있다』고 지적하고『검찰은 張여인사건에대해 현재 알고있는것을 소상히 밝히고 미흡한것은 추가로 수사해서 그결과를밝혀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호람샤르奪還

5백78일만에 이라크軍 3萬명 포로

◇이란軍이 전략요충지인 호람샤르를 탈환한후 투항한 이라크軍포로들을 처리하고있다. 이사진은 이란관영 IRNA통신이 제공한것。 【테헤란24日AP電送=聯合】

【베이루트·런던24日UPI·AP=聯合】이라크군에 대한 대공세를펴온 이란군은 開戰직후 이라크에 점령당한 전략요충지 호람샤르를 24일 탈환했다고 이란관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이통신은 이란군이 5백78일간 이라크에 점령돼있던 호람샤르를 해방시켰다고 밝히고 호람샤르를 방어하던 3만여 이라크군이 이란군에 투항했다고 말했다.

이 통신은 또 이란군이 이날상오 호람샤르의 서쪽 외곽지대로부터 이도시에 진입한후 이라크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면서 이전투에서 이라크군의 호람샤르지구사령관 아마드·자이다대령을포함한 7천여명의 이라크군이 전사했다고 덧붙였다. 이통신은 이란군이 인근 발리·예·아스르를 먼저 탈환한후 호람샤르에 入城했다고밝혔다.

한편 이라크군 코뮈니케는 이같은 이란의 호람샤르 탈환발표에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라크군이 호람샤르 시내에서 이란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란군의 호람샤르 입성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이라크 관영통신이 보도한 이 코뮈니케는 『호람샤르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 도시에 있는 이라크군이 아직도 적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建設部次官 徐相喆씨

정부는 25일 건설부차관에 徐相喆씨(高大교수)를 임명발령했다.

◇徐차관略歷 ▲忠南洪城출신·47세 ▲서울高卒 ▲美코라크大경제과卒 ▲하버드大경제학박사 ▲코라크大조교수 ▲세계은행경제개발원교수 ▲高大교수·高大부설경제연구소장

서울高檢長 徐東權씨

정부는 25일 서울고검장에 徐東權대검차장을 발령했다.

◇徐서울高檢長略歷 ▲慶北永川출신·50세 ▲高麗大法大졸 ▲고시8회사법과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검사 ▲법무부차관 ▲대검차장

中共 貿易使節團 10년만에 對蘇에

【北京26日AP聯合】중공이 점차 소련과의 관계개선을위한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가운데 중공의 고위 무역사절단이 10여년만에 처음으로 소련을 우호방문중이다.

중공의 국제무역촉진협의회위원 6명으로구성된 중공사절단은 24일 모스크바로출발한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는 비정부기구로 설명되고있는 이협의회는 중공의 사절단이 소련측의초청으로 2주간 소련을여행하게될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협의회의 소식통들은 이러한 우호방문이 10년만에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중공의 경제학자들이 소련과 동구를여행하며 소련의 경제계획을 연구하고 돌아왔으며 중공도 16년만에 처음으로 소련스포츠팀을 오는6월 北京서열리는 육상경기에 초청한바 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地下資金2兆원 주택景氣 활용을

景氣活性化 방안 民韓、7개항제시

증여세減稅등 利潤보장 促求

民韓黨은 25일 최근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있는 景氣침체의 극복을위해 주택경기를 浮揚시키고 稅制개혁을 단행하는 한편 금년예산6천억원을 節減하고 공공요금과 農協負債를 1년간 凍結시키도록하는등 7개항의「景氣활성화 緊急대책」을 발표했다.

民韓黨 정책심의회가 마련,이날 당무회의에서 확정한對策은 地下經濟의 暗流자금2조원을 경기活性化에 동원하기위해 서민용 賃貸주택건설에 流入될수있도록 각종세금의免除등 특별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있다.

올豫算 6천억절감·公共料 1년凍結도

이 對策은 暗流자금이 서민용 임대주택건설에 사용될경우 ▲新築은 등록세、취득세、방위세 전액면제 ▲임대위탁기간만료후 양도소득세의 贈與稅를 一的으로 1회에 한하여 全額면제 ▲稅政당국의 資金源추적 일체금지 ▲임대위탁기간중 자유로운 매매보장및양도소득세의 免除등 이윤보장조치를 취하도록 하고있다.

이방안에 따르면 임대주택管理公團을 설립, 이런 특혜를 받으려는주택은 일정기간 賃貸權을 公團에委託하고 公團은 관리비정도에 임대하고 위탁주택은 30평이하 서민용으로 제한하도록하고 있다.

또 30坪이하의 일반서민주택건축촉진을위해 ▲민간업자건설분에 대해서도 등록세、취득세및 보존등기에 따르는 동일명목의 諸稅공과금면제 ▲일정기간當該주택취득자에 대해 등록세、취득세、방위세、印紙稅면제 ▲재산과표동결등 특별조치를 취하도록 주장했다.

이 대책은 또 不況극복의 실패로 예산편성시의 豫測인 GNP실질성장률 8%가 6%로, 물가상승률12~14%가 10%이하로 대폭 수정됐으므로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조세부담률을 착작, 租稅輕減으로 최소한 예산 6천억을 절감, 實行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고 向後1년간 일체의 공공요금을 凍結, 경기부양책이 인플레로 연결되지않도록 조치하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밖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 현행法人稅率 최저5천만원이하를 1천만원이하(15%)로 인하하고 중소기업특별자금 상환到來分 기간을 연장, 대기업진출규제, 60일超過어음발행한 大企業에 「금융制裁」

▲농협負債의 1년간凍結, 秋穀收買價의 豫示制즉각실시, 限界영업家口의 計測制도입등 농민소득정책의 혁신, 農畜産物수입의엄격규제 ▲소득세 최고稅率62%를 55%로 인하, 특별소비세율의 대폭인하및 免稅品目확대등 稅制개혁의 단행

▲成長通貨의 공급을 위해 適正통화량과 통화의 개념을 혁신하고 총통화관리방식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대담한성장통화의 공급을 단행할것

社會漫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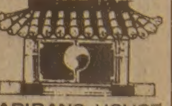
현상 모집

地平線

얼마전 한 無醫村에 배치된 젊은의사를 만났다. 벌이가 어떠냐고 물었더니 말이아니라는 대답이었다.▼僻村이기 때문에 零細民이 많고, 진료비를 비싸게 받는것도아닌데 돈을 못내는환자가 상당수라는 설명이었다. 또 치료비를 일부만 낼때가 많아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했다.결국 그 젊은 의사는 제의 돈을 갖다 쓰는것을 알수 있었다. 떼돈을 버는것처럼 인식되기쉬운 의사란직업에 이런구석도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의료보호제도가 있어 아주 가난한 환자들을 구제하는 길은 있으나 근본해결의 방법은 GNP의 증대와 의료보험의 전국적 확대뿐이다. 이꿈이 실현될날이 기다려진다.▼僻村과 대조적으로 도시의 보험환자가 붐비는 종합병원의사의 경우는 어떨까.눈코뜰새없는 의사들은 잘 대우를 받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그렇지만도 않은 모양이다. 큰 대학병원의 경우도 3분의2 이상이 전문의과정을 밟은 의사들이다. 한달에 몇번밖에 집에 못들를만큼 지치며 한끼는 굶고 두끼를 사먹어야하는데 책을사고 밥을 사먹으면 월급이 거의 안남는 실정이라 한다. 그 비싼 병원비는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다가도모를 일이다.▼의료수가가 또 평균7.1%나 올랐다. 이번인상은 환자들이 병원에 갔을때 내는 진료비만 올리고 보험료는 그대로 두었다. 보험환자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병원수지를 개선하기 위한것이라고하니 얼핏 수긍이 가면서도 의보확대와 운영에 개선해야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 國民皆保險의 스웨덴처럼 高福祉, 高負擔의 나라를 따라가자면 힘이 벅차다.의보확대와 그진료체계의 合理化를위해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에도 눈을 돌려야 하겠다.▼入院6개월 時限附制를 再考하고 疾病手當, 分娩手當지급도 고려되어야 의료보험의 참뜻을 느낄수 있다. 부부나 父子의 二重보험료부담시정,친정부모와 어린형제까지의혜택범위확대도실현돼야 공평을기할수있다.보험카드를석달이면다하고검열받거나20세만넘으면 재학증명서,무과세증명을 내야하며,60세가 안된 부모에는 혜택이 안돌아가는 의료보험—돈을내고도 천덕꾸러기처럼 왜 이런 불편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이 안간다.상태여서는 안된다. 의료보험 운영에 국민들의 주문이 많은것을 이 기회에 참고로 해야 하겠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SON MYUNG SOO TAEKWON-DO

(한인)특별하기 체력연마 및 호신술과정

아래와 같이 저희 도장에서 특별하기 훈련을 실시하오니 교포 여러분 및 자녀분들의 건강 및 호신술 연마에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이면 꼭 알아야만 될 무술기본 연마!

1) 어린이 반(9세~13세)
시 작 : 1982.6.12(토)12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오전·오후
수련료 : $150
인 원 : 20명(선착순—남·녀)
사범 : 손 명철(3단)
조교 : 정 명주(13세·태권도 신동)

2) 학생반(14~17세)
시 작 : 1982.6.13(일)오후2:00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오후
수련료 : $180
인 원 : 15명
사범 : 손 명철(23세)
조교 : 글렌·사무엘(대회우승 다수)

3) 대학생 및 청년반(18~22세)
시 작 : 1982.6.13(일)오전11시
기 간 : 15주(매주(토)혹은(일)) 오전·오후
수련료 : $ 200
인 원 : 12명(선착순—남·녀)
사범 : 손 명수
조사범 : 손 명철(시범권위자)

4) 일반부(23세~53세)
시 작 : 1982.6.10(목)오후8시
기 간 : 15주(매주(목)—오후8시)
수련료 : $300
인 원 : 8명(선착순—남·녀)
관장 : 손 명수(41세) 태권도·합기도사범(6단) 정평있는 지도력

◎장 소 : ●손명수태권도장(2188 BIOOR ST. W at RUNNYMEDE SUBWAY—JANE 과 HIGHPARK사이)
●공원 혹은 CAMP SITE—새벽일 경우

〈혜 택〉
1.단기간에 많은 기술 습득
2.단기간에 많은 체력 향상
3.책임 및 권위있는 지도
4.도복·띠($40.)및 음료수 포함
5.승급(단) 심사시 참작
6.과정수료후 성과 좋으면 재수련 및 도장 입관시 우대

〈참 고〉
1)시간은 일주일-1회(1시간 30분 가량)
2)가족 2인 이상은 20% 공제혜택
3)수련장소, 일자및 시간등은 도장행사, 공휴일등 관계로 편의상 변경 또는 연기될 수도 있음.
4)유단자 및 유경험자 대환영
5)무 경험자입수록 과정에 임하여 진보빠름.

★일년내내 즐길수 있는 자기 운동으로 공부·독서를 계속하듯이 신체단련, 무술 연마도 계속하면 건강에 매우 좋으며 특히 바쁜 생활과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분들,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전전한 정신, 전전한 체력?(×)
전전한 체력, 전전한 정신!(0)
★한국인이면 필수적인 무술기본 연마
★지금 묻는것은 순간적인 챙피, 일체 묻지않으면 영원한 수치
★친절하고 정성껏 지도할것 입니다.

연락처 : 손명수태권도장(SON BROS. TAEKWON—DO CENTRE)
전화시 : B)763—1155(주중—2시~8시) (토)—2시~4시 R)245—7527

英, 포클랜드武力奪還 선언

橋頭堡「산 카를로스」서 大戰鬪

對아르헨制裁 연장 EEC
리오外相회의 요청 아르헨
國際戰 飛火 조짐도

【런던·부에노스아이레스24日AP·UPI=聯合】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24일 영국군이 교두보로 확보한 산 카를로스 상공과 인접해역에서 격렬한 전투를 벌여 항공기와 함정 등 쌍방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와함께 영국정부는 모든 휴전가능성을 배제하고 포클랜드의 무력탈환결의를 선언했다.

영국국방성은 이날 아르헨티나본토에서 발진한 공군기들이 산카를로스의 영국상륙부대와 인근 수역에 포진한 함정들에 공격을 가하기시작했다고 말하고 그러나 이전투에서 아르헨티나의 미라지와 스카이 호크機 7대가 격추되고 다른 1대는 검은연기를 뿜으며 퇴각했다고 발표했다.

이언·맥도널드국방성대변인은 공격을감행한 아르헨티나機들이 영국의 해리어機와 래피어미사일등 海空협공을 받고 퇴각했다고 말했다. 맥도널드대변인은 그러나 이공격으로 영국함정 수척이 파손되고 소수의 인명피해도 발생한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26日=李梓昇특파원】 아르헨 합참본부는 영국군이 포클랜드상륙작전을 개시한지 72시간뒤인 25일0시10분에 발표한 코뮈니케에서 『영국군은 현재 장비와 증원병력이 계속투입되고있다. 아르헨육군은 공군의 지원을받아 영국군의 진격을 저지하고있다』고 밝힘으로써 영국군의 상륙작전성공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한편 아르헨외상은 24일 남미의 상호안전보장기구인 리오조약국외상회의를 요청, 제8조(제재규정)의 발동을요구할예정이어서 말비나스분규가 국제전으로 화할 조짐까지 보이고있다.

리오조약외상회의는 오는 27일 워싱턴 OAS본부에서 열린다. 또한 이날 아메리코·프루글리국방상은 『아르헨은 현 말비나스사태에서 군사적으로 고립될수없다』고 말하고 『전쟁의 군사적전개에 따라서는 국제화될수 있다』고 밝혀 아르헨이 제3국 특히 공산권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리오조약은 조약헌장에 따라 8조를 발동하려면 회원국 21개국의 3분의2이상인 14개국이상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일단 제8조발동이 가결되면 회원국들은 외교단절에서 군사적제재에 이르기까지 해당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도록하고있다.

【브뤼셀24日AP合=聯合】 이탈리아와 에이레를제외한 歐共市(EEC) 8개국외상들은 24일 포클랜드분쟁과 관련, 당초 24일자정(한국시간 25일상오7시)을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던 對아르헨티나 경제제재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발표했다.

클로드·셰송 프랑스 외상은 EC외상들이 이날 회의에서 프랜시스·핌 영국외상의 요청을 받아들여 아무런 토의없이 對아르헨티나 무역제재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고 『지금은 사태가 너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을 바꿀 시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EC10개국은 지난달17일 1개월간의 시한부 對아르헨티나수입금지조치를 단행한뒤 지난17일 이조치를 다시 1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때 국내의 강력한 정치적 반대에 직면한 이탈리아와 에이레는 연장조치에반대, 대열에서 이탈했었다.

◇英軍참호 파는 어린이들 포클랜드산 카를로스에사는 어린이들이 英國해병대를 도와 참호를 파고있는 모습. 이사진은 24일 英國국방성에의해 공개됐다. 【산카를로스(東포클랜드) 24日UPI電送=聯合】

"72시간 休戰을"
브라질등, 安保理에 결의안

【유엔본부24日AP·AFP=聯合】 에이레및 브라질, 파나마는 24일 4일째 속개된 유엔安保理긴급회의에서 포클랜드전투를 72시간휴전하고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에게 평화중재노력을 재개하도록 위임할것을 촉구하는내용의 결의안을 정식 제출했다.

제러미·크레이그 유엔주재 에이레대사는 이날 유엔安保理긴급회의에서 ▲페레스사무총장의 평화중재노력에 대한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협력 ▲72시간동안 휴전 ▲양측이 수락할수있는 조건아래 휴전기간 연장등을 골자로하는 휴전결의안을 제출했다.

英軍, 구스그린 進擊
美서 情報입수 포트스탠리攻略 전초전

【워싱턴25日UPI=聯合】 東포클랜드 서북단에 상륙한 영국군은 다윈과 구스그린을향해 南進, 이들 두 지점 사이에 위치한 활주로를 점령한 뒤 아르헨티나 주력부대가 포진한 포트 스탠리로 진격할 것이라고 미군사전문분석가들이 24일 전망했다.

이들 분석가들은 영국군이 포트스탠리에 대한 지상공격과 병행하여 포트스탠리에 제2의상륙을 감행할경우 포트스탠리의 아르헨티나군을 협공할수 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밀정보를 입수한 한분석가는 영국군이 제2의 상륙을 감행할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평가했는데 영국은 이미 포클랜드에 상륙한 5천병력외에 3천명의후속병력을 징발한 여객선 퀸·엘리자베드 2호편으로 기동함대에 합류시켜놓고있다.

對英군사지원 안해
레이건, 非公式답변

【워싱턴24日AP=聯合】 레이건 美대통령은 24일 포클랜드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영국에 제공할지도모를 지원에 관계된 어떠한것도 포함시키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비공식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 미국은 포클랜드분쟁과관련, 영국에 대한 군사지원이 어떠한 지원도 고려하고있지않다고 밝혔다.

레이건 대통령은 또 포클랜드 위기 발발이후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간에 어떠한 새로운 협정도 체결된바없다고 말하고 그러나 두나라사이에는 쌍무적인 협정과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의 회원국간의 상호지원을 규정한 협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영국의 포클랜드 전략이 무엇이냐는질문에 영국은 더이상의 인명손실없이 포클랜드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단계까지 발전시켜나가려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페인社會黨 地方議會 선거서 大勝

【세비야(스페인)24日UPI=聯合】 스페인의 야당인 사회당(PSOE)은 23일 스페인 남부의 안달루시아지방의회 선거에서 총1백9석의 의원중 과반수인 66석을 차지하여 여당인 민주중도연합(UCD)에 심각한 패배를 안겨줬다.

정치분석가들은 UCD가 이번 패배로 집권여당으로서의 신뢰를 크게 손상받았다고 분석했다.

PSOE는 최초로 실시된 안달루시아자치의회선거에서 총투표의 52.56%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것으로 공식집계됐다.

안드로포프 黨중앙위書記로 임명
브레즈네프後繼者로 浮上

【모스크바24日路透·AFP=聯合】 소련공산당중앙위원회는 2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비밀경찰기관인 KGB(국가보안위원회)의 총책임자 유리·안드로포프(67)를 새로이 黨중앙위 서기에 임명함으로써 그가 콘스탄틴·체르넨코, 안드레이·키릴렌코등 강력한 라이벌을 제치고 현공산당서기장 브레즈네프를 승계, 명실상부한 소련 최고지도자가 될수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소련관영 타스통신은 黨中央委가 이날 열린 82년도 첫번째 전체회의에서 KGB총책임자이자 黨정치국원인 안드로포프를 黨중앙위의 11번째 서기로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모스크바의 西方분석가들은 안드로포프가 黨중앙위서기직에 임명됨으로써 지난 64년부터 黨서기장직을 맡아오고있는 브레즈네프를 승계, 黨최고실권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한층 짙어졌다고 전망했다.

◇트럭에 실린 3백톤 벽돌집 무게가 3백톤이 나가는 91년묵은 벽돌집이 원위치에서 약3백30m떨어진 새터전으로 트럭에실려 이사(?)가고있다. 이집은 매사추세츠종합병원 소유인데 새로들어설 의학연구건물에 제자리를 넘겨주었다는것. 【보스턴24日AP=聯合】

國際뉴스 ABC

經濟제재란 무엇입니까
物資·資金봉쇄로 상대를 괴롭게…

―유럽共同體(EEC)는24일영국편들어 아르헨티나에대한 경제제재를 무기한연장하기로 했다고하는데 경제제재란 무엇을 말하는것입니까.

▲경제제재란 사람과사람, 무력과 무력이 직접 대결하는 군사충돌과는 달리 物資와 資金을 무기로 삼아 상대방을 괴롭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에 꼭필요한 곡물, 석유등 자원을 수출하지 않는다든가, 상대방국가나기업체의 국내 자산을 동결한다든가 하는 경제적 압력수단이 이에 속합니다. 주로경제적으로 유리한 西方선진국이 쓰고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경제제재가 행해지고있는 지역들은 어느곳들입니까.

▲포클랜드분쟁을 둘러싼 영국·歐州共同體(EEC)의 對아르헨티나 제재조치를 비롯, 81년12월 폴란드의 계엄선포에따른 제재, 80년1월 아프가니스탄침공과 81년12월 폴란드의 軍政으로인한 對蘇제재, 79년1월 캄보디아침공을 이유로한 베트남에대한 제재및 52년 인종차별정책으로인한 南阿共에대한 제재등이 지금까지 계속되고있읍니다. 79년12월 테헤란주재 美대사관 인질사건 때문에 이란에대해 취해졌던 제재조치는 81년1월 인질석방과더불어 해제됐었읍니다.

―시초는 언제부터입니까.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제제재는 1806년 프랑스의 나폴레옹황제가 영국에 대항해서 내린「대륙봉쇄령」을 시초로 들수있읍니다. 그러나 대륙봉쇄조치는 당하는 영국보다도 제재를가하는 대륙측에 피해가 많다고 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요. 그후 경제제재가 국제정치에 등장한 것은 1차대전 이후부터입니다. 1차대전이후 설립된 국제연맹은 규약16조에 경제제재에 관해 언급하고 있고 이규정은 1934년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침공했을때 적용되기도 했읍니다. 국제연합도 헌장41조에 유엔安保理가 경제제재를 결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41조 조항은 인종차별정책을 취한 로디지아(현재 짐바브웨), 南阿共등에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유엔 전체의 의사에따른 경제제재는 거의 없읍니다.

―경제제재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읍니까.

▲사실 경제제재조치란 협정·또 전세계적인 경제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南阿共의 인종차별 정책은 30년동안이나 계속되고 있으며 소련의 아프간침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등 서방국은 對蘇곡물 禁輸조치를 취했었지만 주요한 對蘇곡물 수출국들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등은 당초부터 이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무역제한조치도 소련및 東歐와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있는 西歐각국의 소극적인 태도때문에 유명무실하게 되어버리고말았읍니다. 또 폴란드나 베트남은 소련의 지원으로 그런대로 경제제재를 견뎌내고있으며 南阿共역시 30년간에 걸친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다이아몬드, 우라늄등 풍부한 희소광물자원을 배경으로 버텨가고 있읍니다.

예를들어 영국이 포클랜드분쟁때문에 아르헨티나에 대한 영국내 자산동결조치를 취했읍니다만 이는 아르헨티나의 자금은 14억달러정도로 영국은행에 있는 58억달러의 반도 되지않아 아르헨이 이에맞서 영국자산을 동결하면 오히려 영국이 손해를 보게되는 것입니다.

―실효를 거두지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큰 이유는 제재를가하는 서방국들이 서로간의利害때문에 보조가 맞지않는다는 점을 들수 있읍니다.

―경제제재가 이처럼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도 경제제재조치를 자꾸 취하는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경제제재가 국제정치, 경제적이유로인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해 당장 무력행사라는 최후의수단을 사용하지 않는한 이를 대신할 마땅한 보복수단이 따로 없다는것이 오늘날 국제정치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外信部】

포클랜드 通信

艦上엔 流血참사

○…포클랜드군도의 영국기동함대에 승선한 종군기자들은 24일 아르헨티나 전투기들이 돌진, 공격해오는 공습의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

영국BBC방송의 브라이언·헌런기자는 아르헨티나전투기들이 과상공습을 가해오는동안 한 헬리콥터에 탑승, 英함정 해안사이의 상공에 있었다.

『내가 탑승한 헬리콥터가 래피어 미사일과 구축함사이에 있다는 위험을 알아차린순간 조종사는 급강하하기 시작했고 래피어 미사일 하나가 1백m옆으로 날아가는것을목격했다』고 헌런기자는 전했다.

이 헬리콥터는 수면위로 낮게 날아 해안쪽으로 급진했고 초록색의 헬리콥터가 가까이 이르러서야 위장효과를 나타냈다.

이 기자는 구릉사이의저지대에서 스카이호크機 3대가 돌진해 오는 두번째 공습도 똑똑히 목격할수 있었다.

『경쟁하듯 날아온 스카이호크機들은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고 2척의 수송선 중간에 폭탄1발이 떨어져 커다란 진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맹렬한 기총소사가 스카이호크機들을 뒤쫓았다』

이 세번째 공습은 해안에서 솟아오른 전투기들에 의해 이 가해졌다. 헌런기자는 이 전투기들이 머리위로 연발해 오는 전율을 느꼈고 이 전투기들을 추적하던 미사일들이 두…

◇「프리기트」艦의 피격전 모습 23일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공격을 받고 심각한피해를입은 英國해군 기동함대소속 프리기트함 앤틸로프號의 피격전의 모습. 【런던24日AP電送=聯合】

搭乘헬機 100m옆으로 미사일이
아르헨機 空襲목격한 英記者의 "전율"

차례 커다란 폭발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다.

"목표는 탈환뿐"

○…런던의 일간지들은 24일 일제히 포클랜드휴전에 반대하고 영국군의 계속적인 군사행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더·타임즈紙는 영국이 포클랜드 군도의 탈환이라는 목표를 잊어서는안된다고 강조하고 『메넨데스포클랜드 총독이 취할수있는 길은 항복이나 패배뿐』이라고 주장했다.

英스카치 禁酒令

○…베네수엘라정부는모든 공무원들에게 스카치위스키를 마시지 말고 그대신 럼주나 맥주를 마시도록 명령했는데 이는 포클랜드군도에 대한 영국군의 군사행동에 항의하는 뜻에서 취해진 조치인것 같다고.

지난해 3억5천만달러 상당의 스카치를 수입, 세계에서 가장 스카치·위스키를 많이 수입한 나라가운데 하나가된 베네수엘라…

蘇, 衛星2개발사

○…소련은 인공위성2개를 궤도에 쏘아올려 3천여명의 영국군을 싣고 포클랜드 군도로 출항한 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 2호의 위치를 탐지해왔다고 미국의 권위있는우주관계시사지인 에어로스페이스·데일리가 보도했다.

이 일간지는 25일자 발행판을 통해 소련은 英國정부가 병력수송용으로 징발한 퀸·엘리자베드 2호의 위치를 탐지하기위해 지난15일 레이다정찰위성1개와 전자위성1개를 발사했다고 전했다.

英製무기에 被擊

○…포클랜드 군도주둔 아르헨티나 軍은 최근 영국군과의 전투에서 영국이 제작한 지대공 미사일을사용하여 영국의 해리어 제트전투기 3대를 격추시켰다고 아르헨티나 군사소식통들이 전했다.

메아리
술의 文化

술의 생산량과 소비량및 그로인한 사망률등, 술과 관계되는 거의 모든 수치가 지난 20년간 전세계에걸쳐 꾸준히 상승추세를 보여왔다고 세계보건기구서 밝혔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맥주생산량이 5배이상이나 증가했고 선진부국들 또한 그소비량이 더 두드러졌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형편을 보아도 맥주의 생산량이 급신장하는 것은 개발도상국과 견줄만하고 또 시판소주의 도수를 올려야할 정도로 독주를 좋아하게된 음주풍토는 선진국형과 닮았다.

세계에는 나라들이 많지만은 나라마다의 문화적 특징을 가장 단적으로 잘 나타내는 것이 술이다. 그런 안목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술가운데 꼭 짚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생활전통을 말하는 고유한 술이요 하고 내세울만한 것은 막걸리 정도가 아닐까 싶다.

지난날 이땅에는 지역마다 독특한 풍미를 지니는 술들이 있었다. 경주의 법주, 평양의 감홍로, 선산 약주, 안동 재비원의 소주, 당진의 두견주등― 어느 고을을 대면 먼저 그 지방의 술이름을 연상할 정도였다.

비단 그 고장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맛이 다른 가양주가 있어서 주부들이 정성을 다하여 술을 빚고 그 비법은 친딸이라 하여도 남의 가문에 출가하는 것을 이유로 전하지 않은채 며느리에게만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일제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수를 위하여 술의 양조와 판매는 허가제로 되어 가양주의 전통과 지역사회마다의 토주가 지녔던 풍미는 씨가 말랐다.

여러 고장의 여러가지 명주들은 거들떠 보지않고 외국으로부터 비싼값으로 원주를 들여오거나 아니면 맥주, 정종등속의 시체의 술들만 유통시켜 술의 전통은 인멸위기에 놓였다. 아마 지금과 같은 상태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된다면 노인들의 손끝에 남은 우리 술의 문화는 그대로 자취 없이 스러지고 말것이다.

중화민국의 경우처럼 우리도 우리술을 되살려 외화도 벌어 들이고 외빈도 접대를 하며 국민들 스스로도 즐기게 될수 있었으면 한다. 올림픽에 대비한 고유의 한국 명주는 과연 언제쯤이나 대하게 될는지.

海外토픽

레이건 年俸1位
★王族아닌 세계지도자중

세계에서 가장 보수가많은 사람들을 분야별로보면 왕족을 제외한 정부지도자로는 레이건美 대통령, 연예인으로는 前비틀즈멤버 폴·매카트니, 운동선수로는 뉴욕·양키즈소속 야구선수 데이브·윈필드등이 차지하고 있다고.

최근 간행된 「세계의 보수현황」이란 책에의하면 레이건 대통령은 신생국 전수상의 연봉 8천달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20만달러(판공비9만달러제외)를 받지만 이것도 영국, 스웨덴등의 왕족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적은 액수여서 예컨대 엘리자베드英여왕, 앤공주및 마거리트공주의 지난해 총봉당액은 4천60만달러였다는 것.

한편「매카트니」의 80년도 수입은 4천8백20만달러였고 윈필드는 게임당 9만4천달러를받아 각자 자기분야에서는 최고임이 드러났다. 【워싱턴=UPI】

저명인精子로 分娩
★精子銀行이용 첫 人工受胎

노벨상수상자등 지능이 높은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자은행에서 제공한 「저명한 수학자」의 정자로 인공수태한 한 여인이 지난4월 성공적으로 아이를 분만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정자은행의 대변인은 24일 이 여인이 이정자은행 설립이후 정자를 임의로선택, 인공수정한뒤 분만한 처녀라고 밝히면서 『태어난 아기는 몸무게 9파운드의 건강한 여아』라고 말했다.

대변인은 또 산모의 IQ가 매우 높은편이나 IQ가 최상위2%에 속하는 MENSA클럽의 회원은 아니라고말했다. 【에스콘디도=AP】

演藝人에 섹스要求
★馬聯 국영TV幹部들

말레이지아의 국영TV방송(RTM)간부와 직원들이 TV출연을 미끼로 연예인들에게 섹스를 요구하고있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이 이를 조사하고 있다.

아더브·아담말레이지아공보상은 RTM간부나 직원들이 이같은 섹스 스캔들에 관여된 사실이 밝혀지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처벌을 내릴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찰조사결과 아직은 결정적 인증거를 잡지못했다고 밝혔다. 【콸라룸푸르=AP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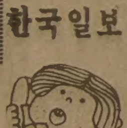
오줌서 수면제生産
★하버드大교수 실험成功

사람의 소변으로부터 천연수면제역할을 할수있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두 교수가발표.

이들은 15년간에걸친 실험끝에 사람의 소변에서 「S요소」라는 성분을 추출해내는데성공했는데 이요소를 토끼등 실험동물들에게 실험해본결과 이들 동물들의 수면시간이 50% 늘어났다는것.

그런데 이 S요소 30마이크로그램을 추출해내는데 약4·5톤의 사람오줌이 소요됐다고. 【보스턴=AP】

한국일보



보라매 창립총회

친애하는 공군전우 여러분 지난날의 보람의 광장을 상상하고 구김살 없는 대화의 광장이였읍니다.
우리 다시한번 좌석을 마련하여토론의 광장을 마련하고저하오니 보라매 회원여러분께선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회원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일　시 : 1982년6월5일 저녁7시30분
장　소 : 한인회관
안　건 : 회칙통과, 임원선정, 기타사항.
문의처 : 767－2241 윤여경
638－0656 정해문
251－9587 위정남
630－2400 이광한

보라매 발기총회
회장 윤여경

오리지날 악기의 음색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새로운 성능의 전자올갠

Digital Excellence DX

세대가
DIGITAL CONTROL
로 다가 왔읍니다.

감사문

지난 5월24일(월)에 시행된 한인친선낚시대회에 성황을 이루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총영사관과 한인회, 한국일보의 적극적인 후원과 각 기업체의 찬조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낚시라는 스포츠는 교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수 있는 대중적이고 전체교민의 스포츠이며, 특히 부부가 함께 즐길수 있는 도락임을 확신하고 권하고 싶은 바입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토론토한인낚시협회
회장 정삼열

病院이 病들고있다
受持診斷 —한국의 医療현실
醫師의 고충

5백40원에 쫓겨가는「동네醫院」

醫保酬價 말썽…住宅街선 끝장
尊敬心없고 權利意識 높아져

서울 남부외곽 주택가에서 외과를 개업하고있는 P의사는 요즘 개업장소를 딴곳으로 옮기기 위해 집을 보러 다니고있다. 3개월전 2살난 어린아기의 이마에 난 상처를 꿰매주고 「5㎝이상」의 상처로 판단, 의료보험수가기준대로 4천원의 처치료를 받은 것이 화근이 돼 3년간공들였던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는 것이다. P의사는 이 4천원중 조합부담액을 보험관리당국에 신청했으나 이 상처가 「5㎝미만」으로 심사되어 환자에게 5백40원을부당징수했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보험관리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P의사에게 통고하는 한편 아기의 어머니에게 「P의원이 귀하의 진료비를 과다징수했다」는 내용과 함께 5백40원을 우편으로 환불했다.

말이 많은 편인 이젊은 어머니는 유치원자모회, 동네 미장원등을 다니며 「P의원은 도둑놈」이라고 떠들어대자 병원에 손님이 끊어지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의 평판에 크게 의존하고있는「동네의원」으로서는 이같은 타격을 감당해낼 도리가 없었다.

『상처가 5㎝미만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4·9㎝이냐 5·1㎝이냐가 의술하고 무슨상관이 있겠읍니까. 아기가 수술중 몸을 뒤틀어 꿰매는데 애를 먹었고, 또 여자아이여서 꿰맨흔적이 남지않도록 모든 정성을 다했다는 것 만큼은 히포크라테스가 아니라 비너스에게도 맹세할수 있읍니다』

5백40원때문에 쫓겨가는 P의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서울 북부지역에서 개업하고있는 K 모의사는 며칠전 병원건물의 하수도파이프가 막혀 작업인부1명을 불러 파이프를 뚫었다. 인부는 약 30분정도 걸려 작업을 마쳤는데 작업도중 왼팔이 4㎝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K의사는 인부의 상처를 꿰매주고나서 두사람사이에 「계산」때문에 언쟁이 벌어졌다. 인부는 2만원을 요구했다. K의사가 너무비싸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인부는 『파이프 뚫는게 아무나 할수있는 기술인줄 아느냐』면서 『의사선생님이니까 특별히 1만5천원에 해준다』고 생색을 냈다.

인부는 모 용역회사 소속으로 의료보험환자였다. 뒷주머니에서 보험카드를 꺼내 K의사 앞으로 내밀었다. K의사는 보험수가기준에 따라 처치료 2천2백원 중 본인부담액 4백40원을 인부로부터 받았다. 나머지 1천7백60원은 1개월후 조합에서 나온다. K의사는 인부가 동전으로 놓고간 4백40원을 들여다보며 「아무나 할수있는 기술인줄 아느냐」는 인부의 말을 곰곰 되씹고있었다.

서울 恩平區에서 개업하고있는 H의사는 6살난 동네 개구장이의 이마 상처를 치료해주던중 아이가 너무 몸을 뒤채고 울어서 『경식아, 안아프게해줄께 가만히 있어라』고 타이르자 아이는 갑자기 울음을 그치고 『나 경식이 아니야』라고 소리질렀다.

「어머니」라며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가 내민 의료보험 카드에는 분명히 아이의 이름이 「경식」이로 적혀있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경식이가 아니고, 경식이의 친구인 이웃집 아이였다. H의사가 아이를 데리고 온 주부를 다그쳐 사연을 알아본 즉 동네개구장이들끼리 싸움을 해 경식이가 이웃집아이를 때려 상처를 냈고 주부들 끼리 치료비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가해자인 경식이 어머니가 의료혜택을 받지못하는 피해자인 이웃집 아이를 「경식이」로 속여 자신의 의료보험카드를 들고 H의사에게 데리고 온 것이었다.

H의사는 결국 치료는 다해주고 주부를 꾸짖어 돌려보냈다.

『남의 카드를 쓰는 환자를적발, 보험관리당국에 신고할것』이라는 규정을 H의사가 모를 리는 없었지만 H의사는 이 「가짜 어머니」를 신고할 수는 없었다. 신고해서 보험카드를 압수당하거나 사용금지 당하게되면 동네주민들의 구설수에 올라 병원의 평판이 나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종합병원 외과에 근무하는 A의사는 요즘 새로온 간호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한다. 성실하고 싹싹한 간호원이지만 「눈치」가 느려 몰려드는 환자들의「교통정리」에 더듬하다는 것이다. A의사는 매일상오 8시에 출근, 10시까지 입원환자들을 회진하고 10시30분부터 낮12시30분까지, 하오2시부터 4시30분까지 하루 4시간30분동안 외래환자를 본다.

복도에서 하루종일 장사진을 치고있는 환자들을 「3분치기」로 진료를 해야하는데, 환자란 자신의 과거생활, 병력등을 장황하게 늘어놓게마련이다. 눈치빠른 간호원이면 환자의 성향을 기민하게 판단, 장황한 얘기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저하고 얘기하시죠』하는식으로 이야기를가로채 적당히 듣고 돌려보내야한다. 또한환자의 진료가 끝날 순간을 미리예측해서 복도에서 기다리고있는다음환자를찾아 대기시켜놓아야 한다. 그러나 새로온 간호원은 이같은 눈치와 기민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환자들의 얘기를 상시간 듣고있는 것이다. A의사는 같은 의료인으로서 간호원의 그런「성실」을 정면으로 나무랄 수는 없는 노릇이어서 간호원이 스스로 경험하면서 눈치를 터득하기를 기다리고있다고 말했다.

역시 종합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C의사는 요즘 보험진료에 따른 의사의 직업윤리에 관해 고민에 빠져있다.

C의사는 주로 뇌를 다친 환자들을 다루게되어 그야말로 사람의 생명을 손에 쥔 의사다. 뇌진단이 까다롭고 환자의 생사가 걸린 문제여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지만 전자단층진단(CT)이 보험수가에서 제외되어있기 때문이다. 환자마다 이 고가(15만원정도)의 진단을 실시하기가 망설여지는 것이다. 나중에 치료비 문제로 환자와 병원측에 분쟁이 생길경우, 병원측은 의사에게 은근한 압력을 가해오는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C의사는 의사의 윤리상 정확한 진단을위해 나중에야 어쨌든 미심쩍은 환자에게 CT진단을 하지 않을수 없는 것인데, 마음한구석은 늘 꺼림칙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 터무니 없이 낮은 수가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보험당국이나 의사들이 모두 시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낮은 수가가 결과적으로 의사나 병원의 수입을 침해했다고는 속단할수 없다. 보험수가가 일반수가만은 못하지만 매년 인상되고 있고 또 보험수가가 낮은대신 최근의 불경기에도 불구하고 대도시 병·의원으로 몰리는 환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농어촌 3개 2종보험지역의 경우 조합재정의 부실로 진료비 지급이 지연되어 의사들의 수입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2종보험은 아직도 시범단계이고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이 현재 연구중에 있다.

보험제도 확대와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의료행태의 급변에 관한 의사들의 고충은 물론 수입에도 있겠지만 그보다 원칙적인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의료」를 차츰「권리」로서 인식해감에 따라 의사에 대한 전통적인 존경심은 점차 퇴색해가고 있다고 많은 의사들은 지적하고있다. 의사들의 술자리에서는「대규모 사업장보다 1백인미만 사업장의 보험환자들이 훨씬 더「좋다」는 화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있다. 「좋다」는 말은 의사들에게 고분고분하고, 존경심이 있으며 처방이나 주의사항을 잘 따른다는 것이다. 한 의사는 1백인미만 사업장의 보험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따르는 이유를 『이들이 최근에 보험혜택을 받게되어 권리의식이 엷하고, 비교적영세한 계층인 이들은 의료 혜택을 열어준 보험제도와 의사에 대해 고마와하는 의식을 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버젓한 직장의 고급근로자들은 보험에대한 권리의식이 철저하고 이병원 저병원을 섭렵하며 귀동냥한 의학상식도 많아 의사대 환자의 관계를「인간적」인 것으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한 의사는『치료는 의사와 환자의 인격적 접촉에의해 치료된다는것은 의학의 기초상식이다. 보험제도에 따른 의료행태의 변화가 이같은 인격적관계를 훼손한다면 저질의료를 양산하는 결과가 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드確認·청구서작성등 雜務까지
醫保제도가「人格的접촉」막아서야
「低質의료」量産안되게 改善策필요

게다가 보험제도와 함께 진료비 청구에따른 의사의 의료외적 잡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별도의 사무직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변두리 의원들은 의사가 직접 진료비청구서를 작성한다. 의사의 책상에는 으레 계산기나 수관이 놓여져있다. 의사들은 의료보험 기준액표를 들여다보며 자신의 처치, 수술, 투약등을 가격으로 환산, 이를 다시 본인부담률과 조합부담률로 나누고 진료내역을 서류로 꾸며 조합측에 청구해야한다.

또 환자들에게 주민등록증과의 보카드를 확인해야하는것도 개업의들에게는 사실상의「의무」로되어있다. 가짜 의보환자를 진료해주면 진료비를 받을수 없을 뿐아니라 적발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기때문이다. 또 분기마다 보험카드에 검인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매분초면 유효기간이 끝난 보험카드를 들고오는 환자가 많다는것이 개업가의사들의 일치된 이야기다. 한개업의는『주민등록증을 보자, 검인도장이 안찍혔으니 진료해줄수 없다는식으로 환자를 대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래서야 어떻게 환자가 의사를 존경하기를 바랄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보험에 따른 진료제한 또는 비현실적인 일부보험수가가 의사들의 직업 윤리와관련, 의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는것도 많은의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보험재정을 보호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의료의 본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험진료의 항목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는것이 의사들의 바람이다.

의사들은 환자들과의 의료분쟁을 가장 두려워한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경제적, 형사적 책임을지게되는것은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 의사평판과 위신이 짓밟히게 된다. 보험에 따른 진료제한으로 사고가나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에대해 조합이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병원이 책임져야하는가에관한 명백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않은것도 병원과 조합사이에 끼게되는 의사들을 심리적으로 불안케하는 원인이되고 있다.

【金薰기자】

◇보험제도가 가져온 의료행태의 변화로 의사들은 직업적자긍심과 직업윤리가 훼손되는 경우가있다고 지적하고있다.【사진은 특정기사와 관계없음】

"病을 고치는 사람이지 制度의 管理者가 아닌데…"
醫師는 말한다
진료비삭감으로 品位손상
紛爭해결방안등 마련돼야

의료보험을 실시한지 5년이 지났다. 의사들도 보험초기의 당황에서 벗어나 이제는 점차로 보험제도에 자신을 맞추어나가며 안정을 찾고있다고본다. 사실 보험과 관련된 의사의 고충은 컸다. 우선 보험카드의 검인을 확인하는등 제도관리에 관한 업무로 의사들이 신경을 쓰거나 결과적으로 신망을 잃게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의사의 한 사람으로서 바람이다.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고, 제도를 관리하는 사람은 따로있어야할 것이다.

개업가에는 물론 악덕의사도 있을수있을것이다. 보험진료비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를 속이는 일도 있을수 있다. 의사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악덕의사의 척결도 시급한문제다. 반면 보험관리당국은 진료비 삭감이 의사에게 약간의 경제적타격을주는것 뿐아니라 의사의 품위자체를 손상시키는 일임을고려해서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

개업의의 입장에서는 보험제도때문에 진료에 제한을받는 사례는 사실상없다. 큰수술을 받아야할 환자들은 대부분이 종합병원으로 가기때문이다. 그러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사정이 다를것이다.

의사에대한 존경심이 사라져간다는것은 종합병원의사보다 개업의들에게 더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있다고본다. 개업의는 지역사회주민들과 유대속에서 존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업한 이래로 수술다운 수술환자를 겪어보지 못했다. 지역병·의원에서도 안심하고 해낼수있는 수술환자들도 대부분이 불편을 무릅쓰고 큰병원으로만 가고있다. 지역병·의원에대한 불신때문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있다고 보겠는데 이는 종합병원의 기능에 혼란을 가져오는 결과가되고, 이같은 국민들의 의료행태가 올바른 것이라고 할수 없다.

의보혜택을 받지못하는 환자들은 대개 병원에 찾아오면「이런저런 수술을 받아야겠는데 치료비가 얼마나」부터 묻는다. 사정사정해서 치료비를 깎는것이 보통인데, 깎아주면 깎아준만큼 치료가 소홀해지는것이 아닌가해서 또다시 의사를 불신하는 환자들도 겪어보았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다. 의사와 환자간의 인간적인 신뢰를 회복한다는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보험수혜자인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이같은 불신때문에 진료의질이 저하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다. 의료보험 실시 5년동안 제도를정립하고 관리하는 정부당국의 노력도컸지만 결국 의사들의 진료에 의해 보험제도는 정착되어왔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유념해주기바란다. 또 앞으로 국민개보험으로 확대되기이전에 보험진료의 한계나 의료분쟁해결방안, 보험카드관리등에 개선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金鍾根씨

【金鍾根·외과전문의·서울 江東區[illegible]洞】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㊿
(題字 金蘇東)

민족의 비극 6·25동란은 내가 심혈을 쏟아준비한 영화「第二의 生命」도 무참히 짓밟았다.

동네에는 인민위원회가 생기고, 꿈에도 생각하지않던 동네 청년들이 갑자기 빨갱이로 표변해서 인민위원회에 들어앉았다. 흉흉한 공기가 감돌고, 들어보지 못한 김동무, 박동무소리가 담너머로 들려왔다. 음성적으로 활동을 계속해오던 영화동맹이 갑자기 양지로 뛰어나왔다. 소위 좌익동지들이 영화동맹에서 큰소리를 쳤다.

왜 영화인이 영화동맹에 나오지 않느냐며 자전거를 단 동맹원이 내 집까지 찾아왔다. 명동국립극장뒤에 있는 동맹사무실에 끌려나갔다. 위원장은「○동무는 2층에 대기하고 있는 다른 동무들과 같이 동맹에 협조해주시오」라며 거드름을 피웠다. 당시 서대문형무소에서 나온 소위 좌익동지 강신원이 위원장이다. 2층에 올라가보니 거기에는 박기채, 이명우, 신경균등 10여명의 우리영화인들이 대기중이었다.

敵治下 3개월
北韓移住 강제명령받고
演藝人들 도움으로 모면

얼마후 중부경찰서 앞집이(영화인) 한사람이 방으로 들어와 박기채와 이명우를 불러냈다. 창밖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7 8명의 영화인을 태운 트럭한대가 대기하고있었다. 거기에는 내연구소의 촬영기사 김정환도 타고 있지않은가. 결국 박기채감독과 이명우기사는 이 트럭을 타고 간뒤 지금까지 생사의 소식을 알길이 없다. 그후 이러한 방법으로 납북되어간 영화인은 김정혁, 김영화, 최인규등을 들수있다.

이들은 남대문로1가 국립도서관(현롯데백화점)에 감금되었는데 그후 행방을 모른다.

이러한 일이 있은후 나는 동맹사무실에는 발길을 끊었다. 내가 소유한 영화기자재일체는 그들이 몰수해갔다. 심지어 극영화원판까지 남기지않고 가져갔다. 얼마후 2대 위원장 남승민이 전령을 보내 나에게 자수를 권고해왔다. 공산사회에서 자수라는 현실은 화약을 안고 불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름바없다는것쯤은 알고 있었다. 나는 며칠동안 중앙극장 지붕밑에서 숨어지냈다.

이무렵 시내 명륜동에 괴뢰 영화처가 생기고, 효자동 육상궁에는 국립영화촬영소가 문을 열었다. 중앙청 영화과도 그들이 장악해서 뉴스촬영과 녹음, 편집등의 작업을 하던 때라 육상궁에서 일하던 연기자 최운봉을 시켜 월삼·스톱위치를 그들에게 팔았다. 남승민과 최운봉은 6·25직전까지도 내 연구소에서 함께 일했고 소록도에 로케이션을 떠나기로 약속된 연기자들이다. 시계를 판 10원으로 나는 그 영화동맹에 과분할 정도로 대접했다. 그래서 겨우 자수강요에서 벗어날수 있었다. 그때 자수한 친구들은 지금까지 행방을 알길이 없다.

나는 또하나의 시련을 겪어야했다. 동인민위원회에서 지정전출의 통고를 받았다. 한가구당 2만원을 주고 알몸으로 식구들과같이 트럭에 태워서 이북땅으로 이주하라는 강제명령이다.

일제때 동회에서 심부름을 하던 동네청년이 성동내무서의 지령을 받고 지식계급의 유지를 차출해서 전출시키자는 수작이다.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궁하면 통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나는 즉시 중앙극장뒤에서 곰탕집을 경영하던 영화배우 金漢과 연극배우인 그의처 李淑을 찾아갔다. 이들은 이북에서 내려온 주인규, 황철등 연예인들과 친구가 되어 터였다. 주인규, 황철은 매일같이 명동성당에 여배우들을 모아놓고 괴뢰군위문공연준비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김한의 곰탕집에 자주 들른다는 말을 듣고 있었기때문이다.

김한과 이숙에게 내 사정을 애기했더니 힘써 보겠다며 내일아침에 들러달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찾아갔더니 성명, 생년월일이 적힌 신임장(신분증명서)을 내손에 쥐어주었다.

국립촬영소 기술요원임을 신임한다는 내용의 촬영소장발행 증명서였다. 나는 바로 동인민위원회로 뛰어갔다. 그 신임장을 제시하고 그날 오후 북행트럭을 타야할 위기일발에서 간신히 모면했다.

그러나 안심할수 없는 일이었다. 6·25직전까지도 문교부·상공부에 근무하던 미국인들이 내집에 자주 출입했고, 북괴가 부르짖는 미제의 주구라고 볼수 있는 주택에 살고 있던터라 언제 처단이나 당할지 모를 판국에 사실이다. 9월 20일부터 나는 집에서 나와 중앙극장천장과 신당동 신부외장에 은신하고 때를 기다렸다. 예상대로 9월26일밤 1시께 다발총을 든 괴뢰병사와 내무서원이 내집을 습격했다. 구두를 신은채 집안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숨겨놓았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마구 위협하고, 마구 기물을 파괴했다. 내처는 임신 8개월이라 가혹하지는 않았으나 심지어 마루밑까지 찾다가 한동안 발광을 치고 그냥 돌아갔다는 것이다. 처와 6남매의 자식들이 무사했다는 것은 실로 신의 가호로 생각된다.

때마침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소식을 라디오로 들었다. 드디어 중앙청에 태극기가 올라갔고 괴뢰군들은 서울에서 후퇴했다.

◇필자가 감독한「아리랑」촬영중의 스냅. ⓐ로부터 촬영기사 李成春, 筆者, 배우 趙美鈴, 申一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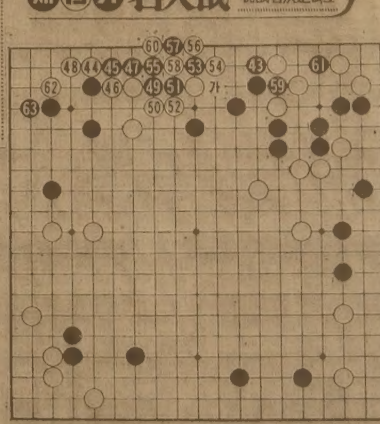
계속적인 監視에 두려움느껴 隱身
한때 自宅습격받았다 無事히 넘겨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 第6譜 43〜63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 〈4勝1敗〉
黑(4段) 姜 勳 〈4勝1敗〉

본보는 승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된때문에 黑43부터 재현한다. 원래 43은 먼저 45자리에 두어야하는 것을 반대로 白44를 허용했고 다음 黑47로 기어들어가기 때문에 白은 55의 곳을 막지않고 48쪽으로 뻗어들어갔던 것이다. 姜4단은 일이 심상치않게되자 초긴장. 즉시 黑49로 젖힌다음 白50때는 25분이나 고민한끝에 黑51이하로 패를 만들었다.



黑 49, 準敗着

黑49는 55자리에 뻗어야 정수였다. 도중 黑55로「가」에 끊는것은 白58에서 55를 잡기는수가 성립한다. 黑59·61로 우상귀를 잡은것이 30집가량이어서 부분적으로는 [illegible]하지만 白은 60으로 패를 해소하고 좌상귀쪽 黑집을 한뒷 [illegible] 결과이다. 【一凡】

구독신청은 533-2361

씨알예술제' 82

창작음악극 **토끼전** 2막4장
김옥자각본 유회자 작곡
그외 씨알무용단의 탈춤, 바이올린 합주, 씨알합창, 태권도, 미술전시등 다양한 프로그램
특히 각 한글학교의 어린이들과 부모님을 초청하오니 많이 오셔서 즐겨주시고 어린이들의 한국어 공부를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2년6월5일 토요일저녁7시30분
Central Technical School(베더스트와 하보드)
★어린이 무료 어른2불

씨알여름학교안내

씨알여름학교안내

씨알여름학교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름방학을 가장 보람있게 보낼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국인 친구들 사이에서 구김살 없이 학교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짧은 여름동안에 배우는 양은 어느학교에도 비교할수가 없읍니다. 한국어를 비롯해 자기가 선택하는 예능과목, 정규학교공부를 도와주는 영어, 수학, 과학, 그외에 수영, 운동경기, 축구, 야구, 현지견학, 소풍등 풍부한 프로그램과 유능한 선생님들의 정성어린 보살핌으로 여러분 자녀의 여름을 값있게보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격 : 유치반부터 9학년까지
시　간 : 아침9시30분부터 오후3시까지 월~금(Day Care는8시~6시까지)
기　간 : 7월5일부터 8월13일까지
장　소 : John Wanless Public School 250 Brookdale Ave. Tor. (로렌스와 아베뉴로드)
수 업 료 : 1학생 160불, 2학생 310불
신청마감 : 6월20일까지
뻐　스 : 동, 서, 다운타운, 미시사가지역에서 운행합니다. 6월20일까지 441-2986으로 신청요망.
뻐 스 비 : 한학생 140불, 두학생 270불. 미시사가－한학생 160불, 두학생 300불
※Day Care Service－60불을 추가.

씨알여름캠프

모집인원 : 60명 12학년이상, 등록선착순
기　간 : 8월24일~27일까지
장　소 : 보이스카웃캠프장, 수세식 변소시설 되어있음
캠프비용 : $45
신　청 : 6월20일까지 신청서와 수표를 우송하여 주십시요.

씨알여름학교 신청서

학생이름 ＿＿＿＿
생년월일 ＿＿＿＿
현재학교이름 ＿＿＿＿
학년 ＿＿＿＿ Brough of ＿＿＿＿
주소 ＿＿＿＿
＿＿＿＿ Postal Code ＿＿＿＿
전화번호 Res. ＿＿＿＿ Bus. ＿＿＿＿
신청과목 영어, 수학, 과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무용, 태권도, 축구
▲이중에서 두과목만 ○ 치십시요.
보낼곳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H5R 2S5
부모이름 ＿＿＿＿ 싸인 ＿＿＿＿

씨알여름학교캠프신청서

학생이름 ＿＿＿＿
학년 ＿＿＿＿ 생년월일 ＿＿＿＿
전화번호 Res. ＿＿＿＿ Bus. ＿＿＿＿
주소 ＿＿＿＿
＿＿＿＿ Postal Code ＿＿＿＿
보낼곳 The See－All Korean School 150 Madison Ave. Tor. M5R 2S5
부모이름 ＿＿＿＿ 싸인 ＿＿＿＿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廢車부품 다른車에 팔아

일부 自動車정비공장 脫線

耐久연한넘어 事故 위험도

檢査는 5천원만주면"合格"

車臺번호판 再生 위조까지

전국 곳곳의 일부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이미 폐차처분된 차량에서 뜯어낸 낡은부속으로 정비하려온 차량에 끼워주고있음이 본사취재로 밝혀졌다. 이들 정비공장들은 때로는 부속이용에 그치지않고 프레임·넘버 (車臺번호) 철판까지 도려내 각자 (刻字)를 모자이크재생, 위조해주는 숫법까지 쓰고있다. 6·25이후까지 미군등 폐차를상대로했던 이폐품재생숫법이 자동차공업이 육성된후에도 계속되고 있는것은 하나의충격인데 문제는 내구연한이 넘은부속품으로 정비된 차량들이 항상 사고위험을 안고있는데 있으며

더구나 차량 정기검사때는 검사장직원에게 대당 5천원씩을 주고 「합격」하는 편법까지 쓰고있는것으로 알려져 (강력단속)을펼 법률근거의 마련이 시급하다. 차량정비관계전문가들은 「각종자동차 부속품들을 싸고 충분하게 자체생산·시판하고있는 마당에 「단순한 폭리」를 노리는 이같은 옛날편법이 계속되고 있는것은있을수 없는 일」이라고지적, 이제우리나라도폐차처분된차량은 번호판만 남과동시에 압축시켜철공장으로보내 재사용할수 없도록하고 자동차부품 유통구조를 더 단순화시켜야할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작업중인 자동차정비공장。 폐차를 사다가 그곳에서 나온 낡은 부속으로 정비해주고 폭리를 취하는곳이 많아 단속이 시급하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자동차정비공장의 이같은 횡포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서울지방이 심해 서울 城東區馬場洞·聖水洞등 정비공장밀집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로 돼있다.

포니승용차의 경우 폐차장에서 5만원에 구입, 각종부속품을 뜯어내 쓸만한것을 재생시키고 있는데 프레임·넘버를 변조시켜주면 대당최소 30만원이상을받는다는것.

1급정비공장인 城東區N공업사의 경우 이런 숫법으로 정비해준것은 4~5월 2개월동안 알려진것만도 4대. 4월한달동안 서울3마96×9호, 서울2가40×1호, 서울2가12×5호등 3대와 이달초 부산1라20×7호등 포니승용차4대의 차대번호판이 이같은 방법으로 고쳐졌다는것.

또 이곳에서는 망가진 각자의 재생이외에도 브레이크등 멀쩡한 부품을 『갈아야한다』면서 폐품에서 나온것과 교체,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많다. 이곳에는 H개발, D산업등의 차들이 수시로 찾아오는데 단골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잦다.

長安坪의 50여 폐차장에는 폐품부속만 취급하는 브로커가 수십명이 넘으며 이들은 정비공장들을 나름대로 단골로두고 폐차처분된 승용차등을 배달해주고 있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프레임부분에 제조회사와 일련번호를 음각한것으로 차량번호와 별도로 등록,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말하자면 자동차의 호적같은것. 엔진구조는 신청을통해 변경할수 있으나 차대번호판은 사고등으로 망가질경우 차전부를 폐차해야하는 현행도로운송차량법의 불합리성을 교묘히 악용, 폭리를 취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이들 정비공장의숫법이 교묘해 영업차량의경우 西橋洞·芳荑洞등 6군데의 검사장에서 6개월간격으로 지구별검사를 받게돼있으나 검사장직원들도 잘모를 정도이고 알아도 그냥 봐주고있는 실정이다.

육안·기계검사등 2가지의 검사를 통과하기위해 이들은 1대 5천원꼴로 상납, 검사차주와함께 검사장에 찾아가 를 통과하는경우도 있다는것인데 이 5천원도 차주로부터 받아낸다는것.

자동차관리사업소에의하면 차대번호판 위조로 적발돼 폐차되는 차량이 한달에 3~4건정도 되지만 이는 실제위조차량의 10분의1도 안되는 숫자라는것.

한편 정비공장에대한 단속이 거의 없는것도 큰문제가 되고있다.

서울시내에는 현재 2백94개소의 정비공장이 있다.

중단했던 公共廳舍 신축工事

城南市廳등 37件허용

2件은 허가취소

정부는 25일하오 수도권문제심의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를 열고 수도권내공공청사신·증축규제조치에 따라 그동안 공사가 중단돼왔던 수도권내 39개 공공청사의 계속시공여부를 심의, 조달청청사등 2개건물은 건축허가를 취소토록하는한편 성남시청을 포함한 37개건물은 계속공사를 허용키로했다.

이날위원회에서 건축허가를 취소키로한 공공청사는서울 永東에 대지조성공사를하고있던 조달청청사와 한국과학기술원부설 해양연구소 건물(半月)등2건이며 계속공사가 허용된 공공청사는城南시청, 高陽군청, 水原새마을연수원, 서울세관(증축), 국립정신병원등의 신축건물과 나머지는 증·개축중이던 건물이다.

수도권문제심의회는 지난 7일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 규제조치를 취하면서 경과조치로 현재 시공중인 정부청사및 공공기관건물에 대해서는 일단공사를 중단한뒤 심의회의 의견을거쳐 계속공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었다.

湖南高速道 4車線 光州까지 연장추진

【光州】전남도민협의회는오는84년부터 시행계획인 大田—全州간 호남고속도로 4차확장공사를 光州까지 연장하여 오는83년부터 앞당겨 착공토록 추진하는 한편 대단위 河南공업단지내에 노동집약적인 공장을 유치하기로했다.

새 全南건설을 위한 범도민협의회가 25일 확정한 사업요강에 따르면 이밖에 영재육성을 위한 장학기금을따로 조성하고 불행한사건、사고등으로 피해를입은 선량한 도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분과위원회가 주관하여 이들의 생활을 지원키로했다.

또한 86년도 아시안게임및 88년 올림픽에 대비, 우수선수육성을 위한 종합체육관을 건립, 전국체전등의 금메달리스트에게 파격적인 특별보상제를 실시키로하는 한편 光州와 木浦에 전통 南道예술의 종합전시관을 건립 향토문화를 육성시키기로했다.【總】

안개속 快速船끼리 충돌

釜山 쥐섬앞서 50여명 重輕傷

에어페리號-피닉스號 과속運航하다

【釜山】25일상오9시55분께 부산외항인 洛東江입구 쥐섬앞 해상에서 세길해운소속 에어페리호(78톤·선장고춘남·41)와 巨濟개발소속 피닉스호(77톤·선장김정태·39)가 충돌, 공문석씨(52·부산시影島區瀛仙洞4가144)등 에어페리호승객 30여명과 정복수씨(59·巨濟郡長承浦邑長承浦里516)등 피닉스호승객 20여명등 모두50여명이 부상을입었다.

에어페리호 부상자들은 뉴돌핀호 (72톤·선장 김수찬·45)에 옮겨져 이날 상오11시22분께 부산항에 도착、中區中央洞 광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으며 나머지 승객40명은 상오 11시40분 뉴돌핀호 편으로 목적지인 巨濟로 떠났다。

또 피닉스호의 승객과 부상자들은 巨濟서 부산으로오던 해금강호에 옮겨태워져 이날낮 12시10분께 부산항에 도착, 부상자들은 東區草梁洞 침례병원과 정유식 외과등에 분산, 치료중이다。

이날 사고는 승객79명을태우고 부산을 떠나 巨濟로 가던 에어페리호와 승객78명을 태우고 長承浦를떠나 부산으로 오던 피닉스호가 시계 30m의 짙은안개속을 과속으로 달리다 일어났는데 이사고로 양쪽배의 앞부분이 크게파손됐다。

부상을 입은 승객 공씨에 따르면 에어페리호가 이날상오 9시30분 釜山항을 출항, 약25분이 지난후 갑자기 광하는 소리와 함께 앞으로 쏠리면서 의자에 머리를 받혔다고 말했으며 정씨는 배안 오른쪽 중간좌석에앉아 졸다가 광하는 충격과함께 앞의 의자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쳐 부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해경 釜山지구대는 에어페리호 선장 고씨와 피닉스호 선장 김씨를불러 사고원인을 조사중인데 두여객선은 모두 2~3년전 코리아 타코마에서 건조된 신조선이다。【釜】

泗川 옛가마터서 陶瓷器 대량발견

【晉州】옛도요지로 알려진 경남泗川郡泗川邑龜岩里산65일대의 해발1백m 산중턱에서 대량의 도자기류가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모으고있다。

이같은 사실은 이마을 崔치경씨(51)등 주민 5명이 24일 나무를 심기위해 구덩이를 파다가 대량의 도자기류를 발견, 경남도에 감정을 의뢰해 밝혀졌다。

이곳에서 발견된 도자기류는 불에 굽지않은것과 구운흔적이 있는것등 수백점인데 대부분 파편으로 묻혀있었으며 원형대로의 도자기류도 많았다。【釜】

張여인 20억원 脫稅

관련·20명拘束연장

李哲熙·張玲子부부의 거액어음사기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5일 張여인이 관련기업체등에 5백76억원의 돈을빌려주면서 84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리고도 이에대한종합소득세 20억원을 포탈한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밖에 張여인의소득이 더있을것으로 보고 정밀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부부가 취득한 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이달말까지로 돼있어 탈세혐의로 추가입건할수 없기때문에 신고기간이 끝나는대로 탈세액을 추징토록 국세청에 통보할방침이다。

검찰은 또 張여인이 林在秀전조흥은행장·孔德鐘전상업은행장등 두은행장에게 2억원을 준데대해서만 배임증재죄를 적용,기소할때 추가키로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사건과관련, 구속된 피의자 20명에대한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했다。

검찰의한관계자는 이들에대한 『범죄가 고도로 지능적이어서 공소유지를위한 보강수사를 더하기위한것』이라고 말했다。

宗中땅 가로채팔고 被訴되자 書類위조

서울시경은 25일 시가10억원 상당의 종중땅을 가로챈 安聖萬씨(59·경기楊州郡州內面晩松里470)를 공문서위조및 동행사·사문서위조및 동행사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竹山安씨水使公파종손인 安씨는 楊州군에있는 종중 소유임야 14만여평 (시가10억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신탁등기돼 있음을 알고 지난69년1월 종중의 허가없이 매각처분한다음 지난80년8월 종중대표가 법원에 원인무효소송을내자 재판부에 매도증서와 임야매매계약서 영수증을 위조해제출한 혐의다。

殉職동료 補償金 횡령

독촉하는 夫人돈까지꾸어 착복

40代청소부 구속

【光州】전남 光州경찰서는 25일 작업중 숨진 동료의 장례비와 보상금등 5백여만원을 가로챈 金仁壽씨(43·전松汀邑사무소 청소부)를 사기및 횡령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따르면 金씨는 지난 80년11월 松汀邑사무소 청소부로 근무하면서 동료청소부 박모씨가 제설작업중 숨지자 박씨의 부인 은분순여인(47)으로부터 장례비와 보상금등을 邑사무소에서 지급받아달라는 부탁을받고 지난해 9월 4백91만여원을 받아 이중 30만원만 은여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4백60여만원을 가로챘다는것。

김씨는 또 지난 1월30일 은여인이 돈을달라고 독촉하자 자기집 대나무를 베어 시중에 팔아 갚겠다며 작업비용을 주어달라고 부탁, 은여인으로부터 50만원을받아 착복하기까지 했다。【光】

寧越군민 장학基金 1억목표 7백만원

【寧越】강원寧越郡 관내유지급인사들은 지난1월초 1억원 기금목표로 寧越군민장학회를 구성, 기탁서명까지 했으나 5개월이지난 현재까지 12명이 7백20만원밖에 내놓지않아 기금조성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宮柳장학회 設立

문교부는 25일 재단법인宮柳장학회(이사장 愼鏞來)설립을 허가했다。

경남宜寧郡宮柳面참사사건의 희생자 유족·학생들을 돕기위해 전국학생및 교직자들로부터 보내온 성금3억6천만원으로 설립된 이장학회는 앞으로 피해학생과 유자녀, 宜寧군출신학생들에게 등록금전액과 도서학용품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이장학금혜택을 받게될 학생은 국민학생23명, 중학생16명, 고등학생 16명등모두 55명인데 1인당 연간지급액은 국민학생10만원, 중학생30만원, 고교생50만원, 대학생 1백40만원이다。

방범대원이 路上강도

목격택시運轉士가 격투끝에 붙잡아

25일 새벽1시30분께 서울中區忠武路5街19의2 앞길에서 서울中部경찰서 筆洞파출소소속 방범대원 金容浩씨(25)가 지나던 살롱종업원 姜美淑양(24)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누른뒤 현금 4만원이든 핸드백을빼앗아 달아나다 검거됐다。

방범대원 金씨는 현장을지나던 아세아교통소속 서울4파5111호 포니택시 운전사 李鎬彦씨(32)가 『강도야』라는 소리를 듣고 추격, 잡으려하자 길옆에있던 각목을 주워 李씨의 팔을 내려친뒤 그대로 달아났는데 忠武路5街파출소 방범대원 2명이 운전사 李씨와 합세, 붙잡았다。 金씨는 24일 낮 부부싸움을 한뒤 하오10시부터 방범근무를 시작했는데 대한극장앞 구멍가게에서 2홉들이소주1병을 마시고 사복으로갈아입은뒤 범행을 저질렀다。

강원K농고를 졸업한 金씨는 지난해 3월부터 筆洞파출소 방범대원으로 근무해왔었다。

農村후계자등 육성資金영달안돼 차질

【大田】충남도가 농어촌후계자육성을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는 농어촌후계자육성 자금이 배정계획만세워놓고 영달되지않고 있다。

충남도는 올해 농어촌후계자 2백33명을 대상으로 연리 5%에 3년거치 4년균등상환조건의 장기저리영농자금 15억원을 지원키로하고 2·4분기에 52명의 농어민후계자들에 융자해주기로한 3억4천8백만원을 각시·군에 배정만 해놓고 자금 영달을 하지않고있어 일선농어민후계자들의 영농계획에 차질을 빚게하고 있다는것이다。

青陽郡의 경우 郡이 선정한 11명의 농어민 후계자에게 올해안으로 3천10만원의 자금을 융자해주되 2·4분기에는 2명에게만 융자해주기로 했는데 상부에서 자금이 영달되지 않고있어 아직까지영농후계자육성자금을 받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釜】

印度人셋 金泉도착 자전거로 無錢여행

【金泉】印度의 3인조 무전여행단 (사진)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印度 봄베이시에 살고 있다는아네·다바드씨(32·印度리조프레스잡지사 사진기자)、수를·베리씨(59·식품회사경영)등 남자2명과 여자인 사리니씨(35·印度고전무용교사)등 3명으로 구성된 이들 무전여행단은 지난20일 일본을 거쳐 부산항에 상륙, 4일뒤인 24일 金泉에 도착한것。

지난해 9월 印度를 출발, 자전거를 이용해 프랑스·동유럽8개국과 미국·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온 이들은 방문국의 TV등에 출연해 고전무용발표회를 갖고 그출연료로 여행경비를 조달하고 있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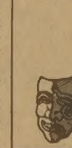
사진기자 아네·다바드씨는 『釜山—金泉간도로변의 농촌풍경이 아름다운데놀랐다』며『특히 印度와 비슷한 불교문화의 발달에 어느나라에서보다도 친근감이느껴진다』고피력。

이들은 약 1개월간에 걸쳐 우리나라의 불교사적지등을 관광한후 동남아지역으로 떠날 예정이다。【釜】

「梨花의 새엄마」

梨花女高 11代 沈致善교장

"百年을 딛고 百年을 도약할 重責"



梨花여고 제11대 교장으로 취임한 沈致善교수(53·사진·前延世大교육학과)는 지금 나이에 와서도 「우등생」소리를 듣는 사람이다.

모교인 梨花여고와 延大사학과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美오리건 주립대학 교육과에서는 졸곧 장학생이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우등생」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녀가 26년7개월동안 재직했던 延大의 동료교수나 제자들은 「자기앞가림이 분명한 여성」「누나나 언니처럼 따를수 있는 자상한 교수」로 그녀를 평가한다. 그녀가 입버릇처럼 되뇌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져라」「남의 장점을 북돋우자」는 말은 이제 梨花를 이끄는 슬로건이 될것이다.

24일 있었던 취임식에는 그녀의 생에 깊은 영향을 주었던 두사람이 참석했다.

庸齋 白樂濬박사는 서양사를 전공하던 그녀에게 「2세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워줌으로써 교육학으로 전공을 바꾸게했던 은사이고, 문경새재에서 일부러 올라온 金東吉교수(前延大사학과)는 3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어온 知己이자 친구.

이 두사람의 「延世맨」을 굳이들추는것은 延世1백년의 상징인 白박사의 「진리」와 「자유」의 교육혼이 沈교장에게 스며있다는점과 延世人사이에서 두독신男女교수를 두고 끈질기게 나돌던 로맨스구설(?)에도 불구하고 沈교장이 金교수와 흔들리지않는 우정을 지켜온 분명한 태도를 지적하고 싶기때문.

梨花여고는 정부의 고교평준화시책에따라 다른 私學의 명문들과 마찬가지로 그 이미지가 퇴색하는 감이 없지 않았다. 많은 梨花의 동문들은 沈교장이 이땅의 여성교육의 선구자적 요람으로서 1세기를내려온 梨花의 잠재력을 다시 굳건히다져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제가 할일은 개교1백주년 (86년)을 앞두고 그동안의 교육적 성과와 빛나는 전통을 잘 계승하고 앞으로의 1백년을 새로운 도약의 장으로 만들기위해 기반을 닦는 일이겠지요』졸업생 4만여명과 재학생 3천7백명을 이끌어갈 「代母」의 말은 차분했으나 「뜻」은 뜨거워보였다. 【崔成子기자】

한국일보·토론토

축 일간 1주년 기념

○이민의 문화적·사회적 자아(IdentitY)를밝혀가는 신문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가는 신문
○한국·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언제나 앞서가는 기사,광고의 한국일보토론토!

한국일보

아세아한약상사
조지섭
530—0522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
598—3732

하르빈한약상사
서춘봉
536—6854

15개국 가수 17명競演

MBC 주최 82 서울국제歌謠祭 29일 하오 세종문화회관서 開幕

팝·로크·디스코까지 多樣한 創作曲

12세少女서 父女·자매 듀엣등 참가

그랑프리에 2萬弗, 金賞엔 1萬弗의 賞金

文化放送이 침체된 국내 가요발전을 위해 주최하고 있는「82서울국제가요제」가 오는29일하오7시 세종문화회관대강당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로 다섯번째를 맞는 이 가요제에는 세계15개국에서 17명의 가수가 17곡을 들고 참가, 그랑프리등 부문상을 놓고 실력을 겨룬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세계 가수들의 경연무대가 되고 있는 MBC주최 국제가요제는 78년 FIDOF(세계가요제연맹)에 가입했고 FIDOF대상(81년)과 골로상(82년)、FEP(유럽연예기자연맹)대상을 수상하는등 국제적면모를 갖춰가고 있다. 올해는 총26개국에서 1백8곡이 참가 신청、15개국 17곡이 예심을 통과했다。

이번가요제의 특색은 발라드풍에서 락、로크、디스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참가가수도 12세의 소녀에서부터 父女듀에트、자매·남매듀에트등 다채롭다。또 참가가수 가운데는 디스코를 통해 우리 귀에 익은 가수도 많다。

「Late at night」「Since I met you」등으로 잘알려진 네덜란드의 자매듀에트메이우드가 동생가수 앨리스작곡의「사랑의첫순간」을 가지고 참가했으며 미국의 父女그룹 딜라니&베카가「작은사랑」을 들려준다。딜라니는 전부인 보니와 컨트리그룹「딜라니·보니와 친구들」을 구성、「Never ending song of love」란 히트곡을 남겼다。아버지 딜라니는 43세、딸 베카는 14세다。

「Yes, Sir, I can boogie」로 디스코선풍을일으킨 스페인의 여성듀에트 바카라의멤버 마이테、80년「Pilot of the airwaves」의 폭발적 인기로 미국 월드레코드사선정 최우수 신인가수로 뽑힌 영국의인기가수 찰리·도어도 귀에 익은 가수다。

벨기에의 엠리스타는비틀즈의 히트송을 메들리로 엮은「비틀즈의 추억」으로 현재 일본에서 인기리에 활동하고 있으며、「나 아직 울고 있네」로 참가한 도미니카의 에르난데스는 산토도밍고 가요제우승(74년)、푸에르토리코 가요제그랑프리(81년)수상경력의 소유자다。또 약관 12세의 로넨(이스라엘)은 81년이스라엘청소년국제가요제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한 재원。터키의 네자트·외지일마스는 로크·뮤지컬영화에서 주연을 맡는등 터키최고의 가수로 꼽힌다。

이번 가요제에는 세계적인 음악주간지 빌·보드誌의 발행인 리·지토씨가특별심사위원으로 참가、특별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예정。

82서울국제가요제의 부문별 상금은 그랑프리 2만달러(1명)、金賞1만달러(1명)、銀賞 각6천달러(2명)、銅賞 각 4천달러(3명)이다。

경연할 나라별 참가자수와 곡명은 다음과 같다。

▲벨기에=엠리·스타「카사노바」▲자유중국=저네트·원「내 말을 들어주세요」▲도미니카=세르지오·헤르난데스「나는 아직 울고있네」▲프랑스=소니아「뜨거운 기분이 느껴지네」▲이스라엘=로넨「어머니」▲이탈리아=프랑코·다니「어디로 가고 있는가」▲일본=에또·사이꼬 ▲네덜란드=메이우드「사랑의 첫순간」▲필리핀=루이·레이스&빌라루스「더이상 바랄게 없네」▲스페인=마이테「유혹」▲스위스=울리비아·그레이「우리 중에 하나는」▲터키=네자트·외지일마스「춤을 추세요」▲영국=찰리·도어「복수심」▲미국=딜라니&베카「작은사랑」▲한국=林鐘任「빨간 장미의 사랑」金永敏「지나간 시절의 연가」金泰華「세상은 요지경」

【李亨基기자】

◇마 이 테

◇메이우드

◇엠리·스타

◇全 承 祿

한국、中共꺾고 1勝

世界여자 핸드볼 亞洲예선전 개막 주도권장악、始終압도

長身숲 速攻돌파 作戰 성공

柳京美·尹秉順등 눈부신활약

GK 丁順福 슛·블로킹 25개 30·17

◇長身숲을 헤치며 한국과 中共의 대결。尹秉順이 中共의 타이트마크를 뚫고 슛기회를 노리고있다。【KBS·TV중계찍음】

【東京=鄭東吉특파원】한국은 25일하오 東京체육관서열린 제8회 세계여자핸드볼선수권대회 아시아지역 예선1차리그 中共과의 첫대전서 30-17로 승리、1승을 거두었다。한국은 장신의 中共을맞아 GK 丁順福이 전반전서 中共의 슛을 8차례나 막으며 분전했으며 柳京美 尹秉順이 좌우코너에서 잇달아강슛을 성공시켜 전반서14-9로 리드했다。한국과 中共의 대표팀이 대결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니어선수들끼리는 그동안 3차례대결、한국이 2승1패로 앞서고있다。전반 中共에게 먼저골을 빼앗긴 한국은 尹秉順의 페널티 드로로 1-1타이를 만들고 金玉花 柳京美、張玉粉의 슛이 고루 터지면서 4-1의 리드를 잡았다。

장신이지만 패스 미스가 잦은 中共은 전반 한국의 수비를 뚫지못하고 패스 미스와 인터셉트를 잇달아허용、한국에기습 속공을 당했다。게임의 주도권을잡은 한국은 에이스·슈터 柳京美、尹秉順의 슛이번갈아터져 8-2로 점차를 벌렸다。

한국은 8점을 올린후 패스 미스가 잦아 中共의 추격을 허용、8-4까지 추격당했으나 전열을재정비한 尹秉順 柳京美의 슛이 中共에 집중마크를 당하자 金玉花의 슛이 대신터져 전반을14-9로 앞섰다。

한편 24일열린 개막경기에서 中共은 日本에게 21-18로 역전승을 거두었다。

◇제2일 전적

한 국 30(16-9 / 14-8)17 중 공
(1승) (1승1패)

◇첫날전적

중 공 21(13-9 / 8-9)18 일 본

亞洲卓聯가입에 總力

好意的 무드造成、總會결과 주목돼

대한 탁구협회

대한탁구협회는 24일 자카르타에서 개막된 제6회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아시아탁구연합(ATTU) 총회에 韓相國부회장과 朴道天국제이사및 남녀 대표팀 코칭스태프를파견、한국의 ATTU 가입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

한국은 그동안 탁구서 日本、中共과의 관계개선에 진전을 보았을뿐만아니라 이번 대회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회원국들로부터 ATTU 가입에 큰 호응을 받고있어 오는 27일과 6월1일의 ATTU 총회결과가 주목되고있다。

이번 아시아선수권대회에는 세계최강인 中共을 비롯하여 日本 북한등이 참가、오는 11월 델리 아시안·게임과 내년 東京세계선수권대회의 전초전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있다。

中共은이번 대회서 세계선수권자 董玲과 曹燕華를 주축으로 황준근、리충리、양광리등으로 보강하고 노장張德英、齊寶香등을 제외하는 등 여자대표팀을 부분적으로 개편했다。

남자대표팀은 세계선수권자 郭躍華와 蔡振華、謝賽克등을 그대로 기용했다。

북한은 한국에참패했던 81년 세계선수권주축멤버 李成淑、朴英順、김복염、한옥선 등을 모두 제외시키고 김경순 김경화、방춘덕、일문화、최종희、이분희 등으로 여자팀을 구성、대폭적인 세대교체를 이루었다。

남자팀은 조용호、홍철、홍순철등 기존멤버외에 유용칠 이원협등이 보강되었다。

中共、홍콩·요르단完破

北韓 女단체 말聯제압

亞洲탁구선수권

【자카르타 24日聯合=特約】제6회 아시아탁구선수권 대회가 24일밤 자카르타市 세나얀 스포츠홀에서 개막되었다。

첫날 中共은 남자단체전예선A조서 홍콩을 5-0으로 완파했으며 여자단체예선 A조에서도 요르단을 3-0으로 제압했다。

북한은 여자단체 예선B조서 말레이지아를 3-0으로 물리쳤다。

IOC 政治的독립 유엔에 宣言文추진

사마란치委員長

【로마AP=聯合】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올림픽경기를 보호하기위한 선언문채택을 위해 유엔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OC는 27일 로마에서개막되는 IOC총회에서 세계각국이 올림픽경기를『정치적차원을 넘어선 국제적행사』로 존중할 것을 내용으로한 선언문이 채택되기를 기대하고있는데、이 선언문은 지난 80년 蘇聯의 아프가니스탄사태개입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美國의 주도하에 펼쳐졌던 모스크바올림픽참가거부와 같은 사태의 재현을 방지하는데 그목적을 두고있다。

앞서 환·안토니오·사마란치 IOC위원장은 하비에르·페레스·데·케야르 유엔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IOC의 이같은 선언문채택구상에 관해 협의한뒤『자신은 페레스·데·케야르총장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듣는동시에 이 계획을 계속추진하라는 격려를 받았다』고 밝힌바있다。

한편 이 선언문채택의 주창자인 리처드·파운드 캐나다 올림픽협회장겸 IOC올림픽경기보호위원회위원장은 IOC선언문채택에 따른 유엔의 지지조치와 관련、유엔의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여주듯 강력한 도덕적 영향력을 갖고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선언문은 이번 총회기간중 문안에 관한 올림픽경기위원회의 최종 협의를 거쳐 집행위원회와 총회로 넘겨질 예정이다。

流星의 賦 <391>

李炳注 作 / 李友範 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⑨

이덕남이 벤 적의 수급은 수십여개。

홍자수가 벤 적의 수급은 십여개。

그럴 때까지 적이 정면으로 대항하지 않았던것은 그들 두 사람을 사로잡아야 한다는 상부의 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포위망을 뚫고 나간 이상 사정을 감안할 겨를이 없었다。그것이 조총의 일제사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윽고 홍자수와 이덕남은 추격하는 왜적의 탄환을 맞고 쓰러졌다。두 사람이 쓰러지는것을 보자 급히 달려든 적이 자수와 덕남의 목을 끊었다。

홍계남이 본거지에서 출동하여 용인에 다달았을 무렵엔 적이 자수와 덕남의 수급을 죽간(竹竿) 끝에 달아들고 안성으로 진공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두 장군의 머리를 끝에 달고 간 이유는、이미 두 장군이 없어졌으니 빨리 항복할 것을 성민들에게 촉구하는데 있었다。아니나 다를까。안성의 성민들은 두 장군의 머리를 보고 통곡했고、성을 지키던 의병들의 의기는 소침했다。이렇게하여 난(亂) 이후 자수와 덕남의 용맹으로 적의 범접을 불허했던 안성이 무혈점령 되었다。

안성을 점령했으나 영산(影山)은 불만이었다。입화가 맹렬한 항의서를 보내오기도 했다。

영산은 막료들을 모아놓고 노발대발했다。그리고 목을 끊은 자에게 따졌다。

『왜 홍자수와 이덕남을 사로잡지 않았느냐』

『우리들이 덤벼 잡을 땐 이미 수발의 조총탄을 맞고 죽어 있었읍니다』

하는 대답을 듣자 이번엔 조총대의 대장을 불러 호통을 쳤다。

『왜 네놈들은 상처를 줄만큼 조총을 쏘지 않고 집중사격을 하여 그들을 죽게 하였는가。이번 싸움에 있어서의 나의 목적은 홍계남을 항복시키는데 있다고 하지 않더냐。계남은 남달리 효도심이 깊은 사람이라、아버지가 인질이 되었다고 하면 기필 항복했을 것인데 너희놈들 때문에 일이 망쳐지고 말았다。계남이 있는 동안엔 이 안성을 뺏어 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우리는 곧 도로 안성을 빼앗기고 말거다』

그러자 영산의 부하 흑암종태(黑岩從太)라고 하는 놈이

『홍자수의 수급을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놓고 계남을 유치하여 때려 잡을 수 있는 계책을 세우는게 좋겠읍니다』

하고 전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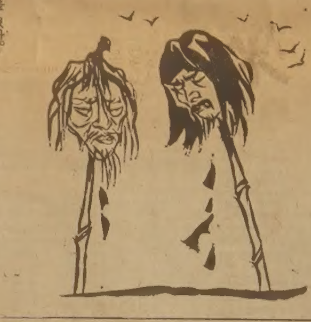
그 계책이란 홍자수의 머리와 이덕남의 머리를 성루위에 걸어놓고、성벽에 총안을 뚫어 조총대를 배치하였다가 계남이 접근하면 일제 사격을 가하여 사살한다는 것이었다。

영산은 부하의 책략을 채택하면서도 그 성과를 기대하지 않았다。그러한 책략에 호락호락 걸려들 홍계남이 아니라는 것을 영산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영산은 내심으로

(홍계남이 안성에 나타나기만 하면 이놈들은 모두 혼비백산하여 전의를 상실할 놈들이다)

하는 눈초리로 부하들을 돌아보며、조총대를 배치하는 한편 은근히 퇴각준비를 시켰다。추잡한 퇴각만은 하기 싫었던 것이다。

이 무렵엔 홍계남이 아버지와 덕남의 비보를 듣고있었다。노기 충천한 홍계남이 안성을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문만으로 안성내의 왜적은 벌벌 떨었다。



明暗 ㊽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19>

朴婉緒 作 / 金光培 畵

그러니까 5、6년동안이나 수지는 오목이를 잊고 지냈었다。오목이뿐아니라、해마다 용돈을 절약해서 고아원을찾아 자선을 베푸는 버릇도 잊은지 오래였다。일곱살적의 잘못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라도해서 보상하려했던 감상적인 소녀기를넘기고 그녀는 곧 인재와의 열애에 빠졌고 이젠 그 무분별한 열애의 시기도 넘기고 남편감으로서의 인재와 기욱의 조건을 조목조목 은저울에달듯이 냉정하고 세밀하게 저울질할수 있을만큼 이악하고 똑똑한 여자가 되어있었다。

만일 길에서 오목이를 만났다면 아는체나 해주고 기분에따라 빵집정도나 데리고 들어갔으면 최고의 대접이었을것이다。

오목이가 수인일지도 모른다고 긴가민가 하지도 않았을테고 오목이가 별안간 다섯살 적 기억을 오래된 서랍에서 옛날 물건 끄집어내듯 되살려 내면서 언니지? 언니가 날 버렸지? 언니가 날 고아로 만들었지? 하면서 대들까봐 전전긍긍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었다。수지는 이제 그렇게 순진하고 마음씨 여리지 않았다。

그러나 오목이가 은표주박이 달린 목걸이를 느리고있는 걸 보고서야 안놀랄 수가 없었다。그건 틀림 없이 수지가 어린 동생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면서 쥐어준 그 은노리개였다。어찌 그걸 잊을수가 있을까。그 하찮은걸 여지껏 지니고있다가 가슴에 버젓이 느리고 다닐건 또 뭔가?

이제 오목이가 수인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할 필요는 없을것 같았다。그렇더라도 오목이가 수인이가 될수는 없으리라。그물적증거를 알아볼 증인은 수지밖엔 없는데 수지는 그걸 증거할 생각이 추호도 없었다。

수지는 이렇게 차근차근 노련하게 은표주박 목걸이로부터 받은 충격에서는 벗어날수 있었으나 오목이와 마주 앉은 남자가 인재라는데 대한 놀라움은 좀체 가라앉지않았다。

두 사람은 단순히 마주앉았을뿐 아니라 연인들 사이처럼 다정해보였다。특히 오목이는 연정을 아지랭이처럼 아물아물 피어올리고 있다고 수지는 단정했다。

수지는 마치 철석같이 믿던 애인의 배신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가슴이 울렁대고 다리팔이 떨렸다。그녀의 저울은 이제 기욱쪽으로 기울다못해 거의 곤두서다시피 했건만도 인재만은 일편단심 그녀를 생각해주길 바라고있었다。못말릴 일이었다。

『왜 그래 수지?』

같이 식사하고나서 느긋이 코피를 마시고있던 기욱이 수지의 심상치않은 기색을 이상한듯 살피며 물었다。

『별안간 가봐야할데가 생각났어요』

『아니 그게 무슨소리야? 지금부터 재미있으려고하는판에』

오늘밤 기욱이 수지를 요절복통할 쇼가 있는 나이트클럽으로 안내하기로 약속이 돼있었다。

『중대한 일이에요』

『결혼할 사람끼리 즐기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도 있나?』

『아직 난 약혼승낙도 안했어요。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내 참 열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없다는 소리도 넘어갔다가도 발딱 일어서는 나무를 당해서는 말짱 헛소리아닌가?』

기욱이 낄낄댔다。수지는 그런 기욱이 천격스러워보여서 눈살을 찌푸렸다。

조 규 혁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 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DOMINION SMALLWARES

Cash & Carry에 한함

May 3 - May 29

Y & S Twizzler Red	70x5 ¢	$ 1.75
Maynard Wine Gums		4.29
Tootsie Roll	36x40	8.69
Planters Peanuts	27x40	6.35
Neilson Family Bar	24x99	14.59
Neilson Jerry Milk thick Bar	36x55	13.25
Allens Billy (Red&Black)	48x10	3.16
Allens Lacs	60x 5	1.99
Allens Ribbons	48x10	3.15
Allens Koo Koo	48x10	3.15
Lotsa Fizz	36x25	5.89
Wilson pop		5.39

Victoria day에 필요한 Fire Worker를 다량입수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40% Off, Cash & Carry는 Additional 7% Off))으로 봉사해 드립니다

May16(일)8:00a.m.-2p.m. May22(토)8:00a.m.-1p.m.
May23(일)8:00a.m.-2p.m. May(Victoria day)8:00a.m.-3p.m.

DOMINION SMALLWARES
920 CALEDONIA RD.
789-7214(MR. 김)

DUFFERIN / CALEDONIA / KEELE / LAWR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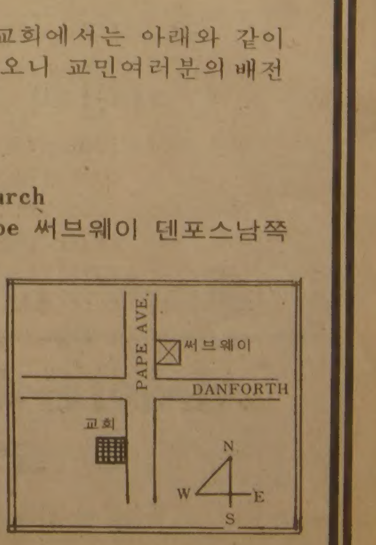
교회 예배처 이전안내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저희 시민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교회 예배처를 이전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교민여러분의 배전의 지도와 관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새예배처 : Riverdale Presbyterian Church
주소 : 662 Pape Ave. Toronto (Pape 써브웨이 덴포스남쪽 건너편에 위치함)
● 이전일 : 1982년6월6일(주일)
● 예배시간 : 매주일 오후2시정각

1982년 5월 일

시민교회당회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太平洋頂上회담」개최 協議

全대통령、프레이저濠首相에 提議

美·加·뉴질랜드·아세안國과 이미 具體的 整地작업 끝내

全斗煥 대통령은 24일 상오 청와대에서 訪韓중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맬컴·프레이저首相을 맞아 首腦회담을 갖고 太平洋연안 국가들의 공동번영을 추구하기위한 太平洋年例頂上회담개최를 제의, 이에대한 상호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40분간에 걸친 수뇌회담이 끝난뒤 李雄熙청와대대변인은 이같이 밝히고 『全대통령과 프레이저수상은 이지역沿岸국가간의협력증진을 위한 이같은 年例頂上회담이 이지역의 기존우호협력체제를 존중하고 도움이되는 방향에서 고려돼야 한다는 점에 留意했다』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프레이저濠洲수상을 맞아 太平洋국가頂上會談 제창등 域內협력에관해 협의했다.

首席 비서관 辭表 全대통령, 어제반려

尹國防등에 任命狀

멕시코 大統領 官房室長 접견

醫保酬價 평균7.1% 引上

6월부터 保險料率은 연말까지 現行대로

내년부터 分娩 진료지역制限 폐지

의료보험수가가 평균7·1%(항목별로는최고11·8%)인상, 오는6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英軍、首都스탠리 進擊

아르헨선 "上陸軍격퇴… 곧 大攻勢" 주장

戰鬪행위 中止용의 아르헨大統領 밝혀

포事態舌戰 가열 安保理 긴급회의

은행監督院長 金建씨를임명

임시國會 來28일召集

3黨總務 會期5일의 短期로

國調權발동여부 오늘決定

民正黨職者 회의

兩國首相 회담

合參議長 金潤鎬대장
檢察總長 金錫輝씨
外務次官 盧載源씨

釜山市長 崔鍾鎬씨
江原知事 金亨培씨
慶南知事 李圭孝씨

◇崔鍾鎬釜山시장

◇盧載源외무차관

◇金潤鎬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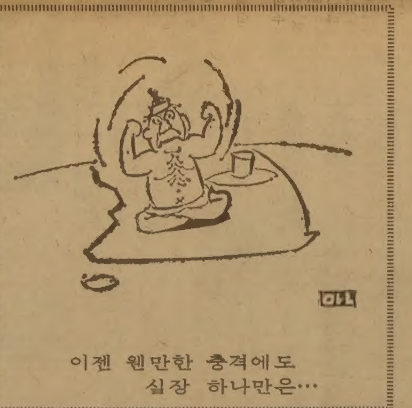
◇李圭孝慶南지사

◇金亨培江原지사

建設次官 徐相喆씨 內定

李肯珪 記者協회장 國際記聯 부회장에

社会漫評



이젠 웬만한 충격에도
실장 하나만은…

地平線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오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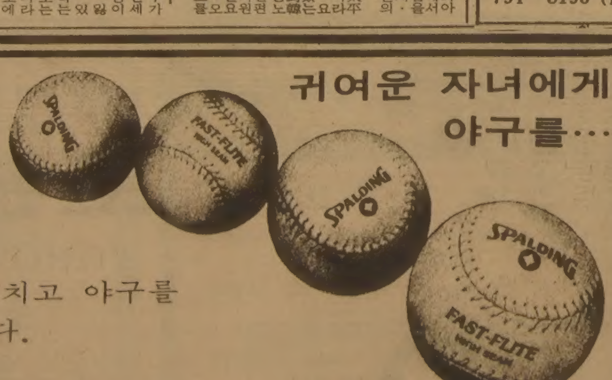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전물
• R·R·S·P
922—3111 (B)
793—5531 (R)
791—8196 (R)

533—2361

제1회 한국일보사배 〈소프트·볼〉

어린이 야구대회

귀여운 자녀에게 야구를…



북미에서 야구는 일상생활의 빼놓을 수 없는 한부분입니다. 자녀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고 야구를 통해서 스포츠맨쉽을 체득하게 하며 아울러 교포 자녀간의 우애와 자부심을 키웁시다.

일　　시 : 1982년7월3일(토)아침9시부터
　⊙우천시는 8월17일(토)로연기(같은장소임)
장　　소 : 코로네이션 파크(구장2개사용함)
　(CNE정문앞, 레이크쇼어×더퍼린과 베더스트 사이)
선수자격 : 1970년1월1일이후 출생자
참 가 비 : 팀당 $50
시　　상 : 1.2.3등(에뉴얼 트로피)최우수선수상, 피쳐상, 타격상, 미기상, 감투상⊙선수 각자에게 기념품 증정
★OASA(온타리오 아마츄어소프트볼협회)규칙을 적용.

볼크기(11인치)
투수거리(33피트—10.1메타)
베이스거리(50피트—15.2메타)
Bat(배트)길이(34인치이하)
　직경(2과4분의1인치이하)
심판및 진행위원장 : 박재선씨
감독자회의 : 6월24일(목)오후7시 한국일보회의실
연 락 처 : 한국일보사 송광호(533—2361), 브랜돈스포츠사 이건영(598—3732), 야구원로인 박재선(755—6434)

주 최 : 한국일보 토론토지사
후 원 : 토론토한인회, 대한체육회캐나다지부

"上陸英軍포위 목죄고 있다"

아르헨、"5천명 內陸진격"說 부인

"外信보도는 모두虛僞"

美의 空中給油機지원에 不安가중

◇英軍에 포로된 아르헨兵士 포클랜드群島에 상륙한 英國軍의 공수부대병사 1명이 23일 산·카를로스항구근처에서 英國軍에 항복, 포로가 된 한 아르헨티나 병사를 호송하고 있다。 【산·카를로스항구 (포클랜드群島) 24日AP電=聯合】

【부에노스아이레스24日=李梓昇 특파원】 아르헨티나 합참본부는 23일자정(한국시간24일정오)『아르헨티나 공군기가 23일산·카를로스에 포진하고있는 영국군에게 보급지원을하려던 영국수송선1척과 이를호위하던 프리기트함 2척을공격, 파손을 입혔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르헨티나군 소식통은『아르헨티나군이 영국군을 포위, 고립시켜놓은 상태에서 서서히 압력을가해포위망을 좁히고있다』고 말하고『산·카를로스 지형은 경사가급한 구릉지대로 되어있으며 천연동굴이많아 영국군을 퇴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말해 영국군 격퇴에 고전중임을 간접적으로시사했다.

이소식통은 영국군 5천명이 상륙, 산·카를로스해안지역에서 내륙으로 진격중이고 대공포 장갑차등 중장비를상륙시켰다는 영국측보도를 허위라부인했다.

아르헨티나 합참본부는 이날 하오에는『산·카를로스작전에 대한 외신보도는 모두 허위이고 합참본부 발표만이 사실이므로 이를 믿어달라』고 당부하면서『산·카를로스 지상전투에 대한 발표가 늦어지는것은 전황을 정확히 발표하기 위한것이며 또한 지상통신이 신속하지 못하기때문이다』고 사유를 특별히 발표하기도 했다.

아르헨티나 군사전문가들은『영국군 상륙으로 말비나스 전투가 새로운 양상으로 발전했으나 양국군은 서로 희생이 큰 소모전을 하게될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전문가들은 소모전을 하는경우 보급지원이 불리한 영국군이 아르헨군보다는 훨씬먼저 마모될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이 영국에 공중급유기 C135機를 제공키로 한것이 아르헨을 불리케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미국이 공중급유기를 영국내에서 사용토록제한 받고있으나 영국이 미국의공중급유기를 남대서양전선에서 이용할수있게 하는것이므로 영국의 對아르헨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영국군이 공중재급유가 가능해짐으로써 항공모함을 아르헨티나 공군기의항속거리 밖에 정박시킨 채 전투및 정찰비행을 일층 강화할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아르헨本土의 군사시설에 대한 영국군의 폭격도 가능하게 되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르헨티나는 영국군의 본토공격 가능성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22일 밤에는 남대서양 작전사령부가 있는 코모도르·리바다비아에서부터 트렐레우·마드린에 이르는 장장 5백㎞의 연안지역에 공습경보가 내려졌었다.

이날 밤하오 9시44분 코모도르·리바다비아의 해안에 설치된 레이다에 헬機가 포착되자 軍당국은 적색경보를 내리는 동시에 미라지를 출격시켜 헬機를 추적했으나 이를 발견치 못했다.

하오11시6분 공습경보가 해제될때까지 주민들은 등화관제를 실시하고 모든차량들은 거리에서 꼼짝도 하지않았다.

군당국은 레이다에 포착된 이헬機를『아르헨 비행기가 작전지역에서 돌아오다 레이다망에 포착된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駐레바논 佛대사관 大型폭발事故

승용차裝置…12명사망

【베이루트 24日UPI聯=聯合】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서부 회교도 거주지역에 위치한 프랑스대사관에서 24일강력한 폭발사건이 발생, 최소한 1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경찰과 보안당국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하오 3시10분(한국시간) 대사관구내에주차된 자동차에 장치된 폭탄이 폭발, 줄을서서 비자발급을 기다리고있던사람들중 약 12명이 사망했으며 희생자수는 더늘어날것으로 보인다.

戰略核감축 協商 蘇, 재개환영答信

【워싱턴20日聯=聯合】 헤이그미국무장관은 23일 소련이레이건 대통령의 전략핵무기감축협상촉구서한에 회답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헤이그장관은 이날 CBS·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채 회담일정이 외교경로를 통해 곧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만 말했다.

헤이그장관은 전략무기에 관한 소련공산당 서기장 브레즈네프의 최근 발언은『기본적으로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하고 브레즈네프는 협상재개를 환영하고 핵무기의 실질적인 감축에 관한 원칙을 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과 소련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가 오는6월 유엔 군축회의에서 美蘇외상회담 개최가능성에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環太平洋 連帶구상 日스즈끼 提議방침

【東京23日=聯合】 스즈끼·젠꼬(鈴木)일본수상은 故오히라·마사요시(大平正芳)前수상이 생존당시 외교정책으로 내세웠던 環태평양협의체 구성안을 승계, 일본·미국·아세안·호주·뉴질랜드·캐나다·중남미등을 연결하는 환태평양연대구상을 프랑스의 베르샤유에서 개최될 서방선진국 정상회담에서 제의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3일 스즈끼수상이 선진국정상회담에서 環태평양연대구상안제의를 통해 ▲경제기술협력▲에너지공동개발▲문화교류등을 증진시켜 태평양지역국가의 상호의존도와 유대강화를 적극 도모할 방침임을 밝히고 스즈끼 수상이 선진국정상들과 이문제에 관한 조정을 끝낸뒤 귀로에 하와이에 들러 환태평양연대구상안의 세부방침을 담은 이른바 하와이 선언을 제창할 생각이라고보도했다.

이란軍 大攻勢 재개

이라크占領 호람샤르港 완전포위

【베이루트23日AP=聯合】 이란군은 22일 이라크군에 대해 새로운 대공세를 개시, 개전초에 이라크에 빼앗겼던 항구도시 호람샤르를 완전포위했다고 국영 테헤란방송이 23일 보도했다.

테헤란방송은 이날 이란군합동참모부의 코뮈니케를 인용, 이란군이 22일밤 10시30분부터 새로운 공세를 개시, 호람샤르를 압박하는한편 국경도시 쿠스크시를 탈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라크는 이날 이란측의 이같은 전황발표를 즉각 부인하고 이라크군이 호람샤르에 입성하려는 이란군의 기도를 분쇄했으며 전투는 현재 이도시의 북부외곽지역에서 벌어지고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란군 코뮈니케는 이란군이 23일에도 공세를 계속해 아바단과 호람샤르 전투지역상공에 나타난 이라크공군의 소제 미그전투기 3대를 격추시켰다고 말했다.

이 코뮈니케는 이란군이 호람샤르의 북부및 서북부외곽지역에 구축된 이라크군의 방어선을 무너뜨렸으며 이라크군의 전차와 병력수송차량(APC)등 35대를 파괴했다고 말했다.

英해리어機 각광 美서도 눈독

3백40臺 도입 앞두고「業績」주시

험난한 地形서도 離着陸가능 행동반경좁고 積載量작아 흠

◇이륙하는 英製해리어전투기. 지난75년5월 오끼나와 가데나공군기지에 배치된 해리어기가 1군단사령부 캠프·레드·클라우드에서 시위비행을 할때의 모습이다.

영국의 주력전폭기인 해리어수직이착륙기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東포클랜드에 상륙한 영국군이 산·카를로스에 해리어기의 이착륙장을 확보한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해리어기의역할이 더욱 주목되고 있다.

영국측은 현재 허미즈, 인빈서블등 항공모함에 배치하고있는 해리어를 지상에 배치하게되면 東西포클랜드해협에서 차단임무를 띠고있는 영국함정을 일단아르헨티나공군의 사정거리밖으로 이동시킬수 있으며 또 영국함대에 대한 아르헨공군기의 공격을 중간에서 차단하는 효과를볼수있게된다.

더우기 산·카를로스가포클랜드의 아르헨군 주거점인 포트 스탠리와는 80㎞밖에 되지않으나 험난한지형과 도로사정이 영국군의 대규모 육로이동에는 큰제약이 되고있는터라 해리어기의 상륙은 더욱 큰 의미를 갖게될것같다.

이처럼 해리어기가 포클랜드전투에서 처음으로 성능을 과시하자 이미 해리어기 3백40대를 구입할계획으로 있던 미국도 해리어기들의 업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美군사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

美해군은 해리어기의 행동반경이 좁고 폭탄적재량이 작다는 이유를들어 해군함재기로서의 도입계획에 반대해왔으나 지난81년 8월 美·英합작으로 개량형 해리어기를 생산키로합의하고 83년중으로 개량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리어기의 본명칭은 호커·시들리 해리어. 제자리에서 이륙 상승한다고해서 점퍼제트기라는 별명을 갖고있다.

실전에 각광을 받는가장큰 이유는 종래의 전투기와 같이 넓은 활주로를 필요로하지않기때문이다. 마치 헬리콥터와같이 공중에서 머물기도하고 잔디밭 저탄장등 주변여건에구애받지 않고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것이 해리어기의특징이다.

해리어기는 당초 지상공작을 위해 설계됐으나 79년 해상용 시·해리어기들이 처음으로 英해군에 취역했다.

불과 25㎡의 착륙장을가진 선박에서 이륙, 정찰과 공중방위임무를 수행하며 또 적의 공습으로 비행장의 기능이 마비됐을때도 적의 함정을 요격할수 있기때문에 해군전술가들의 찬양을 받게 됐다.

최대속도 마하1.3, 항속거리 3천7백㎞의 해리어기는 2백25㎏짜리 폭탄을 20개 적재할수있으며 어느 각도에서나 목표물의 熱을 추적할수 있는 사이드와인더 空對空미사일도 갖추고 있다.

또 1분당 2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30밀리포2문을 장비하고 야간비행장비가 적재돼 제1차스탠리공항공습때 어둠을틈탄 작전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해리어기는 3백m정도의 짧은 활주로만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연료나 폭탄을 적재할 수 있다. 【徐興根기자】

◇화염싸인 英프리기트艦 英國의 포클랜드 기동함대소속 프리기트함 1척이 지난21일 英國軍의 포클랜드 상륙작전도중 아르헨티나의 미라지전투기 공격을받고 화염에 싸이고 있다。 이사진은 英國의 로페스·어소시에이션通信이22일공개했다。【런던22日AP電=聯合】

얼음바다突進…1시간만에 上陸완료

뜨거운 포클랜드戰場… 英종군기자 取材記

아르헨軍抵抗없어

○…중무장한 英國軍공정대가 얼음깔린 바다물을 첨벙거리며 건너는 순간 나는 상륙정에서 뛰어내려 6주간의 항해끝에 도착한 포클랜드군도의 해안을 향해 필사적으로 뛰어갔다.

병사들은 눈부신 햇살을받으며 동포클랜드의 서북쪽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의 해안을 향해 돌진해갔다.

포트·산·카를로스에 주둔한 아르헨티나 군으로부터는 아무런 저항도 없었다.

포클랜드주민들은 마음이 놓인듯 대여섯채가량의 밝은색페인트칠을 한 농가에서 뛰쳐나와 대원들에게 담배와코피를 권했다.

상륙1시간이 채안되어 공정대원들은 농가와 목장이있는 포트·산·카를로스 마을을 확보하고 영국국기를 게양했다.

그들은 영국군이 상륙을시작하자마자 아르헨티나군 42명이 도주하면서 버리고 갔다는 무기를 노획했다.

공정대는 해안으로부터 위로 이동하여 포트스탠리에주둔한 아르헨티나 수비대로부터 동쪽으로 80㎞떨어진 마을주변에 방어선을 구축하기위해 산개했다.

우리는 해안으로부터 마을능선을 타고 올라가 영국해군의 프리기트함들과 구축함들이 아르헨티나의 스카이호크및 에탕다르전투기들과 미사일교환전을 치르고 있는광경을 지켜봤다.

農民들、英軍에담배·코피권해 女敎師가 上陸 중대情報제공

2년전 現地서근무

○…포클랜드에서 여교사로 있다가 2년전 돌아온 한 여교사가 영국군의 21일 산·카를로스항상륙에 중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캐럴·밀러(42)라는 여교사는 영국군특공대와 공수대원들이 지난21일 상륙한 동포클랜드서북단의 牧羊村 산·카를로스항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그녀는 영국군 공격부대에 의해 해방된 섬 주민가운데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기뻐했다.

한편 동포클랜드 주민들은 이 섬에 상륙한 영국군을 돕고있다고 런던라디오방송(LBC)의 한 특파원이 22일 보도했다.

아르헨潛艦 위협

○…아르헨티나가 보유한 잠수함 3척이 포클랜드 군도주변에 포진하고있는 영국기동함대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영국의 군사소식통들이 22일 말했다.

소식통들은 아르헨티나 잠수함들의 주요공격목표는 영국 항공모함 2척과 2천명의 병력을 수송하고 있는 호화여객선 퀸엘리자베드호라고 밝혔다.

英선박寄港 허용

○…우루과이는 1척의 영국선박이 포클랜드전쟁에서 부상한 병사들이나 아르헨티나군포로를 싣고 몬테비데오에 기항하는것을 허용하겠다고 에스타니슬라오·발데스외상이 23일 밝혔다.

발데스외상은 영국이 이선박을 우루과이의 한 항구로 보내는것을 허용해줄것을 요청해왔으며 우루과이정부는『우루과이의 인도주의적전통』에 입각, 이요청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美、外交官대폭縮小

○…미국은 포클랜드사태를 둘러싸고 아르헨티나와의 긴장관계가 초래됨에따라 부에노스아이레스주재美대사관 관리와 가족들의 수를 대폭줄이고 있다고 미국무성대변인이 22일 밝혔다.

◇글로브賞받은「妖艶」 영화「버터플라이」로 금년도「골든·글로브」최우수 신인상을 받은「피아·자도라」양 (26) 이 21일 칸영화제에서「버터플라이」의 첫 장면을 시연해보이고 있다。 【칸21日AP電=聯合】

中共 私有재산相續 허용 新헌법 草案에 明文규정

【홍콩23日=聯合】 중공은 신헌법초안에서『국가는 公民사유재산의 계승권을 법률조항으로 보호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순수한 노동에의해 벌어들인 사유재산을 명문으로승인하고 그상속을 보호하게됐다』고 23일 홍콩의 文匯報가 보도했다.

黨中央軍事委 해산

【東京24日=聯合】 중공은 인민해방군의 최고기관인 中共黨중앙군사위원회를 해산하는 한편 신헌법에 의해 국가군사위원회를 새로운 군최고기관으로 대신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海外토픽

感氣정복장치 개발 ★이스라엘 研究팀 개가

이스라엘의 웨이즈만 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있는 의사들은 마침내 감기를 정복할 수있는 한의료장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연소의 도브·오피르박사와 세르지오·칼만박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이장치는 심장모양의 작은 본사 기구가 튜브로 연결돼있어 감기환자의 콧구멍속으로 습기있는뜨거운 공기를 뿜어넣을수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오피르박사는 이장치를 수백명의 환자들에게 시험해본 결과 1시간안에 78%의 환자들에게서 바이러스성감기증상이 치유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장치가 체온이상의 열을가하면 바이러스균의 움직임이 약화된다는 원리를 적용한 것이라면서 비슷한원리를 이용하는 다른 유사기구들과는 달리 소형이어서 환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전혀 고통이없이 사용할수있다고 설명했다.【텔아비브=AP】

校服자유화 廢止 ★印尼, 貧富差흔적 최소화

인도네시아는 초·중·고교학생들에게 단계적으로 교복을 착용케 할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 교복자유화조치가 실시된 것과는 반대로 인도네시아는 82~83학년도에는 1차적으로 국민학교·중·고교의 1·2학년 학생들에게 교복을 입힐 것이라고.

유수프인도네시아교육문화상은 이에관한 정부의 명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도않고 여기저기서 제복의무화방침에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학생들에게 제복을 의무화하는 목적은 빈부차의흔적을최소화하려는것이라고설명.【자카르타=聯合】

로렌갇힌 감옥시끌 ★팬들 "함께 갇히겠다"

탈세혐의로 30일간의 구류형을 받은 이탈리아 여배우 소피아·로렌이 갇힌 형무소에 함께 갇히려는 열광적인 팬이 그녀가 수감된 교도소의 창문을 두들기는 소동을 벌였다.

캐롤리나·리라는 이 여인은 간수들이 담배를 권하여 진정, 더이상의 소동은 없이 돌아갔다.

지난63년도의 수입에 대한 약18만달러의 소득신고미필혐의로 2년전 유죄판결을받은 로렌은 그동안의 해외생활을 청산하고 최근 귀국하는자리에서 체포됐는데 현재까지 그녀의 팬들로부터 20통의 전보와 18가지의 소포물이 그녀에게 전달됐다.【카세르타(이탈리아)=AP】

카터回顧錄 곧出刊 ★人權·中東문제등다뤄

지미·카터 前미국 대통령의 회고록이『약속의 이행』이라는 제목으로 오는 11월 출간된다.

미국의 밴텀출판사 대변인은 카터前대통령의 회고록이 11월2일 미국과 캐나다에서 동시에 출간된다고 밝히면서 이 회고록은 1981년1월20일 카터의 대통령임기마지막날부터 시작, 이란에 억류됐던 미국인질석방의 최후순간, 캠프데이비드협정, 중동사태, 인권문제, 중공관계등을 주로 다루었다고 전했다.

카터전대통령은 임기중 써놓은 자신의 일기를 주요자료로 삼고있다는것.【아틀랜타(美조지아州)=聯合】

아스피린 危險하다 ★인플루엔저·水痘어린이

미국소아과학회는 19일 인플루엔저(유행성감기)나水痘(작은마마)를 앓는어린이들에게 아스피린을 사용할 경우 사망또는 뇌손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산하 2만4천 회원의 의사들이 어린이환자들에 대한 아스피린사용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美下院 18명은巨富 ★54명은 집칸도 없어

【워싱턴=UPI】 미국하원의원중 적어도 18명가량이 백만장자 노릇을하고있는 반면 부채에 허덕이고있는 의원도 있다.

18일 공개된 재무제표상에 의하면 이중 가장부자는 3백30만달러상당의 재산을 가지고있는 뉴욕주출신의 공화당의원인 빌·그린씨라는것.【워싱턴=AP】

메아리

「올림피아」는 희랍남부 펠로포네소스 반도서부에 자리잡은 제우스의 성지이다. 그곳은「클로노스」언덕 남쪽기슭을 흐르는 알페이오스 강과 클라디오스 강이 합류하는 지점이고 이오니아 해에서는 약50리정도 떨어진 내륙이었다.

올림피아에 관련되는 전설은 수많으나 그가운데서도 대표적인것이 기원전 5세기 전반경 피사의왕 오이노마오스가 딸 히포다메이아의 청혼자들에게 전차경주를 강요하여 이긴 젊은이에게 장가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사연이다.

많은 젊은이들이「오이노마오스」와의 경주에서 지는커녕 목숨을 잃고말았는데 열네번째의 도전자인 펠로프스가 포세이돈 한테서 받은 전차와 천리마의 덕으로 오이노마오스에 이기고 그 딸을 얻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가지는 헤라크레스가 4년마다 제우스의 제전, 즉 올림픽경기를 시작했다는 것으로 이 사연은 핀다로스의 시로 자세히 전한다.

그런데 대체로 전해온 설이 행사로서의 제1회 올림픽 경기의 개최는 기원전 7백76년으로 주장하는 학설이 유력하다고 하나 아직 이설이 분분하고 앞의 전설도 확증은 없는 일이라 실상은 오리무중이라 해도 좋을 듯 하다. 그 시작은 어찌 됐든 올림픽경기가 시대의 추이에 따라 경기의 정신이 변모하면서도 비잔틴시대 393년에 제2백91회로 경기의 막을 내렸다가 근대에 다시 부활되어 오늘까지 젊음과 그 슬기를 겨루는 세계적인 축제임엔 어김이 없다.

지난날「올림픽」의 역사나 근세에 부활된「올림픽」의 정신이나를 가릴 나위없이 그것은 세계인끼리 체력과 정신을 겨루면서도 큰테두리의 평화를 가꾸어 가는데 이바지 해왔다.

少年體典 결산

지난 23일 대전에서 열린 제11회전국소년체전이 5일간의 막을 내릴때까지 국민의 눈길은 각종목 마다의 전적이나 시도단위 득점의 우열 못지않게 대회의 분위기와 경기기록에 쏠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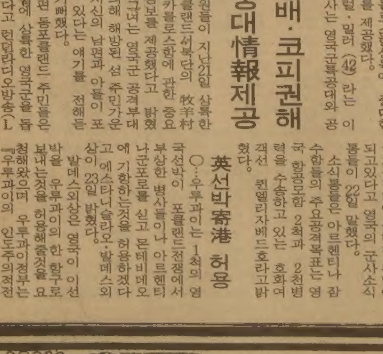
까닭인즉 88년「올림픽」의 주역이 바로 올해와 내년에 출전하는 청소년들이고 또 올해 소년체전의 연장선상에 88년「올림픽」의 성패가 놓여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뜻에서 올해 소년체전의 모든 경과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88년도의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가 우리 손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것인가를 생각해야 하겠다.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

토론토 연합전도대회

TORONTO KOREAN CHRISTIAN CRUSADE `82



강 사 : 박조준 목사 (서울영락교회 당회장)
○한국 연예인들의 간증도 있을 예정임.
일 시 : 1982년6월11일•12일•13일 저녁7시30분
장 소 : CROSSROADS CATHEDRAL
300 QUEEN'S DR. (401 & JANE. E.)
연락처 : 755－7979, 535－6864, 496－2967.

⊙연합 성가대 연습
지휘 : 박재훈박사
시간 : 매주일오후6시~8시
대원 : 각교회 성가대원
장소 : 한인장로교회 ·

토론토 연합 전도대회 대회장 : 안병한목사 • 부대회장 : 김재광목사 • 준비위원장 : 박희민목사

후원 : 토론토 한인교역자회, 뉴코리아 · 타임즈, 코리언 · 저널

나의 이력서
金蘇東 ㊾ (題字 金蘇東)

1947년초여름, 콜레라가 전국에 만연했다. 고향에서 급보가 왔다 부친께서 중환으로 사경을 헤맨다는 것이다. 보사부에서 간신히 콜레라증명서를 발급받아 겨우 함창에 도착했다. 어렵게 구해진 링게르 주사액을 두병째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서 엄친은 내손을 꼭 잡은채 영면하셨다. 일찍기 개화운동의 선봉이셨고, 지방의 교육사업에 남보다 앞장서 애쓰시던 일들이 새삼 눈에 선하다.

정부수립전야의 서울은 여전히 어수선했다. 1947년7월에는 여운형저격사건, 같은해8월에는 장덕수피살사건등 테러리스트들의 폭력이 사회를 불안속으로 몰아넣었다.

좌우의 분쟁기속에 시민들의 경제생활도 피곤했으나 영화인들의 입장은 더욱 처참했다. 이럴때 감독이 종로경찰서 건너편에 「신신」이라는 다방을 차렸다. 새로운 스타와 다방안에는 프랑스영화의스틸사진을 산뜻하게 장식했다. 대개 오전중에는 중진 영화인들의 모습을 이곳에서 볼수있었다.

이무렵 金昌根감독이 「해방된 내고향」「민족의 성벽」, 48년에는 그 「열풍」과 「女人」등의 작품을 내놓았다. 그는 감독이며 연기자며 또 시나리오 작가다. 열정이 넘쳐흐르는 용감한 예술가다. 그의 쓸쓸한 최후가 늘 마음아프다. 안종화감독은 崔寅奎(崔仁奎의 부친·작고)제작의 「秘密」를 연출했다. 김소영, 전택이, 이금룡, 신카나리아등이 출연해서 해방후 민주경찰의 이미지를 대중속에 심었고 곧 뒤이어 역시 최철 제작으로 「黎明」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다. 韓瀅模 촬영으로된 이 작품은 밀수를 주제로한 계몽물이다. 한편 최인규감독은 「국민투표」를 만들어서 전국전야의 국민들에게 민주선거의 이미지를 보급했다. 이에 맞서서 金聖珉(작고)감독은 「사랑의 교실」, 이규환감독은 「갈매기」를 만들어 소년들의사랑과 인정을 그려 주목을 끌었다.

또이무렵 安哲永감독(납북)이 하와이로케이션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영화 「무궁화」는 하와이교포들의 생활상을 천연색에 담아서 이색적인 주목을 끈바도있다. 사회혼란과 정치불안속에서도 영화예술은 그래도 꾸준한 명맥을 유지하면서 밝은 내일을 기다리는 자세가 분명했다.

母校재건에 盡力

"京畿의 전통·질서살리자" 李寬燮교장이 전갈 보내

영화과학연구소도 현상작업, 녹음작업이 날로 늘어갔고 이론적인 연구와 과학적인 실험도 가열되어갔다.

47년초 모교인 京畿중고등학교에서 급한 전갈이 와서 화동교사로 뛰어올라 찾아갔다. 당시의 교장 李寬燮씨(납북)는 내가 고보시절 수학을 가르친 은사다. 석탄이 없어서 학생들은 교실에서 떨고, 용지난으로 시험때는 고역을 겪고있었다. 서울처처에서 모여든 교사들은 오랜 전 일고보의 전통과 질서를 파괴할뿐더러 세력화보를 위한 싸움도 눈에 띄게 심하다는 것이다.

『모교의 운영이 말이 아니니 자네가 학교일을 좀 봐줘야겠네』이관섭교장의 청을 받고 그후 1년간 모교재건에 갖은 노력을 경주했다.

외면으로는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로, 내면으로는 모교를 재건하는 행정요원으로 활용했다. 상공부와의 교섭으로 석탄공사에서 다량의 유연탄을 배급받아 학생들은 따뜻한 교실에서 공부하게 되었고, 또

◇京畿高 제27회 동창회장 林仁亨㊧과함께.

英語가르치며 行政面서도 활약
뜻있는사람들 映畵진흥책 모색

1백연이 넘는 갱지를 상공부로부터 배정받아 용지난을 해결했다. 이관섭교장은 용기를 얻었고 그후 내질서도 하루하루 달라져갔다. 약속대로 나는 영화과학연구소로 돌아왔으나 그후 6·25동란이 났고 훨씬 뒤에야 이교장이 납북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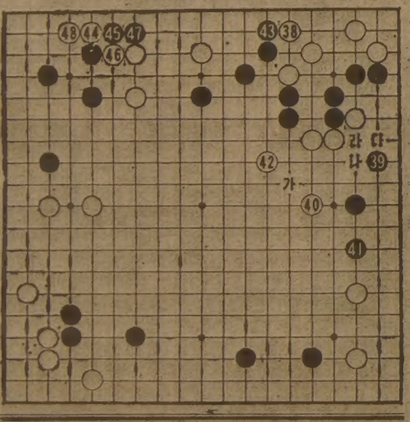
장다리같이 키가 크고, 그 순박한 얼굴과 온순한 목소리가 꼭 며칠전 일만 같다. 동경에서 가까이 지내던 경기모교의 음악교사 최희남도 납북되었다. 청담동으로 옮겨간 모교앞을 지날때마다 한수와 같은 젊은날의 꿈을 되씹어본다. 지금도 매주목요일에는 제27회경기동창들이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있다. 동창회장 林仁亨(인쇄·문방구업), 부회장 元鍾三(변호사)을 위시해서 매주 8, 9명정도는 모인다. 이관섭선생, 고오리야마선생을 떠올리며 우리들은 나이를 잊어버리고 꿈과 젊음을 되찾곤한다. 잠시나마 이렇게 만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다정한 친구 林仁亨형께 감사한다.

정부수립후 일년간 뜻있는 영화인들이 모여서 앞으로 해야할 한국영화재건의 길을 모색했다. 우선 기재문제가 시급했다. 내가 가진 촬영기라곤 아이모·2대와 시네코다·스페셜이 1대가 있을 뿐이다. 이병일감독이 東京서 가지고온 발보카메라가 있다고해서 그영화촬영에는 우선 그 발보를 사용키로 했다.

제13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21局 第5譜 38~48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 〈4勝1敗〉
黑(4段) 姜勳 〈4勝1敗〉



전보에서 우변黑세를 갈라놓고 귀쪽을 白38로 후수로 지킨 徐7단은 조용히 黑의 다음수를 기다렸다. 현시점에서 우변白3점이 허약해보이지만 黑39로 근거를 앗아오더라도 대책은 서 있는 모양이다.

姜4단이 39의요소를 찾은시간은 꼴과1분. 이수로 「가」자리를 봉쇄하는것은 첫째로위협이 되는편이나

左上귀에 문제발생

라 白이 「나」에 호구치면 쉽게 살아가고 黑만 맛이 고약해진다.

白40, 42가 진작 엎어둔 안전운행이었다. 42로는 「나」에 붙일수도 있지만 그러면 黑「다」白「라」때 黑42면 원불원간념이 벌어질 것같다.

黑4단도 그제야 아차하는 눈치。黑45로 젖혀 白46과 교환한 다음 당연히 참고도처럼 수습할줄 알았는데 갑자기 黑47로 기어들어갔다. 참고도는 상변 白이 강해져서 내키지않았던 모양이나 白48로 뻗어서 문제발생이다. 【一玄】

새資源개발 「世界의 지혜」 한자리에

녹스빌 82에너지 博覽會

◇觀客 매혹시킨 부채춤 한국의날을 맞아 한국관에서 펼쳐진 부채춤。관람객들은 한국의 민속무용에 아낌없는 박수를보냈다.

◇入口엔 參加國 국기가 인파로 붐비는 녹스빌 박람회장입구。참가국의 국기가 게양됐다。이 박람회장에는 하루 6만여명의 관광객이 몰리고있다. 【녹스빌=金英錫기자찍음】

新發明品보다는 枯渴대책 중심
22개국참가 지난 1일開幕… 관객2百萬 넘어서
韓·美·日·中共館인기…각국 特色선전에 주력인상

【녹스빌(테네시州)24日=金英錫·邊鴻鎭기자】 미국 남부 테네시州 녹스빌에서 지난1일부터 열리고있는 82년 세계에너지박람회는 24일 현재 2백만명의 관람인파를 돌파하며 계속인기를 모으고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개최국인 미국을 비롯 한국, 일본, 중공,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남미등에서 22개국이 참가했는데 매일 6만명이상의 관람객이 몰려들고 있는것이다.

녹스빌 국제에너지협회가 주최하는 이박람회는 에너지왕국인 미국관이 최대의 시설을 자랑하고있다.

박람회장 중앙 남쪽호수쪽에자리잡은 미국관은 한국관보다 약 4배가 넓은 대지에 6층의 대규모 에너지센터를 2천2백만달러를들여 건설했다。미국관에는 에너지자원개발을 중심으로한 각종 장비와 시설을 전시했는데 특히 세계에서 가장큰 21m짜리 대형영화스크린에 비쳐지는 에너지주제영화가 관객을 압도시킨다.

미국관의 공보관 웰지여사는『박람회가 끝나는 10월이후에 미국관은 녹스빌시의 영구적인 에너지센터로서 계속 활용하게된다』고 말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있는 국제관으로는 한국관을 비롯, 중공관, 일본관과 주최국미국관등 4개관으로압축되고있다。중국의 고대궁전모양으로 장식한 중공관은 박람회장 동쪽에 이집트와 페루관과함께 자리잡고있는데 만리장성에서 옮겨온 돌과 태양열을 이용한 보트 그리고 대나무, 비단, 옥돌등의 재료로 만든 특산품이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있다.

『세계박람회에 최초로 참가했다』고 밝힌 중공관의 왕치중공보관은『중공관은 41명의 요원을 이번 박람회참가를 위해 파견했다』며『아마도 국제관중에서 가장많은 직원을 파견한 나라일것』이라고 자랑했다.

중공관에는 전시장내에서 직접공예품제조 숙련공들의 작업모습을 보여주면서 상품판매에도 열을 올리고있는데 입장에 2시간 걸릴정도로 관람객이 몰리고있다.

일본관에는 그림그리는로보트, 폼박을 이용한 20만톤급유조선의 모형이 인기를 끌고있다.

호주관에는 풍력을 이용한 풍차, 프랑스관에는 파리—리용간을 달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는 기차」모형, 이탈리아관에는 해발전장치들이 각각 특색을 살리고있다.

한국관 옆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부국답게 오일달러를 투입하여 일체의 건설작업을 미국기업에 맡겨 전 시장안에 사막의 유전지대를 재현시켰다.

이번 박람회 주제가 「세계를 움직이는 에너지」이지만 참가각국은 에너지개발제품 전시보다는 각국의 특색을 나타내는 선전필름의 전시효과에주력하고있다.

국제관 외에는 미국내 에너지기업으로 손꼽는 US스틸의 석유개발장치, TVA개발사업, 인공위성과 홈 TV 수상시설을묘사한 전시관등이인기를끌고있다. 이밖에 미국내 4백여기업들이 참가한 생활과학전시관에는 주로 의식주에 관계된 에너지상품이 전시되고 있으며 내셔널 다이어리회사가 출품한 고성능 농축우유가 선을 보여 주부들의 인기를끌고있다. 이 농축우유는 냉장고없이도 보통 3개월간 신선하게 보존할수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밖에도 박람회장에는 각종오락시설도 갖추고 있는데 앰피극장등 2개의 극장에서는 한국고전무용, 미국컨트리송등 각국의 국제축제가 벌어지고있다.

또 박람회장 동쪽 끝에서 서쪽끝까지 1·6㎞상공에는 1백14개의 곤도라가 왕복하여 관람객의 흥취를 돋우고있다.

인구48만여명의 녹스빌시는 이번 박람회개최로 경기가 상승, 활기에 넘쳐있으며 테네시주의 유명관광지에도 관광객들이 몰려들고있어 여행업소들은 즐거운 비명을 올리고있다。녹스빌 메트로폴리탄 여행협회의 윌렴스매니저는『지난해 예약손님이 연6천여명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6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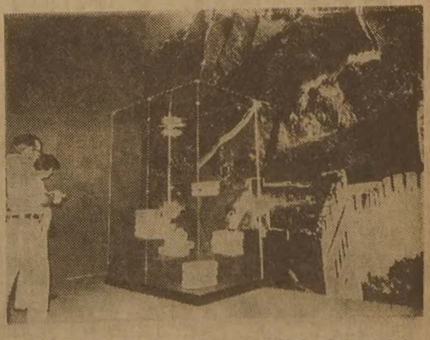
이번 박람회는 녹스빌주변 백40㎞주변 5천3백여만 미국인들에게 중점적으로 선전되고있어 불경기에도 많은 농촌주민들이몰려들고있다。박람회당국의 로버트·새일공보관은 현추세대로라면 6개월의 개최기간중 1천5백여만명의 입장을예상한다고밝혔다.

녹스빌박람회는 일반적으로 만국박람회와는 달리 참가 규모면에서나 전시품면에서 다소 규모도작고 세계적으로 관심을 끄는 개발품이 전시되지않고있다.

과거 파리박람회에는 에펠탑이 세워졌고 필라델피아박람회에는 전화기가 선보였으며 뉴욕박람회에서는 TV수상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었다.

그러나 이번 녹스빌박람회는 새로운발명품보다는 인류가 에너지고갈에서 어떻게 자원을 활용하며 자원개발에서 각국이 협동해야된다는 이념을 창안했다는 점에서 역사에 기록될것이다.

◇청사초롱 매달린 한국관
한국관은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인기있는 국제관의 하나이다。청사초롱이 매달린 한국관에 관람객이 붐비고있다.



◇중공관에 설치된 만리장성의 모형과 만리장성에서 가져온 벽돌모양의 돌들。

한국관엔 하루3萬명
過去、現재、未來로 나눠 전시
취사·난방겸한 온돌에 감탄
民俗공연땐 各國대표 어울려

한국관은 이번박람회의 심벌로 에너지원을 상징하는 공모양의 선스피어탑(높이 79.98m)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한국관은 한국의 과거, 미래, 현재로 구분돼 한국의 지나온 역사와 오늘의 위치 그리고 도약하는 앞날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이중 관람객에게 가장 인기를 끌고있는 것은 「과거의 한국」에 마련된 온돌방. 관람객들은 우리 선조들이 오래전부터 에너지 난방을 효율적으로 이용, 취사와 난방을 함께할수있는 온돌방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했다.

한국관 입구 오른쪽에는 풍력방아와 옥각정을, 왼쪽에는 世宗大王의 「혼천의」를 마련, 고유의 건축미와 에너지의 세계를 표현했고 입구천장에 달린 5백여개의 청사초롱이 화사한 빛을 발하고있다.

한국관은 모두 5백41평의 대지위에 10억5천여만원을들여 건설했는데 이곳 신문과 TV방송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관을 찾는 관람객도 1일 평균 3만여명.

이와함께 한국의 날행사가 지난18일 낮12시(현지시간) 한국관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한국의날행사는 17일부터 23일까지 계속된 한국주간을 기념하기위해 열렸는데 한국의 민속무용공연과 로버트박람회장의 개최선언으로 시작돼 이날 밤 10시까지 갖가지 행사가 계속됐다.

이 자리에는 徐錫俊당시 상공장관등 한국측 인사와 미국의 지역유지, 박람회 당국의 고위인사및 각국대표들이 한데 어울렸다.

이날 한국의 날 행사에는 수십만명의 관람객들이 몰려들어 신비한 동양나라의 행사에 한껏 취했다.

徐장관은 『韓美수교 1백주년의 해인 올해 미국에서 열린 박람회에 한국의 참가로 더한층 뜻이 깊다』며『韓美두나라는 1백년의 우의를 바탕삼아 보다 돈독한 미래의 장을 펴나가게 될것』이라고 인사했다.

히팅

"oil Furnace를 Gas Furnace로 교환해 드립니다"

지난 겨울동안 oil을 사용하시는 가구주는 히팅값이 천연가스에 비해 약 30% 정도 더 소비가 됐읍니다.
다음 겨울에는 약 40% 정도로 연료비가 더 소비하게 될것입니다.
현재 캐나다 정부에서는 oil난방비를 가스로 바꾸는 경우, 그 경비의 약 절반을 보조해 주고 있읍니다.
연료비 절약을 위해 금년에는 꼭 가스로 난방을 바꾸십시요.

HOUSING CONSULTANTS LTD
1177 FINCH AVE. W. SUITE 21
☎ : 663—5155(B)
535—2804(R) 김 상 표

축

일간지발행 1주년기념

—나날이 발전해가는 한국일보·토론토사의 성장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편견에 흐르지 않는 신문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건투를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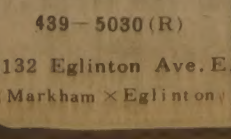
사대부고 동문회장 김현모

MARVIN STAR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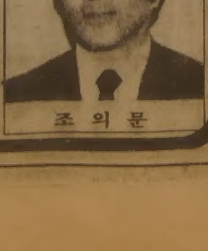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AVENUE, 밴트럭, USED·CAR

◎차종류에 따라 Cash Rebate(Bonus) 있음
◎카나다에서 Buick Line 으로는 Top Sale dealer임

* Best After Service * Best Pr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무슨「確認」이 그렇게 많은지…

"營農지도할 時間이 없다"

줄이은 각종監査·독려반에 일선公務員들 일손 빼앗겨

1개郡에 한달동안 13차례 나오기도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은 요즘 일선 시·군에서는 농가를 찾아 영농지도를 해야하는데 상급기관의 감사와 현장확인반등이많이 몰려들어 오히려 영농지도에 차질을 일으키는 일이잦다.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일선시·군의 공무원들이 「영농지도」에 눈코뜰사이없이 바쁘다. 한해의 수확을 가름하는 농번기철의 시작을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관계부서와 도단위급 상급기관에서 역시 영농지도독려등을 이유로 각종감사반, 독려반을 쉴사이없이 내려보내 일선공무원들의 「영농지도」시간을 빼앗아가는 기현상을 빚고있다.

시·군의 일선공무원들은 『보고문을 작성하고 현장안내를 하는등 뒤치다거리를하다보면 영농지도를 위해 농민들을 만날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고 『일선의 업무 태세를 감독하는 일보다 일하게 해주는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건의한다.

어떻게된일인지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나 독려러시가 해마다 버릇처럼 되풀이되고 있지만 「현실」을 탈피하고 「책임행정」을 할수있도록해주는 분위기는 조성되고있지 않다는 것이다.

감사나 확인을 나오는 상급기관은 주로 내무부 농수산부 각도청등으로 각각 규점된 정기감사나 확인을 하러나오는것이지만 농번기의 행정공백을 전혀 배려하지않고 강행하고있어 상급기관의 뒤치다거리에 인력을 뺏기게 마련이라는것.

24일현재도 尹勳煥농업진흥청장이 모내기독려차 지방출장중이며 농수산부간부16명이 일주일전 전국농촌을돌아본데이어 26일께도다시16명정도가 모내기독려차 지방출장을 계획하고있다.

또 내무부간부들도 지난4월20일을 전후해서 특수지역과장급이 지방출장했고 지난20일에는 고속도로 정화현장독려, 지난주에는 시군의 비상망확인을 위해 국장급이지방을 순시했었다.

이때문에 강원 橫城군의경우 지난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1개월동안 농수산부등 중앙확인반이 13회에걸쳐 24명, 강원도에서 23회에 26명, 기타 중앙부서에서 5회에 10명등 모두 41회에 걸쳐 무려 60명이 내려와 각종 업무를 보고 돌아갔다.

특히 농산과는 한달사이에 농수산부에서 4회에 8명, 도에서 7회에 13명을 맞이했고 농산과와 업무를 같이하는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청및 진흥원에서 11회에 17명의 확인반을 맞았다.

하루평균 1회이상 몰려오는 상급기관 직원들의 차량지원과 안내등으로 말단행정기관은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과 차량을 뺏겨 농번기를맞은 농가를 제대로 돌러보지도 못하고 있다.

이밖에 原州市와 原城郡에서도 1개월사이에 53회에걸쳐 80여명이나 하루도 빠지않고 출장을왔고 어떤날의경우 무려 3~4대의 차량지원과 10여명의 직원이 동원되기도 했다.

중앙확인반은 도청계장급의 안내를 받아 시군에들러 또담당자의 안내를 받기 때문에 3~4명의 「호위안내」를 받는 경우까지있는 형편.

특히중앙부서에서 출장나갈경우 도청관리가 시간을뺏기며 도청간부를 대동, 일선시군까지 현장확인하는 경우에는 하급일선행정기관으로 내려갈수록 보고사항을 비롯 뒤치다거리가 더많아 진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행정풍토 刷新力點
盧내무 시정방침

盧泰愚 내무장관은 24일 내무행정은 행정풍토 쇄신·의식개혁·사회안정·지역개발촉진등 4가지에역점을 두겠다고 시정방침을 밝혔다.

盧장관은 또 전내무공무원은 친절봉사와 확인실천행정으로 행정풍토를쇄신하고 부조리를 추방하여 기강을확립하고 안정된사회를 다지자고 말했다.

盧장관은 이를위해 전공무원은 국민앞에 군림하는자세를버리고 민원을 신속처리하며 특히 지역단위의 책임행정동을강화할것을 강조했다.

交通事故내고 도주
部下시켜 위장自首

서울鍾岩경찰서는 24일 朴章鉉씨(34·부산유통이사·부산東萊區蓮山洞1598)를 교통사고 특례법위반혐의로, 朴씨의 회사직원인 金仁圭씨(27·부산南區與體洞25의3)를 범인은닉,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등 협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의하면 朴씨는 지난22일 하오11시께 서울城北區下月谷3洞61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자전거를타고 길을 건너던 이동네 朴秉喆씨(36)를 치어 숨지게한 뒤 그대로 달아났는데 이튿날인 23일하오 金씨를 부산에서 불러올려 5백만원을주기로 하고 金씨가 사고를 낸것처럼위장, 자수시켰다는것.

入試改善案 月末께 확정발표

大入복수지원 廢止검토

面接·作文점수화도 留保키로

문교부는 83학년도 대학입시에서 2개 대학교를 동시지원하는 현재의 「복수지원제」를 없애고 1개교만을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이같은 방안은 24일 밝혀진 「대입 제도 보완을 위한 설문조사」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1개교만을 지원, 응시하는 단수지원제를 원하고있는것으로 나타난데다 내년부터 전후기대학을 조정하게됨으로써 수험생들의 지원기회가 늘어날것으로 판단하고있기때문이다.

문교부는 또 이 조사 결과에 따라 눈치작전을 해소하고 본고사 폐지로 인한 대학의 자율성을 보완한다는 취지는 그동안 검토해오던 「선지원—후시험」과 면접·작문의 점수화는 일단 적용치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문교부가 입시개선안의 토대로 삼기위해 대학 중·고교학생 학부모 언론인등 1천2백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는 그밖에 현행제도중 가장큰 문제점으로 전후기대학의 불균형을 지적했다.

설문조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복수지원문제에대해 현행 2개교지원방식이 좋다고응답한수는 29·4%였고 나머지 절대다수는 모두 1개교지원으로 바꿔야된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면접시험 점수화에대해 찬성이 32·5%인데반해 반대는 67·5%였고, 작문시험점수화에 대해서는 찬성31·8%, 반대68·2%로 대부분이 객관성이 없다는이유로 이의실시를 꺼리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문교부는 이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오는31일께 입시개선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는데 선시험—후지원등 현제도의 골격은 바꾸지않고 전후기조정과 복수지원제 수정의 선에서 고쳐질것으로 알려졌다.

"養老院보내라"에 음독自殺

7旬老母 美이민간 딸 편지받고 충격

◇자살한金春子할머니

외동딸이 미국으로 이민간 후 전세방에서 혼자 살던 79세의 할머니가 음독 자살했다.

지난17일 상오9시께 서울 江東區岩寺1洞 복권아파트 4동401호 전세방에서 金春子할머니(79)가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이웃 402호에 사는 친척 金慶淑씨(31)가 발견, 병원에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2일 낮12시20분께 숨졌다.

金씨등 친척에의하면 金할머니는 지난 76년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간 외동딸 金熙子씨(40) 부부가 처음 약속했던대로 미국초청을 하지않고 매월 1백달러의생활비만 보내온데다 1년전에는 『어머니를 반포에있는 양로원으로 보내달라』는 내용의편지를 친척에게보냈고, 지난18일에는 다시 『딸 결혼문제로 6월초에 귀국할예정인데 시간이없어 어머니를 보지못하고 갈것같다』는 내용의편지를 보내 이 사실을 안 金할머니는 딸을 원망, 자신의처지를 비관해 왔다는것.

金할머니는 지난76년 자기의 재산을 정리, 이민비용을 장만해 딸부부를 이민보낸후 남은 1백만원으로 아파트의 방1칸을 얻어 외롭게 살아왔는데 지난해부터는혼자밥을 지을수없어 옆집에사는 친척집에서식사시중을들어왔다.

"민족生存權수호에 생명을"
尹誠敏국방, 취임식서 당부

국방부장관 이취임식이 24일하고2시 육본광장에서 역대장관과 각군 주요지휘관및 주한외국군 고위장성들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尹誠敏신임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군은 인화단결로 뭉쳐 국가의 최후 보루로서 사명을 완수하고 민족의 생존권수호를 위해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갖추자』고 말했다.

尹장관은 24일자로 육군대장에서 예편됐다.

"눈치만살피는 捜査없애라"
金검찰총장 취임사

金錫輝 신임검찰총장은 24일 『검찰권은 법질서의 수호에대한 결연한 소신을 가지고 공정무사하게 행사되야한다』고 말하고 『검찰은 민심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소리에 귀를기울여야하며 왕으로는 상사의 눈치만 살피는 기회주의적태도는 결코 용납될수없다』고 강조했다

金총장은 이날 취임사를통해 이같이 말하고 『검찰권은 합리적 기준에따라 순리적으로 행사되야하며 상식과 이치를 벗어난 검찰권행사는 국민의 공감을 얻을수없다』면서 『고식적인 법해석이나 적용을 탈피하고 균형감각과 조화로 탄력성있게 검찰권을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金총장은 또 검찰권은 국가통치권의 한작용이므로 검찰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최고정책목표에 바탕을 두고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행사되야한다 면서 『검찰은 정치 사회 경제전반을 직시하고 무엇이 국가와국민을위한 최선이며 검찰권발동이 국민생활에 어떤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깊이 통찰해야한다』고밝혔다.

원양참치漁船 遭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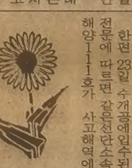
南太平洋서 18명乘船… 침몰한듯

【釜山】지난 21일 하오7시20분께 (한국시간) 남태평양 타이티섬남쪽 1천4백마일 앞 해상에서 수개공소속참치잡이어선 태양112호(1백33톤·선장 김순열)가 조업중 태풍을만나 파도에휩쓸려실종, 수산개발공사측은 조난당한 것으로보고 美연안경비대의 지원을받아 수색작업을벌이고있다.

선장 김순열씨등 선원18명이 타고있는 이배는 지난4월5일 사모아기지를 떠나현지어장에서 같은 회사 소속 지남205호 (2백50톤)와 다른회사소속 어선10여척등과 조업중이었는데 남위37도25분, 서경1백36도 해역에서 구조요청을 타전해온것을 원광원양소속 삼송15호가 2회에 걸쳐 청취한후 응답을 보내자 다시 3회에 걸쳐 구조신호를 보낸뒤 무전이 끊겨버렸다는것.

이배의선원 18명은 30개월간의 어로계약을 맺고 지난80년 3월7일 부산을출발, 사모아기지를 중심으로 남태평양에서 참치조업을 해왔는데 4월5일 마지막 8월치 조업에 나섰다가 이같은사고를 당했다는것이다.

태양112호는 수개공이 지난 69년건조한 어선인데 고려화재보험에 12만달러의 선체보험이 가입돼있고 선원들은 신동아화재보험에 선원보험이 가입돼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당시 인근해역에는 9백91미리바의 기압에 시속40노트의 강풍이불어 피항중 조난당한것으로 보인다.

한편 23일 수개공에 입수된 전문에 따르면 같은선단소속 해양111호가 사고해역에서 태양112호의 빈구명정 1개를 발견, 선원모두가 변을당한것으로 추정되며 타이티속 비행기2대가 수색작업을 펴고있으나 풍랑이심해 사고해역에 접근이 어려워 구조작업이 지연되고있다.

셋방處女 피살

목에 식칼맞아

24일 낮12시30분께 서울冠岳區新林1洞1595 韓元錫씨 (34·사업) 집 2층옥상 단칸방에 세들어사는 申男都양(18·D수퍼경리사원)이 길이 30㎝의 부엌칼이 목에 꽂히고 심한화상을 입은채숨져있는것을 집주인 韓씨의부인 李春蘭씨 (27)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李씨에의하면 이날 옥상에 빨래를 걸으러 올라가보니 부엌문이 열려있고 인기척이없어 들어갔는데 申양이 숨져 있었다는것.

피살된 申양은 목앞부분에 7, 8군데 마구찔린 흔적이나있고 목에는 식칼이그대로 꽂혀있었는데 앞머리와 상체가 불에타 심한화상을 입고 있었다.

숨진 申양과 함께 살고있는 언니 男烈양 (22·富平H 산업근무)에 의하면 이날아침7시께 자신이 출근을할때까지 동생 男都양이 자고있어 그대로 나갔다는것.

경찰은 申양방에서 없어진 피해품이없고 반항한 흔적이 없는점으로 보아 申양주변인물에의한 원한이나 치정살인이 아닌가보고 주변인물을 중심으로 수사중이다.

피살된 申양은 지난해 8월 경북 善山에서 언니와같이 상경, 新林6동에 있는 D수퍼경리사원으로 취직했었다.

大邱는 한여름
어제 32도記錄

【大邱】大邱지방의 수은주가 24일 32도3분까지올라가 올들어 가장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大邱측후소는 오늘부터 大邱지방에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닥쳐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3~4일간계속32도이상의 무더운날씨가 계속될것으로 전망했다. 【聯】

니코틴害毒제거「나크」
"실험결과 효과없다"
연초研究所 발표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등 해독을 방사능으로 제거한다는 선전과 함께 수개월전부터 날개돋친듯 팔리고있는 나크(NAC)가 관계기관의 효능시험결과 별다른 효과가 없을뿐아니라 이를 사용함으로써 공연한 방사능 조사량만 높여 인체에 해로울수도 있음이 밝혀졌다.

한국인삼연초연구소가 2회에걸쳐 솔과 거북선감에다 나크를 끼워 그효능을 시험한결과 거북선의경우 나크로 30분간 처리한 담배와 무처리 담배는 타르가 각각 13·6㎎으로 꼭같았고 니코틴은 1·03㎎과 1·02㎎으로 0·1㎎이 오히려 많았으며 처리시간을 1시간으로 늘려봤더니 타르가 14·7㎎(무처리담배 15·7㎎) 니코틴 1·2㎎(무처리 1·18㎎)으로 약간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12시간 처리후에는 타르가 17·5㎎(무처리 17㎎) 니코틴은 1·26㎎(무처리 1·25㎎)으로오히려 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제거관(나크)을 사용하면 담배의 니코틴이 12~14%, 타르는 20%가 줄어든다는 선전은 사실과 다르다는것이다.

이연구소관계자는 이시험을통한 니코틴과 타르의 증가는 실험오차일수도 있으나 분명한것은 나크가 효과가없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연구소 안전관리실관계자는 하루30개비의 담배를피우는사람이나체상태에서 나크로인해받는 방사능량은 인체의 연간 허용선량과 비슷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영향을받기때문에 그위험도는 일률적으로 따지기 어렵다고 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8·2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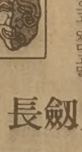
提督의 후예

韓美수교條約서명자 4代孫 슈펠트씨

人間魂서린「百年 長劍」을 한국인에…

로버트·윌리엄·슈펠트4세(사·59)는 한미수교조약서명자인 그의 4代祖 로버트·슈펠트1세가 차고다니던 長劍을 번쩍 들어 보였다. 그리고는 『서양인들은 칼에 人間의 영혼이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슈펠트家의 靈이 깃들어있는 이 칼을 한국인에게 넘겨주는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면서 흡집한눈에 「한미1백년史」가 서린다.

22일 인천에서 있었던 한미수교1백주년기념식에 참석한후 막 울숙소로 돌아온 슈펠트4세는 슈펠트提督의 가계가 5대째『1인후계자』家統을 유지해오고 있다고말한다.



조약서명자인 로버트·슈펠트1세提督은 조약체결후 미국으로 돌아가 少將으로 승진했다가 예편했다. 그는 일부기록과는 달리 양녀를 데리고 동양을 다시 방문한것을 비롯 몇차례 세계여행도 했으며 예편후12년쯤 노환으로 서거했다.

슈펠트제독은 세아들을 두었다. 장남은 의사, 차남은 아버지처럼 해군사관학교를 나와 주로 아프리카지역에서 근무했고 막내는 외교관이었다. 그러나 2·3남은 결혼하지 않아 후손이 없었다. 대를 이은 로버트·슈펠트2세는 로버트·퍼시 두아들을 두었다가 장남이 고등학교시절 물에 빠져죽어 결국 3대도 1인후계자만 남았다.

이번에 사절로온 슈펠트4세의 아버지가되는 퍼시도 아들들을 두었다가 장남이 일찍죽어 결국 제독의 후계자는 슈펠트 4세만 남게된것.

슈펠트 4세도 1남2녀를 낳아 1인후계자란 가통을 미리 이어놨다. 외아들 로버트·슈펠트 5세도 이번 韓美수교사절로 초청돼왔는데 그는 로스앤젤레스의 한백화점에서 일하고있다.

슈펠트4세는 한미기념사업회에 22일 넘겨준 長劍과 함께 제독이끼고있던 금반지를 물려 받은것을 자랑한다.

제독이 先代로부터 넘겨받아온 슈펠트家紋章이라면서 『내가 죽기전까지는 절대로 아들에게 주지않을것』이라고 말한다.

슈펠트4세는 워싱턴의 명문대학인 조지타운大국제정치학과 출신. 한때 남미에서 외교관생활을하다가 60년대末부터 여행사를 하고있다. 옆에있던 아들 로버트를 가리켜 『파도타기(Wind Surfing)의 명수이며 스포츠를 아는 용기있는者』라고 자랑하는 슈펠트4세의 의젓한 풍모에서 우리는 「고요한아침의나라」한국의문을 두드렸던 슈펠트1세제독의 모습을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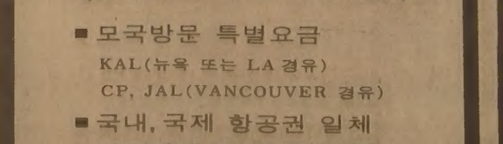
【鄭逸和기자】

YOUNG SOOK 'S
보석상
o각종보석
o다이아몬드 품질보장
o최저가격
o뉴 디자인
o보석개조 교환매매
o보증서
215 Yonge St. 민영숙
(B)368-7961 (R)690-52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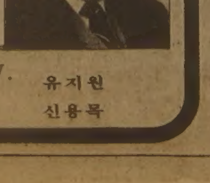
MR. CHOIS RESTAURANT
주중 :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 12시~밤1시
토 :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 759-8512
최 영 호

내고향통닭집
냉 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제일여행사



■ 모국방문 특별요금
KAL(뉴욕 또는 LA 경유)
CP, JAL(VANCOUVER 경유)
■ 국내, 국제 항공권 일체
■ 각종단체 관광요금
■ 여권, VISA 수속 서비스
■ 방문초청, 이민초청
(제반수속 안내및 작성)
(B)535-2377
(R)366-0864



649A BLOOR ST. W.
유지원
신용목

주식회사 황윤현부동산
금주의 새리스팅
1.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13,500
8,000
6,500
6,000
4,000(일요일 닫음)
2. (버라이어티 스토아와 건물)
다운타운 바쁜 네거리 위치
코너 스토아
주매상 7,000~8,000(2,3층에 아파트 4개 달린 건물)
가격 43만불
3. 도낫츠·숍
• 일요일 닫고 하루 12시간만 영업
년 순수익 52,000불
가격 13,5000불
• 주매상 8,500, 7,500불 이외에
쇼핑센타내에 있는 몇몇 Gift 및 Smoke Shop도 있음.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5 (B). 286-1548(R) M3B 1Z3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신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매일공연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첫試圖「메달順位制」성공적

11회少年體典 분석 市道間 過熱방지…反應도 좋아

球技종목 제도적뒷받침 아쉬워

메달많은 陸上만 치우칠우려

柔道 정식種目채택 주목 / 有望新人들 登龍門 될듯 / 우수선수 奬學制度확대도 바람직

제11회전국소년체육대회는 ▲메달에 의한 종합순위제 실시▲올림픽 종목인 유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레슬링 복싱 역도등이 시범종목으로 실시되고▲우수선수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대폭 확대했다는점이 특징이었다.

시도간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88년서울올림픽에 대비하기위한 메달 순위제는 13개시도 팀으로 부터 상당한 환영을 받았으며 많은 메달이 걸린 육상 성적에 따라 순위가 가려졌다는것도 주목할만한 현상이었다. 종합우승을 차지한 忠南은 육상서 금8, 은7, 동5개를 따냈고 全南은 금8, 은4, 동3개를 획득, 초반부터 각각 선두에 나서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메달제 채택에 대해 반대의 견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나 앞으로 각시도가 메달이 집중되어 있는 기본 종목 육성에 치우치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 구기 종목은 아무리 노력하여 우승해도 금메달 1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각시도가 구기 종목 육성을 등한시하고 기본종목에만 치중할때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수 있다. 각시도 관계자들도 이같은 우려를 표시했으며 육상에서 참패하여 우승을 놓친 서울팀 관계자들은 내년 대회에 대비, 육상을 집중육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기본종목과 구기종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방안으로 11명이 출전하는 축구의 경우 금메달 11개, 농구는 5개의 금메달을 인정하는 신축성있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한편 복싱, 레슬링, 역도등 기존종목을 시범종목으로 채택한것은 큰 성과였다. 역도에서는 유망신인들이 대거등장 했고 레슬링에서도 장래가 기대되는 소년선수들이 많이 나왔다. 88년 올림픽 주인공을 길러내기위해 채택된 이들 종목은 앞으로도 신인 발굴의 등용문이 될것이다. 그러나 복싱서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린 선수들이 뇌에 충격을 받으면 성장에 지장을 받지않을까하는 걱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것이 과제다.

기록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대한체육회는 세계신기록 수립선수에 금메달 4개, 세계타이 3개, 한국 신기록 2개, 한국타이 1개의 보너스 금메달을 주기로 했으나 어린선수들에게 신기록을 기대하는것은 무리였고 기대했던 신기록도 나오지 않았다. 보너스제는 전국체전에서 실시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각시도가 기본종목을 집중적으로 육성, 육상서 28개, 궁도서 1백46개의 대회신기록이 무더기로 쏟아진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었다. 구기종목에서 「서울의 독주」가 지양되고 각시도의 실력이 평준화되었다는것도 반가운 현상이었다. 大田의 경기장 시설이나 대회운영은 모범적이었다.

부정선수 시비문제가 올해에도 또 노출되지 않았다는 한편 태권도에서 일부 선수들의 학부형이 심판판정에 불복하여 물의를 빚은것은 옥의티였다. 어린이들의 잔치가 어른들에의해 얼룩진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특히 올림픽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세를 갖추려면 도둑과 바가지요금, 관중들의 질서의식 결여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뿌리뽑아야 할것이다. 【閔炳宅기자】

◇"내년 全州서 만납시다" 성화는 꺼지고…。 폐회식에서 각시도 선수들이 내년 全北에서 다시 만날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있다。 【大田=소년체전취재반】

홈팀 忠南 10년만에 우승

少年體典폐막 準우승 全南、3位는 서울

7連覇의 忠北、6位로 처져

【大田=소년체전취재반】제11회 전국소년체육대회는 홈팀 忠南이 10년만에 종합우승을 되찾은가운데 23일 5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폐막됐다.

忠南은 최종일 럭비·배구·핸드볼·배드민턴·탁구·복싱등 6개종목서 8개의 금메달을 추가, 금19·은20·동22개를 얻어 종합환산 금메달 34개로 우승, 72년 제1회체전우승이후 10년만에 정상을 되찾았다. 全南은 금14·은11·동13개를 따내 2위를 차지했으며, 서울은 금16·은5·동13개로 3위를 마크했다. 2회대회부터 7連覇했던 忠北은 각종목에서 부진, 釜山(4위)·慶南(5위)에 이어 6위로 처졌다.

이날 하오 6시에 열린 폐회식에서 曺相鎬 대한체육회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체육사에 새시대가 펼쳐지고있는 이때 선수들은 메달의 꿈을 실현시킬수 있도록 슬기와 지혜를 모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대회서는 육상에서 대회신 28·대회타이 1, 궁도에서 대회신 1백46·대회타이12개등 모두 1백74개의 대회신기록과 13개의 대회타이기록이 작성됐다.

◇메달 최종집계

	금	은	동	메달점수
①충남	19	20	22	34
②전남	14	11	13	22
③서울	16	5	13	21
④부산	10	11	14	18
⑤경남	10	10	11	17
⑥충북	8	10	14	16
⑦전북	7	10	12	15
⑧경기	7	6	8	12
⑨경북	3	8	10	9
⑩인천	4	5	6	7
⑪강원	3	5	8	7
⑫대구	2	3	12	6
⑬제주	0	0	2	0

◇종합우승을 차지한 忠南선수대표가 曺相鎬 대한체육회장으로부터 대통령기를 받고있다. 【소년체전 취재반】

아르게요 4次방어 / 挑戰者개니건 제압 / 5회KO로

【라스베이가스22日AP=聯】프로복싱 WBC라이트급챔피언 알렉시스·아르게요는 22일 라스베이가스에서 거행된 타이틀매치에서 美國의 도전자 앤디·개니건을 5회KO로 제압하고 타이틀 4차방어에 성공했다.

아르게요는 1회전에서 강력한 레프트훅을 맞고 다운됐으나 2회전부터 기력을 회복, 3회전에서 개니건을 다운시킨뒤 5회전에 들어 어퍼컷과 강력한 좌우훅과 스트레이트를 안면에 퍼부어 KO승을 거뒀다. 이로써 아르게요는 통산 75승4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세계女子핸드볼 亞洲豫選 개막

日서 29일까지 韓·日·中共 더블리그로

한국, 오늘下午 中共과對戰

【東京=鄭東吉특파원】제8회 세계여자핸드볼대회 아시아지역예선전이 24일밤 이곳 日本서 日本-中共전으로 개막, 29일까지 열린다.

한국 日本 中共등 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더블리그로 벌어지는 이 대회는 오는 12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서 열리는 본선대회 진출권을 다투는 중요한 게임이다. 한국은 25일하오 中共, 26일하오 日本과 각각 1차리그를 벌이며 28일과 29일에 2차리그에 들어간다.

◇한국선수단 ▲단장=許亨茂▲감독=李泰一▲코치=金永年 ▲선수=金美玉 金順淑 金先玉、柳京美 崔銀榮 韓福男(조폐공사) 張玉粉 張泉姝 尹英淑 金玉花 尹秉順(이상 인천시청) 韓和洙 金男順(이상 전주시청) 丁順福(광주시청) 金俊美 成京花(이상 정신여고)

韓·日男女배구 代表팀 定期戰 / 오늘부터 서울등서

韓日남녀 배구 대표팀간의 정기전이 25일부터 서울과 原州에서 3연전으로 펼쳐진다.

지난79년 서울서 처음열린 韓日정기전에서 한국대표는 첫해에 1승1패, 81년에 3연패를 기록하여 통산1승4패의 전적을 갖고 있으며 남자대표팀 역시 1승3패로 뒤지고 있다. 그러나 남자대표팀은 이번 NHK컵 대회에서 쿠바와 日本을 연파한 여세를 몰고 이번 정기전서 설욕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NHK컵대회 출전으로 국제경기경험을 쌓은 우리나라 여자대표팀도 日本대표팀과 접전을 벌일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남녀대표팀은 日本대표팀과 함께 24일낮 귀국했다.

◇韓日배구경기전일정 ▲1차전(장충체·25일 5시) ▲2차전(장충체·26일 6시) ▲3차전(원주치악체·27일 4시)

한국、공기小銃우승 男子단체

墺사격大會 남녀個人戰은 모두3位로

한국은 23일 오스트리아에서 폐막된 국제사격선수권대회 공기권총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선수단이 알려왔다.

한국을 비롯 美國 西獨 스위스등 12개국이 출전한 이번대회에서 육군사격지도단은 공기권총 남자단체전서 2천2백81점으로 오스트리아를 3점차로 물리치고 1위를 차지했으며 동개인전서 任泰鎬는 5백78점으로 한국신기록을 수립하면서 3위에 올랐다. 한국은 공기권총 여자부단체전과 개인전서도 각각 3위에 올랐다.

▲남자공기권총단체=①한국 2281②오스트리아 2278③스위스 2278 ▲동개인=①오스트리아 580②서독 579③임태호(한국·578·한국신) ▲동여자단체=①오스트리아 1109②서독 1099③한국 1096 ▲동개인=①서독 378②오스트리아 376③김혜여(한국) 375

한국男子배구 覇權

日NHK컵, 日주니어팀도 꺾어

【東京=鄭東吉특파원】한국남자배구 대표팀은 日本주니어대표를 3-1로 제쳐 3개국 4개팀이 출전한 NHK컵 국제배구대회서 3전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23일 요코하마 문화체육관에서 벌어진 최종전에서 한국은 쿠바및 日本과의 2연전 패배를 씻지못해 고전했으나 제3세트부터 플레이가 풀려 장신의 日本 주니어를 물리쳤다.

한편 쿠바는 日本대표팀을 3-0으로 완파, 2승 1패로 2위를 차지했다.

◇최종일전적

한국 3 (15-1, 15-9, 7-12, 18-15, 16) 1 日本주니어

쿠바 3-0 日本대표

◇순위=①한국 3승②쿠바 2승1패③일본 1승2패④일본주니어 3패

한국 強者로부상 / 日매스컴서 보도

【東京23日=聯】日本NHK국제배구대회서 우승한 한국대표팀 선수들의 기량에 日本배구계와 매스컴은 예상밖이라는 놀라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팀의 우승이 확정되자 벌로 뛰었던 日本배구계는 『29세를 넘지않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한국의 젊은 대표배구팀은 끈질기게 공을 높이지면서도 폭발적인 공격력을 갖고있는 팀이다. 한국은 놀라운 스태미너와 스프링과 같은 정교한 점프력으로 日本을 압도했다』는등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다.

특히 마이니찌(每日) 요미우리(讀賣) 산께이(産經)등 주요신문은 23일字 朝刊에서 『로스앤젤레스 올림픽行티키트획득에 새로운 明報』등 韓國팀 신생 조본팀을 칭찬, 제목으로 쿠바의 높은 블로킹 벽을 조롱이나 하듯 종횡무진 쏘아대는 한국선수들의 강스파이크는 신기에 가까울정도라고 극찬했다.

이들 신문들은 張允昌선수와 주장인 姜斗泰선수의 기량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국의 李圭明감독은 『韓日의배구실력이 호각이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는 외교적인 발언으로 한국의 기량이 한수 위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全日本팀의 나까노(中野) 감독은 이같은 매스컴의 찬사와는 대조적인 발언, 그는 『구심한 야마다(山田) 후지다(藤田)등 주전선수들이 뛰었다면 한국팀에 절대 지지않았을것』이라면서 全日本팀은 급조한 신생팀뿐만아니라 연습량도 11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콤비네이션에 난조를 보였으며…

OB、莫強投手力 과시

朴哲淳 쾌조의9連勝 / 三星타봉 발묶어 2連勝

MBC、해태制壓…三美는 롯데 제쳐

프로야구

OB·베어스가 「투수왕국」의 위력을 과시하며 17승7패로 단독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OB는 22일 大邱에서 벌어진 三星·라이언즈와의 선두경쟁에서 왼손잡이 鮮于大英의 역투로 역전승한데이어 23일경기서도 오른손 에이스 朴哲淳이 산발4안타, 2실점으로 호투, 9-2로 완승했다.

朴哲淳은 쾌조의 9연승을 올려 10승2패의 최다승을 기록하고있다.

OB 4번 金宇烈은 9회초 3점호머를 날려 통산 10호를 기록, 홈런 더비 1위를 달리고 있다.

MBC·靑龍은 서울경기서 3발의 솔로·호머를 비롯한 14안타를 터뜨려 해태·타이거스를 11-5로 완파, 7연승을 올려 三星을 제치고 14승10패로 2위로 뛰어올랐다.

三美·슈퍼스타즈는 釜山에서 2회초 宋慶燮의 솔로 호머등으로 롯데·자이안츠를 5-3으로 물리쳐 7승 17패를 기록했다.

◇23일전적

◆서울

해태	120	000	200	5
MBC	510	040	10×	11

▲홈런=金城漢(1회) 金宇根(7회·2점·이상해태) 宋榮雲(1회) 白仁天(5회) 李光殷(7회·이상MBC)

◆대구

OB	001	031	013	9
삼성	000	000	200	2

▲홈런=金宇烈(9회·3점·OB)

◆부산

삼미	031	010	000	5
롯데	000	000	012	3

▲홈런=宋慶燮(2회·삼미)

◇전기중간순위 <23일 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17	7	·708
②MBC	14	10	·583
③삼성	15	11	·577
④롯데	10	13	·435
⑤해태	9	14	·391
⑥삼미	7	17	·292

빗나간愛鄕心 / 三星팀連敗에 흥분 大邱市民 빈병세례

【大邱】프로야구전기리그우승향방을 좌우하는 OB-三星전이 벌어진 23일 1만5천관중을 수용하는 大邱경기장은 경기시작 1시간전인 하오 1시에 입장권이 매진, 1천원짜리입장권이 3천원에, 3천원짜리는 1만원까지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됐다.

이날 선두복귀를 노리던 三星이 전날에이어 OB에게서 3위권으로 밀려나자 흥분한 관중들이 빈병과 돌을던지며 한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소동으로 버스를 타려던 三星선수들은 급히 운동장으로 대피했고, OB의 金永德감독은 날아온 빈병에 맞아 머리를 다쳤다. 【聯】

流星의 賊 <390>

李炳注作 李友範畵

勇名 天下에 떨치다 ⑧

、조총의 사격권(射擊圈) 안으로 포위망이 압축되었다. 음 칠월의 하늘엔 벌써 가을 빛이 있었다. 이덕남은 (바로 여기가 내 죽을 자린가) 하는 생각에 빠져들다가 얼른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단병(短兵)으로 다수의 적을 제압하는 방도를 궁리했다.

이때였다. 카랑카랑한 우리 말로 『이것은 북도정칙의 부장 영산의 말을 전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지금 독안에 든 쥐나 다를바 없다. 순순히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 줄 뿐 아니라, 후한 대접을 하겠다』고 했다.

이덕남의 얼굴이 벌겋게 되었다. 『저놈의 통사(通事)는 필시 조선인일 것인데 왜놈에게 붙어 감히 우리에게 그 따위 소릴 전할 수 있는가』 하고 흥분했다.

『그러니 인종지 말자란 말이 있잖은가』

자수도 분연히 혀를 차는 데 또 통사의 말이 들려왔다.

『거기 있는 것은 의병장 홍자수와 훈련원정 이덕남이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물에 든 고기가 크다는 것은 우리들로선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한가지 알려둘 것이 있다. 너희들은 지금 홍계남의 내원을 기다려 한판 칠 양으로 버르고 있는 모양이나 그런 기대는 허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홍계남은 우리 군에게 이미 사로잡혔다. 그리고 그 부하들은 투항하거나 죽거나 했다. 그러니 그런 허무한 기대란 버리고 즉시 항복하라. 어차피 명운은 경각에 있다』

홍계남이 사로잡혔단 말이 비록 꾸민 말일것이란 짐작을 하면서도 포위 당한 군사들에겐 적잖은 충격이었다.

『외숙부님, 일단 이곳을 탈출 합시다. 북쪽으로 양동(陽動)하여 남쪽으로 혈로를 찾읍시다』

이덕남이 이렇게 말할 때 적으로부터 또 소리가 있었다.

『항복하라! 의병장 홍자수, 항복하라 훈련원정 이덕남!』

그러자 홍자수의 벽력 같은 소리가 울렸다.

『이놈들! 홍자수는 여기 있다. 항복이란 무슨 말인가. 태산이 무너져 봐라 내가 무너지는가』 하고 칼을 휘둘렀다.

이덕남도 고함을 질렀다.

『이덕남 여기에 있다. 그러나 너희놈들에게 항복할 내가 아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길 결심했다. 하나 그 앞에 네놈의 목 백개는 쳐야 염마대왕에게 선사가 되겠다』

『외숙부님, 나는 북쪽으로 치고 갈테니 적이 그리로 몰리거든 남쪽의 포위망을 뚫고 나가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무섭게 이덕남은 북쪽으로 달렸다. 칼이 번뜩이자 사자분신(獅子奮迅)이었다. 정면의 적 좌우의 적을 전후 좌우, 전광석화처럼 치고 이윽고 포위망을 뚫었다.

자수 역시 노체의 어느 곳에 그만한 힘이 비축되어 있었던 것일까. 이덕남에게 집중되어 소홀히 된 남쪽의 포위망을 뚫고 질풍처럼 달렸다. 그 동안 자수의 칼에 찔려 죽은 적병의 수는 십여를 넘었다.

이렇게 소림(疎林)을 빠져나와 자수가 평지에 이르렀을 때 조총의 일제사격을 만났다.

靑龍旗 高校야구 서울豫選개막

제37회 청룡기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 서울예선전이 24일 서울운동장에서 개막, 첫날 2회전에서 信一高는 方貞根이 5타수 2안타, 2타점을 올리는등 주전들의 고른활약으로 [illegible]商高에 8-1로 대승, 준준결승에 진출했다. 獎忠高도 1회전서 서울高에 5-3으로 역전승, 2회전에 올랐다.

이번대회 4強과 2회전패자부활경기에서 올라온 2팀등 6개팀이 본선에 진출하게된다.

◇첫날전적

▲1회전

서울고	300	000	000	3
장충고	210	010	1×	5

▲2회전

신일고	000	000	602	8
경기상고	000	100	000	1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416)533-2361

김명종 한약방

첩. 보약(탕약과 엑기스 약제). 심신 모두 피로, 기혈부족, 신경과민, 노이로제, 허리병, 근육통, 부인병, 불임증등에 대한 한약과 녹용, 웅담

한약과 경건인 본 초방약에 의거한 진맥과 처방으로 조제함.

2433 FINCH AVE. W. #411
☎ : 745-2058

운전교습
SOUTHERN ONTARIO DRIVING SCHOOL SPECIAL

10시간의 개인운전교습 집으로나, 사무실로 모시러갑니다.
ONLY $129.00

무료신청서, 무료핸드북, 무료필기시험에 필요한것, 한번 와 보십시요. ※조금의 영어가 필요함.
월-금 오전10시-오후5시
2489 BLOOR ST. W. SUT210
(BLOOR & JANE 써브웨이)
766-4441, 766-4644

新新酒樓
SUN SUN RESTAURANT

정통적 중국음식, 냉칫·카트에 담아서 원하는 대로 픽업하는 식사와 정찬.
영업시간 : 월~일(9시~오후11)
490 DUNDAS ST. W. TOR.
☎ : 977-3142 (스파다이나 코너)
닭, 오리, 돼지, 바베큐신설

개업 특별봉사

숙녀복(Ladys Wear) 전문
공장생산가격으로 직매합니다.
→상세한 바느질과 고급제품
월~금 : 10시~6시, 토~일 : 10시~4시30분
BOSCHE CO.
292 Parliament St.(at Dundas)
☎ : 362-2300 MR. 리

JAGUAR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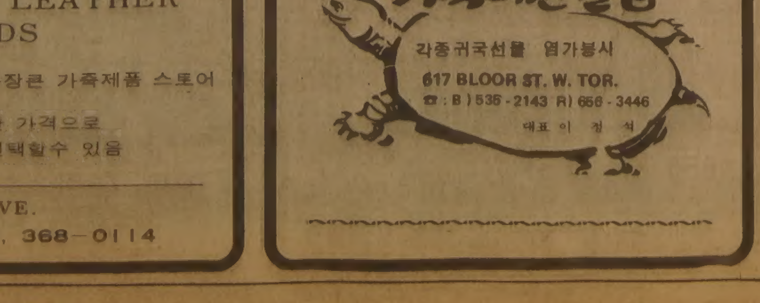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각종 가죽옷 도산매
PERFECT LEATHER GOODS

온타리오 주 내에서 가장큰 가죽제품 스토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마음대로 선택할수 있음
192 SPADINA AVE.
☎ : 368-4215, 368-0114



한국인의
화초 도(소)매상
가장 저렴한 가격
SHERBOURN써브웨이옆
☎ : 923-9948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한국인의 도매상
한 인 연합상사
25-27 Rangemore Rd.
☎ : 251-6578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전화 : 669-5784 Mr. 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전기시설 · 보수
CANCO ELECTRIC CO. 각종 냉동기 에어콘
전화: 270-3118 오 현 구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6시이후 전화요망

식 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뎀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식 품 점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동 양 식 품
일주일 내내 영업, 일요일도 정상영업 합니다.
(화요일만 오후1시~10시까지) 많은 식품을 준비하고 있아오니 계속 이용해 주십시요. *배달도 합니다.
1662 JANE ST. WESTON ONT. 전화: 248-513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삼 복 식 품 주 7일 영업,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전화 : 259-1585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의류수선, 가내봉제 상세한 문의 바람
전화 : 530-1046. 7 p.m~10 p.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전학교

오행근운전학교
전화 : 423-3035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및 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 쇄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자동차수리

Midwest Auto Body Shop 전화 : 751-9280
▲완전 바디 숍, 신용본위
▲260 Midwest Rd. Unit 8 (미드랜드×로렌스) 임 종 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 533-2157

AL'S ESSO Service
Mechanics Repair (All Maker & Model)
Tune-up, Break Repair, Electronic Repair.
Tire & Battery (한국분에게는 염가로 친절봉사해드림)
400 Front St. W.(C.N.Tower 옆)
전화 : 596-6902. Mechanic 최 양호

자동차 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HUMBERVIEW MOTORS
G.M. (시보레·올스모빌)
전화 : (B) 236-1011, (R) 763-1155 손 명철

매매 부동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 용 현 부 동 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장 의 사

장 의 사 (R. S. 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 E. (세파드 써브웨이) ☎ : 221-1159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영정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 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페인트 벽지(월페이퍼)

★봄맞이 집단장을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기술로써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전화:745-6792(Mr.우)

학 교

씨알한국인학교 (교장 유회자)
전화 : 960-0074

Y어린이학교 (김창열)
전화 : 536-1166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안강용한약건재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보약제와 신경통약이 다량 수입되었읍니다.
교민들에게 특별 염가 제공코져 합니다.
전화문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 (465 DUNDAS W.)
전화 : 596-8407, 596-7373 최 호 권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서 울 한 의 원
한의사 김 장 석
전화 : 1-212-762-4694 (New York, U. S. A.)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전 C. A. FIRM ACCOUNTANT
4750 Jane St. Suite No.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정장우 회계사 (PAUL C. CHENG)중국인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625 Dufferin St. Ste.407 (B)636-3616 (R)690-7153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45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매 · 도매함
16 Osler St.
☎ : 762-7255, 7256
762-2700

구 인

일요일 가게 Cashier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Kingston × Midland) 전화 : 266－6355

경험있는 미용사(헬퍼) 구합니다.
킴스 미용실 전화: 532－7094

직원모집
당사는 통역회사로 아래 사항에 해당한 유능한 인재를
찾읍니다. 원하시는 분은 P.O.Box 323 Station "L"로
이력서를 보내주십시요.
자격: 1)중국어·한국어·영어를 해독하시고 번역하실수 있는분
2)번역경험(상기 3개국어)이 5년이상 있으신분

경험있는 여자자켓 만드실 Full Time 재봉사 구함
(주급 : $220부터～)
전화 : 368－2819 (Mr. Wong)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535－0708 박 명 진

피아노 레슨 학생구함
경력 : A.R.C.T. U Of T B.M. Performance
전화 : 531－4579 신 수명

입주하셔서 애기 둘(한살반, 네살)
보아 주실분 구함.(Steeles × Bathurst)
전화 : 889－4574(B) 225－7143(R)

식품점에서 일할 젊은이 구함.(40세 미만)
◉정직하고 양심적인 분
◉성실하고 부지런한 분
◉자동차 면허 있는 분
대우는 능력에 따라 우대함. 가급적 직접 내방바람.
삼복식품

의류수선 (복식 양재, 또는 봉제하청)
동업자 구함 － 기능자에 한해서 남녀 불문
상세문의 오후6시～9시 전화: 530－1046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좋은장소에
지럼이장이 하실 분. 높은 수입 보장함.
전화 : 466－1461

밤 11시 이후 Hotel에서 청소하실분
구함. 전화: 425－1836

◉주말에 일하실 남자학생 (파트타임)
시간:(금·토·일)
◉젊은 여자 Full Time 일하실분 구함
(월·토)
전화: 762－1572, 769－9854

그리운 혈우여 연락하라, 만나서 술한잔하세!
해병 187기 이성규가 해병 188기 정경태를 찾음.
우리는 1968～69년에 걸쳐 월남 호이안에서 같이 싸웠음.
연락처 : 57 Octavia Street,
San Francisco, Ca. 94102
전화 : 1－415－552－1438

Spray Painter 동업주 구함.
Epoxy Finish 유경험자로
자본 $10,000～$15,000을 투자할수 있는분
자세한 내용은 서면 문의바람.
P.O. Box 3046, Station B,
Rexdale, Ont. M9V 3Z6 Mr. Kim

안내광고(CLASSIFIED)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전화 : (416)533－2361～4

구 혼

결혼상담실 (한국기원 내) 상담자 : 최규찬 김분서
653A BLOOR ST. W. TORONTO. (20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오후 1시～10시

30세 재혼(남) 대졸(한국), 미국생활 1년
고생같이 하실분 아래주소로 연락바람.
P.O.BOX 3313 Gardena Calif. 90247 U.S.A.

착실한 26세부터 34세 사이의 신부감 구함
57 Willows Lane Pickering. Ont. (Mr. Kang)
꼭 관심있으신분은 서신 연락바람.
(비 영주권자라도 관계없음)

본인은 당년 38세의 신체건강하고 생활력있는
독신 남자입니다. 초 재혼 불문하고 여생을 함께
하실 뜻있는 여성을 찾읍니다. Mr. 박
★주소 : P.O. Box 1217 Station B
Weston, Ont. M9L 2W9

매매및 양도

Copier (복사기)
Model : Mita 500D. (Very Good Condition)
사무실용으로 적합. 전화 : 533－2364 Mrs. 김

토론토 북쪽 새로지은 Mall안에 있는 Fish & Chips
Restaurant 팝니다. (Private Sale)
장래성이 대단히 좋음.
전화: 886－3375 6:00p.m.～9:00p.m. (Peter)

House for Sale (Christie & Bloor 지역)
Subway근처, 6년된 새집, 12 Room, 3 Bathrooms
지하실 주입, $119,990 전화 : 534－5985

House for Sale (Private)
3 Bedroom Mortgage($75,000) 13% until 84년
Mortgage 좋은 Side Split Bungalow
가정사정상 급히 팝니다.
Markham × Lawrence
전화 : 439－1433(R) 463－7423(B)

성업중인 쥬니어 데파트먼트 스토아 급매
Open Hour : 월－토 (9:00a.m～9:00p.m) 꼭 관심있는분의
연락바람. 전화 : 1－576－7021, 1－576－9899(밤9시이후)

3 Bed Room Town Home 매매
Air Conditioning, 실내 Pool장, Sauna,
Ensuite Laundry 구비되어 있음.
Mortgage : 11¾%. 가격 : $62,900
(영×스틸 북쪽)
전화 : 881－9232 5시반 이후 (Mr. Kim)

공장지대 Office Building 안에 있는 경쟁없는
Donuts Shop. 도너스 만드는 시설이 완비되어 있음.
주매상: $3,500～$4,000
Open: 오전 6:00～오후 6:00
아스킹: $150,000
연락처: 665－0790 Mrs. Lee

Yonge St. 에 있는 꽃가게 급매
위치: 리치몬드·힐 지역
넓이: 4000 Sq. F.
주인이 이주관계로 적당한 가격에 급매코져 함.
꼭 관심있으신분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773－5530 Mr. Grabner.

Full Liquor License가 있는
40석 Family Restaurant 급매
전망이 좋고 이윤이 높음.
꼭 뜻있는 분은 1166 Morningside Ave. at Sheppard로 오셔서
Mrs. Kim을 찾으세요.

성능좋고 속도빠른 사진 식자기
(SAKEN SPICA － K)를 급매합니다.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Restaurant For Sale (Tavern)
동쪽끝에 좋은 환경에 위치한 식당 급매.
Good Lease(20 Years), Good Terms. 가격 : $350,000. 좌석 : 300
영업시간 : 7:00 a.m～1:00 a.m (Mon.～Fri.)
9:00 a.m～10:00 p.m (Sat.～Sun.)
자세한 내용은 오후 5시이후에 연락바람.
전화 : 284－0304 (Alex)

"Fish & Chips" Fast take out Business for Sale
with option to purchase building.
(빌딩도 겸해서 팔수 있음) 전화 : 828－6103

자개, 문갑, 자개 상품장 매매
전화 : 661－4581

미국이주관계로 꽃가게 급매. 미시사가 초입
Plaza 안에 있음. 전화: 624－7597 (Mr. Lee)

50mm 스피커 달린
Sound－Projector
전화 : 368－2819 Mr. 왕

피아노 급매.
Chickering Piano(Walnut Wood)
3년된것이나 거의 새것임. Eaton에서 새것 $4,500나감.
가격 : $2,500
전화 : 463－7423 Mrs. Kim 439－1433(R)

세탁소 장비 일절 급매
아스킹 : $65,000. 자세한 문의는 오전8시～오후7시 사이에
영어로 문의바람. 전화 : 255－8751 (Willian)

낚시용 Boat 매매
거의 새것임. (16 Feet Long)
전화 : 270－1981 (Mrs. Kim)

성업중인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000 렌트: $300(Mon.) 리스: 5년
2988 Lakeshore Blvd. W.

2 Bed Room 달린 Grocer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500
전화 : 694－1912

Kingston Rd.와 Victoria Park Corner에
위치한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전화: 698－0844 언제든지 연락요망.

좋은 위치의 빌딩과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토타리오머신과 딴 여러종류의 복권등 있음
전화 : 537－6296 Tom

이훈모 부동산 전화 : 225－1204
1) Coffee Shop in Office Building, 렌트: 약 $1200/mon.
주매상: $5000, 주5일영업, 아스킹: $16만
2) Donuts Shop, 현재 주매상: $8,000 리스: 20년
렌트: $3500(옆에 달린 Office포함), 아스킹: $325,000
다운페이: $15만 요구.
3) Fish & Chips in Mall
주매상: $4,000, 아스킹: $130,000
다운페이: $70,000, 주6일영업, 월～금: 10:00a.m.～7:00p.m.
토: 11:00a.m.～5:00p.m.
4) 교회 건물
가격: $319,000 (토론토 동쪽지역)

코너에 있는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9,000(No Agents)
73 Coxwell Ave. (4시 이후 방문 바람)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19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399 etc.
937 QUEEN ST. W.
364－0984 REMA FURNITURE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하우스 렌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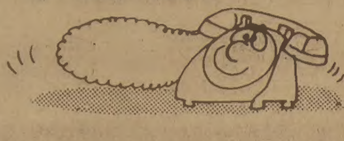
사무실 세놓습니다.(다운타운 소재)
월: $220, Own Sign available. (any size)
전화 : 444－1322, 365－1489

클링톤하우스 693 Bloor St. W.
일,주,월, 일정한 기간에 상관없이 Rent하실분.
Christie Subway에서 100m거리 아리랑식당앞.
꼭 관심있으신분 내방바람.

Bloor한인상가 중심부에 위치한 가게 Lease함.
선물센타나 금·은방에 알맞음.
전화 : 481－3677 (Frank)

가게 Rent 합니다.
698 Bloor St. W. (1500 Sq.ft.)
전화 : (B)533－7966, (R)826－5118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가 구 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쉐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화 랑

KIM'S ART GALLERY
각종 유화, 동양화 도매, 각종 Picture Frame
1286 Weston Rd. 전화 : 243－0233

도 서 판 매

World Book(백과사전)
☎ : 533－2364(Mrs. 김)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 용

ANNIE'S BEAUTY CARE CENTER
Skin Care, Ear Piercing, Fashion Make up.
각종 미용상담에 관해 전화문의도 받읍니다.
6093 Yonge St.(영 × 휜치)
전화 : 223－7884 Mrs. Lee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초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바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243－8026(R)

SALON YOUNG (쉐부어×로얄욕)
남녀 컷 & 파마전문
3074 Bloor St. W. 전화 : 231－4285
월요일 휴업

레이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에 위치 전화: 255－4745

백 화 점

미 도 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번역 및 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사무용구및 계산기

SKY WAY Business Machines
215 Carlingview Dr. Unit 109 Rexdale
전화 : 675－1295 김 인환

사 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 한 칼 라 현 상 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
COMMERCIAL · ART PHOTOS · WEDDINGS VIDEO 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3시30분～오후9시30분

Peter's Photography.(미시사가지역)
광고, 결혼식사진 전문. 전화: 270－2709

선물 센타

거 북 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 · 세 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MISTER O FOR MEN
전화 : 964－2606, 869－0589, 275－2187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스 포 츠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GOLF PRO SHOP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시계·귀금속 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악 기 점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783－6871(B)
주소 :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 한국일보 안내광고 ＊

삼복식품 대폭세일

★3개 사면 1개 free

냉면, 소면, 당면, 동태전감, 삼치, 이면수, 마른미역 , 엿기름, 메주가루 , 보리차, D. Y. 새우젓

★경기미 쌀 ······ 1 자루(20 kg) $14.95

★일제라면(30개) ------ 1 Box ---------------- $7.50

햇 김(특산품 100장) ------------------- $13.95

이외 냄비, 다라이, 찜통, 찬합, 등 다량입하.

★한국서 직수입한 비데오테이프를 $100 이상 사시는 손님에게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신간 5 월호 잡지 : 주부생활, 신동아, 주간학생, 주간여성 판매.

삼 복 식 품 2437 FINCH AVE. W.
743—8270

축

일간지 발행 1주년기념

교민의 벗 · 길잡이

생동하는 뉴스 · 계몽기사

한인사회 대동맥,

앞서가는 한국일보

한국일보
토론토

벡커 프렌차이스협회

회장김병진 및 회원일동